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12월 22일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책임연구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연구원: 장수현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연구참여자: 이선옥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손애경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사과정)

# 목차

|                                        |     |
|----------------------------------------|-----|
| 목차 .....                               | i   |
| 표목차 .....                              | iii |
| 그림목차 .....                             | iv  |
| 요약문 .....                              | vii |
| <br>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 1   |
| 2. 선행연구 검토 .....                       | 3   |
| 3. 한국 화교사회 개관 .....                    | 6   |
| <br>                                   |     |
| II. 연구 방법 .....                        | 10  |
| 1. 문헌조사 .....                          | 10  |
| 2. 설문조사 .....                          | 10  |
| 3. 심층면접조사 .....                        | 16  |
| <br>                                   |     |
| III. 외국의 소수자 정책 현황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 ..... | 19  |
| 1.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            | 19  |
| 2. 프랑스의 소수민족 .....                     | 24  |
| 3. 동남아시아의 화교들 .....                    | 27  |
| 4.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                   | 33  |
| 5. 재일한인들의 지위 .....                     | 37  |

|                                           |     |
|-------------------------------------------|-----|
| IV. 국내거주 화교의 차별 현황 및 사례 .....             | 43  |
| 1.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차별 현황 .....              | 43  |
| 2.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본 차별 현황 .....            | 65  |
| V.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                      | 87  |
| 1. 사회복지 혜택 개선 .....                       | 87  |
| 2. 화교학교 지원 .....                          | 87  |
| 3.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                      | 88  |
| 4. 상업적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공 .....               | 89  |
| 5. 연금제도의 개선 .....                         | 90  |
| VI. 결론 .....                              | 91  |
| 1. 연구의 제한점 .....                          | 91  |
| 2. 연구의 함의 .....                           | 92  |
| <참고문헌> .....                              | 95  |
| <부록 1> 한국어 설문지: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 98  |
| <부록 2> 중국어 설문지: “關於居住在國內的華僑人權狀況的調查” ..... | 107 |
| <부록 3> 심층면접 질문지 .....                     | 116 |
| <부록 4> 심층면접 녹취록 .....                     | 118 |
| <부록 5> 화교사회지도자 집담회 .....                  | 215 |

## 표목차

|                                            |    |
|--------------------------------------------|----|
| <표 1-1> 전체 화교의 지역적 분포 (2002년) .....        | 8  |
| <표 2-1>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분포 .....                | 14 |
| <표 2-2>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                 | 14 |
| <표 2-3>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                | 15 |
| <표 2-4>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분포 .....                | 15 |
| <표 2-5>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 .....                  | 16 |
| <표 2-6>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포 .....                 | 16 |
| <표 4-1> 귀화 여부 .....                        | 62 |
| <표 4-2> 귀화를 하지 않는데 아래의 이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 | 63 |
| <표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 기준과 내용 .....     | 68 |
| <표 4-4> 대학입학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공통자격기준 .....       | 73 |
| <표 4-5> 카드사별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 84 |

## 그림목차

|                                                             |    |
|-------------------------------------------------------------|----|
| [그림 4-1]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느끼는 차별 .....                       | 44 |
| [그림 4-2] 대학입시에서 느끼는 차별 .....                                | 45 |
| [그림 4-3] 본인이나 가족이 초, 중, 고 사립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한 경험                | 46 |
| [그림 4-4] 본인이나 가족이 대학입시에서 탈락이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 ....               | 46 |
| [그림 4-5] 본인이나 가족이 대학입시에서 탈락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                   | 47 |
| [그림 4-6] 취업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차별 .....                             | 48 |
| [그림 4-7] 승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차별 .....                             | 49 |
| [그림 4-8]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험 .....                  | 49 |
| [그림 4-9] 본인이나 가족이 승진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험 .....                  | 50 |
| [그림 4-10]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이나 승진을 할 때 탈락이나<br>불이익을 걱정 .....       | 50 |
| [그림 4-11] 공공기관(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느끼는 차별 .....                   | 52 |
| [그림 4-12] 공공업무를 볼 때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              | 52 |
| [그림 4-13]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느끼는 차별 .....                          | 53 |
| [그림 4-14] 핸드폰, 인터넷 가입 등과 같은 상업서비스에서 느끼는 차별 ...              | 54 |
| [그림 4-15] 외국인 등록번호가 주민번호와 달라서 불이익을 당할지도<br>모른다고 생각하는가 ..... | 55 |
| [그림 4-16] 참정권에서 느끼는 차별 .....                                | 56 |
| [그림 4-17] 복지혜택에서 느끼는 차별 .....                               | 56 |
| [그림 4-18] 연금에서 느끼는 차별 .....                                 | 57 |
| [그림 4-19] 세금에서 느끼는 차별 .....                                 | 57 |
| [그림 4-20] 한국정부가 화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br>의견에 동의하는가 .....  | 58 |
| [그림 4-21] 한국정부의 화교정책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                  | 59 |

|                                                           |    |
|-----------------------------------------------------------|----|
| [그림 4-22] 한국인이 화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br>의견에 동의하는가 ..... | 60 |
| [그림 4-23] 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              | 60 |
| [그림 4-24] 자신이 화교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가 .....                | 61 |
| [그림 4-25] 주관적으로 느끼는 화교들의 인권상황 .....                       | 61 |
| [그림 4-26] 자녀들의 귀화에 대한 생각 .....                            | 65 |



## 요약문

### 1.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집단과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상호의존이 일상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는 과거처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미화될 수 없다. 거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수반하는 세계화의 이면에서 다름에 대한 수용과 다름과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인권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사회통합 능력과 수준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 중에서 이미 백년 이상 현대사의 굴곡을 우리와 함께 나눈 화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백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화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름'에 대한 포용력 수준의 반영이거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소수자로서 화교가 한국사회에서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은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 속에 압축되어 있다. 해방 직후 한국 무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했던 한국화교가 오늘날처럼 어디에 내세울 만한 사업가 한 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차이나타운 하나 갖추지 못한 무력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이승만 정권 이래 화교에 대한 견제와 차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탓이다.

## 2. 연구방법

① 문헌조사를 통해서 외국의 소수자 정책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화교가 놓인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비교를 위해서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프랑스의 소수민족, 동남아시아의 화교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재일한인들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② 설문조사에서는 전국의 화교 693명을 대상으로 화교들이 실제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영역별로 조사하였다. 인권침해 정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질문지 항목으로 개발하였는데, 이들은 A. 개인적 사항, B. 정체성, C. 차별, D. 이민계획, E. 국적, F. 미래 전망으로 나뉜다.

③ 심층면접조사는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의 화교 22명을 심층면접 함으로써 이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파악했다.

## 3. 정책과제

### ① 사회복지 혜택 개선

화교가 비록 외국인이라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함께 살아온 한국사회의 일원이면서 내국인과 다름없이 주민세, 교육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나 공과금 등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화교에게도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을 모든 자의 권리로 규정하여 내외국인 차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화교에 대한 복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극빈자에 대한 혜택

부여 문제는 화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화교가 비록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결국 그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갖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 온 지역주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 ② 화교학교 지원

화교학교는 화교사회를 떠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그러나 현재 화교학교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만 정부로부터는 교과서만을 지원받을 뿐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학생수는 학교의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화교소학교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화교 학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다. 위의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결국 화교들이 교육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므로 그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한국의 교육부가 규정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만이라도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다른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화교는 한국 땅에서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주를 하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③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에서는 화교들의 경우에 양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유지해야만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화교와 결혼

을 한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화교가 귀화를 하고 싶은 경우 자식의 대학 입시 때문에 못하거나 연기를 해야 한다. 이것 역시 화교를 일반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만약에 화교가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세대를 거듭해서 한국에서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인정한다면, 부모 중의 한 쪽이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화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외국인 특례입학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④ 상업적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공

앞에서 살펴본 인터넷 서비스 이용, 은행 등의 금융기관 이용, 그리고 핸드폰 가입 등의 상업적 서비스의 이용에서 화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홍보 및 강력한 지도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외국인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또 강력하게 지도함으로써 화교들의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의) 불편을 덜어줘야 하고, 은행 등의 기관에서는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등록번호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등록번호는 뒷자리 첫 번호가 5번이나 6번으로 시작되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한 번호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외국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상에서 인식도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번호를 한국인들의 주민번호와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임을 파악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이미 외국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번호만으로 외국인임을 구별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오히려 번호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등록 외국인들에게 아예 주민등록증을 부여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어떠한 기준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국제규약의 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⑤ 연금제도의 개선

연금의 경우 다른 모든 것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반환일시금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만과 특별한 상호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교가 국적상 외국인이라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는 살기 힘든 준내국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간의 상호주의 역시 대만의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의 화교와는 달리 주재국에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는 한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에서 ‘소수자’(minority)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소수자라는 단어가 주로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국사회에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낯설다. 그러나 한국에는 화교를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 혼혈인 등과 같은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도 엄연한 현실이다. 짧은 시일 내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느라고 소홀히 해 온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들어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자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정치적, 학문적 관심도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그 부류에 해당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소수자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하여 푸대접하고 피의 순수성에 집착하면서 단일민족임을 애써 강조하는 배경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해 온 중화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식민사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시절에 민족은 국가의 공백을 메워 주는 ‘신화적 실체’였다. 당시 식민지 국가가 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민족은 곧 ‘우리’로 인식되었다. 전쟁 이후의 분단 상황과 독재,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위한 동원체제는 계급으로 구분되는 내적 이질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민족은 식민지 시절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냉전시대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을 자발적으로 희생시키는데 유용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민족 개념은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쉽게 전화했다.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타민족, 타집단에 대한 배타

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략한 민족주의는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가치관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전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원하던 원치 않든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집단과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상호의존이 일상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는 과거처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미화될 수 없다. 거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수반하는 세계화의 이면에서 다름에 대한 수용과 다름과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인권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사회통합 능력과 수준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 중에서 이미 백년 이상 현대사의 굴곡을 우리와 함께 나눈 화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백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화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름'에 대한 포용력 수준의 반영이거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소수자로서 화교가 한국사회에서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은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 속에 압축되어 있다. 해방 직후 한국 무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했던 한국화교가 오늘날처럼 어디에 내세울 만한 사업가 한 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차이나타운 하나 갖추지 못한 무력한 집단으로 전략하게 된 것은 이승만 정권 이래 화교에 대한 견제와 차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탓이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IMF 금융위기 극복책의 하나로 외국자본 유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재산소유

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화교와 같은 장기거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자 화교의 존재조건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화교는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소수자로서 권리상의 불이익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화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첫째, 외국 소수자 정책과의 비교 하에 우리 화교 정책을 평가하고, 둘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화교의 인권문제는 어떤 사회적 인식 혹은 법적·제도적 장치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본 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화교는 중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 사는 중국인을 통칭하는 용어다. 물론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화교라는 용어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화교는 대만을 포함해서 전세계 90여 개국에 5천만 명 이상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며 이중 91.3%는 아시아에서 살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1995). ‘죽(竹)의 네트워크(Bamboo Network)’라고 불리는 화교경제권의 잠재력은 무한하면서도 위협적인 것이다(이문봉, 1994). 중화경제권의 외환보유고는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의 힘은 매우 막강한 것이어서 싱가포르를 말할 것도 없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화교자본은 금융, 교역, 투자 등의 근대적인 산업을 장악하여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교는 각국의 상장기업 중 태국에서 81%, 싱가포르에서 81%, 인도네시아에서 73%를 수중에 넣고 있다. 현재 중국 본토 바깥에 거주하는 화

교의 대부분은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 등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 출신들이다 (최재선, 1997).

위와 같은 현실은 화교가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며 모으는 연구 영역이 되게끔 했다. 일단 세계적인 분포와 인구수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유태인과 더불어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한 소수자라는 점도 각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전 세계 화교들의 지역적 특성과 이산(diaspora)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매년 엄청난 양의 연구결과들을 출판하고 있으며 화교만을 연구하는 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도 큰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도 10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한국화교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불모지에 가깝다. 박은경(1981, 1986)의 연구는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꼽힌다. 이 연구는 화교의 '종족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한국사회와의 접합-분절을 설명해냄으로써 이후에 나온 여러 글들의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김기홍(1995)의 연구도 종족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한국사회에서의 동화 정도와 정치·경제적 평등 정도로 유형화하여, 한국 사회가 화교들에게 기본적으로 철저한 동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연구들이 한국화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면 대상을 좁히거나 분석단위를 나누어 세분화된 연구들도 일부 나왔다. 조희정(1986)과 이재정(1993)의 경우는 지리적인 분포와 각 지역에서 화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했는가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담건평(1985)은 화교들의 사회조직인 서울지역 '사단'의 연구를 통해서 화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대만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는가를 보여주었다. 화교교육에 관한 연구(석미령, 1999)나 화교청소년에 관한 연구(안시현, 1998), 그리고 인천지역 화교 집단거주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장수현 2001, 2002)도 세부적인 대상과 주

제로 연구를 해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화교연구가 불모지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화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술적인 연구는 위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며, 또한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학위논문들인 관계로 한국사회 전반에 한국 화교의 역사와 현실을 널리 알리는 데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화교 관련 연구의 숫자가 증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위논문 등의 형식이거나 아니면 화교경제권이라는 세계적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화교와 관련된 국내의 대중적인 출판물들은 대개 화교 상인들의 상술에 관한 것이거나(다카기 게조, 1997) 화교기업과 그 경제적 잠재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이문봉, 1994; 머레이 와이텐바움 외, 1998), 정부의 출판물도 국제적인 투자 및 대응이라는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외 화교들을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화교가 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화교의 기본 인권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로 생각된다. 한국화교의 열악한 사회적 위상, 배제와 차별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화교라는 '생소한' 외국인 집단의 역사와 삶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는 데 치중하여 화교의 인권 문제를 오직 부분적으로만 지적하는 데 그쳤을 뿐 화교 인권 문제의 실체와 그에 대한 화교 자신의 시각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화교의 인권문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오히려 TV나 시사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의 화교 특집을 통해서였다. 예를 들면, 2001년 KBS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화교 삼대' 이야기나 MBC스페셜의 화교이야기의 경우는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도 보통의 한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들이다.

### 3. 한국 화교사회 개관

한반도에서 화교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청국 군대와 함께 40여 명의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중국 국내의 전란과 재해, 경제적 곤궁을 피해 산동의 농민들이 조선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게 되면서 화교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1942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다. 청국의 지원을 받아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화교경제는 일제시대 식민지 정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더 확대하였으며 특히 무역업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굳혔다(박은경, 1986: 30-115).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이 쪼개진 직후 남한에는 만 이천 명을 조금 넘는 화교가 살고 있었다.<sup>1)</sup> 1948년에 남한정부가 수립되어 외국인 출입을 규제하게 되자 중국인의 한국 이주가 중단되었고 이때부터 화교사회는 순전히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존하여 커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49년의 공산정부 성립 이후 이주 억제를 위해 외국 이동을 금지시키면서 화교들이 대개 일년에 한 차례 해오던 고향방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화교 무역상들의 주요 활동이었던 중국과의 교역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몇 십 년간 한화는 가족과 친지가 있는 중국 대륙과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이제 한국 정착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되었던 것이다.

냉전체제가 구축된 한반도의 남쪽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고향이 있는 대륙과의 모든 연결을 끊는 대신 자유민주진영에 속한 대만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당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했다.<sup>2)</sup> 이들은 일순간에 고향 땅의 가족,

---

1) 한반도 전체 화교 인구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던 북한 화교는 남한에 비해 훨씬 더 포섭적인 북한정부의 정책에 따라 남한 화교와는 매우 다른 삶의 궤적을 밟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은경, 「북한 화교 연구 시론」,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2000), 283~312쪽을 참고하라.

2) 한반도의 화교는 95퍼센트 정도가 산둥성 출신으로 대부분 인천을 거쳐 전국으로 흩어졌다.

친척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이들을 "혈통은 중국대륙계이나, 교육은 대만식으로 받았고, 주된 생활터전은 한국이나 대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결국 중국, 대만, 한국 그 어느 곳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못한 독특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승만 정권 이래 한국정부는 화교의 경제역량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유당 정부의 창고 봉쇄 조치, 외국인의 외환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화교 무역업자들을 도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각각 한 차례 시행된 통화개혁은 현금 소지량이 많은 한화에 게 큰 피해를 주었다. 1962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에서부터 시작된 외국인 재산보유에 대한 제약은 1970년의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법은 외국인 한 가구당 200평 이하의 주택 한 채와 50평 이하의 점포 한 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취득한 토지의 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 역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사회의 갖가지 제약과 차별, 그리고 변화하는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적응의 실패는 화교의 재이주를 초래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의 재이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화교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화교 인구는 1972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1945년에 12,648명이었던 남한 화교는 1950년대 중반에 2만 명 선을 넘어섰고, 1972년에 3만 3천 명 정도까지 늘어났다(박은경 1986: 118). 그 이후 화교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서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2만 천명을 조금 넘는 화교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표 1-1> 참고). 생활의 근거지가 대만이나 중국이면서 한국의 거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거주 인구는 2만 명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추측이다.

<표 1-1> 전체 화교의 지역적 분포 (2002년)

| 지역  |  | 인원(명)  | 비율(%) |
|-----|--|--------|-------|
| 서 울 |  | 8,399  | 38.9  |
| 부 산 |  | 1,883  | 8.7   |
| 경 기 |  | 2,128  | 9.8   |
| 강 원 |  | 591    | 2.7   |
| 충 북 |  | 699    | 3.2   |
| 충 남 |  | 740    | 3.4   |
| 전 북 |  | 686    | 3.2   |
| 전 남 |  | 279    | 1.3   |
| 경 북 |  | 525    | 2.4   |
| 경 남 |  | 403    | 1.9   |
| 제 주 |  | 280    | 1.3   |
| 울 산 |  | 306    | 1.4   |
| 대 구 |  | 1,002  | 4.6   |
| 인 천 |  | 2,800  | 13.0  |
| 광 주 |  | 358    | 1.7   |
| 대 전 |  | 531    | 2.5   |
| 총 계 |  | 21,610 | 100.0 |

자료: <http://www.moj.go.kr/notice/noticeRead.php?code=075&lstNum=0000002945&sKey=&sPart=&cPage=1>

인구의 감소와 함께 화교사회는 그 구심점을 잃고 급속하게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중국경제의 부상, 화교자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 차이나타운 개발의 필요성 등이 겹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근래에 화교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화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IMF 위기의 돌파구로서 해외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유동적인 화교 자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함께 해외 화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화교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었다. 동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화교가 갖는 중요성이 여러 지자체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거대 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에 주목했고, 차이나타운 건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한국 화교사회는 중국과 한국을 잇는 고리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II. 연구 방법

### 1. 문헌조사

여기에는 외국의 소수자 정책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화교가 놓인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소수자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 현재 존재하는 차별조항들, 그것들의 극복 방식 등을 점검해본다. 외국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화교들이 받고 있는 인권 측면에서의 제약들을 비교해서 지적할 수 있으며 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서 ①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② 프랑스의 소수민족, ③ 동남아시아의 화교들, ④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⑤ 재일한인들의 지위를 살펴본다. 이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들에 관한 연구는 21세기 한국이 화교를 어떻게 만나야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 2. 설문조사

#### 가. 질문지 개발

질문지의 개발은 화교들이 실제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영역별 조사 항목을 개발하였고, 인권 침해 정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질문지 항목으로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이들은 A. 개인적 사항, B. 정체성, C. 차별, D. 이민계획, E. 국적, F. 미래 전망으로 나뉜다.

A는 개인적 사항들로서 성별, 연령, 종교, 교육, 취업, 주관적인 계층 의식, 출생지 등에 관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B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화교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 중국 전통의상을 입는 횟수, ② 한국음식을 먹는 빈도, ③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율, ④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⑤ 중국어와 한국어 실력, ⑥ 국제 운동경기에서 응원하는 팀, ⑦ 화교친구와 한국친구의 수, ⑧ 한국 이웃과 가까운 정도 등이 있다.

C는 차별에 대한 내용들인데, ① 초중고 및 대학입시 등의 교육에서의 차별, ② 취업이나 승진에서의 차별, ③ 관공서에서의 차별, ④ 사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핸드폰, 인터넷 가입 등) 서비스에서의 차별, ⑤ 참정권, 복지, 연금, 세금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차별, ⑥ 한국인이 화교를 대하는 태도에서의 차별 등에 관한 질문들과 이것들에 대해서 화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관한 항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화교들의 인권상황을 화교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D는 이민에 관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을 고려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한국사회가 화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① 이민 계획이 있는지 여부, ② 이민을 가려는 이유나 또는 가지 않으려는 이유, ③ 가고자 하는 나라 등을 묻는다.

E는 국적에 관한 부분인데, 주로 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① 귀화 여부, ② 귀화를 하지 않은 또는 한 이유, ③ 배우자의 국적, ④ 자녀들의 귀화에 대한 의견, ⑤ (대만이 아니라) 중국 국적 취득에 관한 의견, ⑥ 결혼 배우자의 국적별 우선순위 등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F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화교의 미래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① 화교사회가 계속 발전할 것인가, ② 화교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③ 해외 이민이 늘어날 것인가, ④ 한국으로 귀화가 늘어날 것인가, ⑤ 중국 국적취득이 늘어날 것인가, ⑥ 다른 나라로 이민 간 화교들의 한국으로 역이민 올 것인가 등을 묻고 있다.

#### 나. 질문지에 사용된 언어

질문지는 동일한 내용을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로 준비했다. 처음 준비를 할 때에는 두 가지 언어가 비슷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압도적인 다수가 한국어 질문지를 선호했다. 비록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화교학교에서 중국어로 교육을 받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대학 진학도 주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 질문지를 선호했다.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가 아니라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한국 화교들의 대부분이 중국 대륙에 있는 산둥성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는 화교학교가 대만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모두 번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 표집과 조사수행

화교들은 오랜 시간동안 차별을 받아오면서, 소수자인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언급을 한국 사람과 나누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官)’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하는 편인데, 하물며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야하는 차별에 관한 조사를 선뜻 응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sup>3)</sup> 따라서 화교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연줄망을 동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더구나 대규모 조사를 위해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조사 자료는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화교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으며 확률표집에 합당한 기초 자료가 없어서 비확률표집법 중에서 할당표집법과 전략적 제보자 표집법을 사용했다.

우선 전략적 제보자표집법을 살펴보자. 화교들은 소수자 신분으로 차별을

---

3) 모 방송국 PD도 취재와 관련해서 화교들에게 접근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화교들이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화교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조사,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조사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럴 경우 중간 매개자 없이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조사자는 일단 각 지역의 화교협회를 접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공문에 기초한 긴 설명을 통해서 협회 관계자들을 설득한 후 협회에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화교들에게 조사를 권유하는 형식을 취했다.

할당표집법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위의 네 도시가 한국의 도시들 중에서 지역 거점에 해당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화교가 많이 사는 도시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sup>4)</sup>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 지역의 화교소학교와 화교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숫자가 각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숫자와 대체로 같은 비율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질문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에게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 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것을 조사자가 취합하였다. 재학생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다만 제보자들의 조언에 따라 응답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한 집에 하나 이상의 질문지가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집에 한 장만 가져간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gt; 아버지가 응답</li> <li>② 부모가 모두 화교인 경우 ==&gt; 어머니가 응답</li> </ol> </li> <li>2. 한 집에 두 장 이상 가져간 경우 (형제가 같은 학교 또는 화교소학, 중학을 다녀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gt; 한 장은 아버지가, 나머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다른 친척이 응답</li> <li>② 부모가 모두 화교인 경우 ==&gt; 두 사람 모두 응답, 나머지가 있을 경</li> </ol> </li> </ol> |
|-----------------------------------------------------------------------------------------------------------------------------------------------------------------------------------------------------------------------------------------------------------------------------------------------------------------------------------------------------------------------------------------------------------------------------------------------------------|

4) 인천의 경우는 화교가 많이 살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곳이므로 지역적 구분을 고려해서 제외했다. 그리고 광주 의 경우에는 호남지방의 다른 도시들 보다 거주 화교의 수가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행정구역상의 규모 때문에 포함했다.

한편 이렇게 표집을 할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대개 학부모의 나이에 해당하는 40대의 응답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약점은 심층면접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만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 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 2-1>에 나온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1.6%가 서울지역 거주자이고 부산이 21.8%, 대구가 11.0%, 광주가 5.6%를 각각 차지했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분포

| 지역 | 인원(명) | 비율(%) |
|----|-------|-------|
| 서울 | 427   | 61.6  |
| 부산 | 151   | 21.8  |
| 대구 | 76    | 11.0  |
| 광주 | 39    | 5.6   |
| 총계 | 693   | 100.0 |

조사대상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58%, 여자가 41.3%를 차지하였다(<표 2-2>). 연령대별 분포는 <표 2-3>에 보는 것처럼 40대가 64.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30대가 18.9%, 50대가 8.1%를 각각 차지했다.

<표 2-2>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     | 빈도  | 퍼센트  |
|-----|-----|------|
| 무응답 | 5   | .7   |
| 남자  | 402 | 58.0 |
| 여자  | 286 | 41.3 |

|    |     |       |
|----|-----|-------|
| 합계 | 693 | 100.0 |
|----|-----|-------|

<표 2-3>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        | 빈도  | 퍼센트   |
|--------|-----|-------|
| 20대    | 28  | 4.0   |
| 30대    | 131 | 18.9  |
| 40대    | 450 | 64.9  |
| 50대    | 56  | 8.1   |
| 60세 이상 | 10  | 1.4   |
| 무응답    | 18  | 2.6   |
| 합계     | 693 | 100.0 |

<표 2-4>에 나타난 종교분포를 보면,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의 분포와는 달리 신·구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비율이 매우 낮고 (개신교 12.0%, 천주교 5.1%), 반면에 불교의 비율이 4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4>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분포

|       | 빈도  | 퍼센트   |
|-------|-----|-------|
| 무응답   | 25  | 3.6   |
| 개신교   | 83  | 12.0  |
| 천주교   | 35  | 5.1   |
| 불교    | 286 | 41.3  |
| 도교    | 1   | .1    |
| 이슬람교  | 7   | 1.0   |
| 종교 없음 | 256 | 36.9  |
| 합계    | 693 | 100.0 |

<표 2-5>에서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73.7%가 취업자로, 그리고 26.3%가 비취업자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표 2-6>), 예상했던 것처럼 요식업 종사자가 53.7%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화교학교를 통해서 조

사에 응하게 된 대상자가 많았다는 점 때문에 교사가 9.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2-5>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

|     | 빈도  | 퍼센트   | 응답자<br>퍼센트 |
|-----|-----|-------|------------|
| 취업  | 449 | 64.8  | 73.7       |
| 비취업 | 160 | 23.1  | 26.3       |
| 무응답 | 84  | 12.1  |            |
| 합계  | 693 | 100.0 | 100.0      |

<표 2-6>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포

|       | 인원(명) | 퍼센트   |
|-------|-------|-------|
| 요식업   | 293   | 53.7  |
| 포장업   | 8     | 1.5   |
| 숙박업   | 8     | 1.5   |
| 한의사   | 20    | 3.7   |
| (양)의사 | 4     | 0.7   |
| 약사    | 15    | 2.7   |
| 변호사   | 2     | 0.4   |
| 교사    | 51    | 9.3   |
| 제조업   | 20    | 3.6   |
| 무역업   | 35    | 6.4   |
| 기타    | 90    | 16.5  |
| 합계    | 546   | 100.0 |

### 3. 심층면접조사

문헌조사는 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파악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느낌도 매우 중요하므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내 화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가족관계, 가족의 이주역사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인권실태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사회에서 받고 있는 차별이나 불이익, 개선될 필요가 있는 문제, 지자체 참정권에 대한 생각, 타국가로의 이주 계획 등을 물을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화교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올바른 화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화교들이 국적, 민족, 거주지 등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문화적인 정체성은 어떠한지, 한국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는 화교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은 위의 정체성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민족교육의 중추인 화교학교의 교육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은 앞으로 화교사회가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관련된 화교들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화교사회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화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면접대상자는 모두 22명으로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성별로 볼 때 남자가 17명, 여자 5명으로 남자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심층면접을 남성 조사자가 수행한 것과도 연관되지만 화교사회에서 대외적인 접촉이 활발한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8명, 30대 3명, 40대 6명, 50대 3명, 60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조사자들의 거주지가 서울인 관계로 면접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지역 화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구 2명, 부산 1명,

충남 장항 1명을 포함하여 지방 거주 화교들의 상황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심층면접 대상자 중에 일선에서 화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화교들을 포함하여 화교 생활방식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 그리고 화교 인권문제에 관한 화교사회 내부의 시각과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각 지역의 화교협회들과 '한국화교경제인협회'의 도움으로 화교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 III. 외국의 소수자 정책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

#### 1.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가. 미국의 상황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

2000년에 있었던 미국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백인의 비율은 70.7%를 차지했다. 그 동안 가장 큰 소수자 집단으로 존재했던 흑인은 12.3%로 떨어졌고, 라틴계는 12.5%를 차지해서 최대 소수자 집단으로 등장했다. 아시아계는 3.6%를, 그리고 미국원주민(인디언)은 0.9%를 차지했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선 국가의 형성 과정과 국민의 구성 등에서부터 미국은 한국적인 상황과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은 잘 알려진 대로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다. 약간 확대해서 말한다면, 미국은 역사적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이념에 의해 창설된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민족이 모여 사는 복합사회로서 수많은 갈등과 조정을 경험해온 나라이므로 단일민족 사회임을 강조해온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중심으로 미국의 소수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법적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소수자 정책이 갖는 엄격함은 적극적 조치의 실행에 있다. 적극적 조치는

---

5) 적극적 조치가 적용되는 집단은 각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원래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주요 대상이었고, 호주는 처음부터 여성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인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고용할당비율이 적용되었고, 인도에서는 불가촉천민과 다른 소수집단을 보호하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황정미(2002) 참조.

1965년 존슨 대통령이 행정명령 10925호를 통해서 시행한 것으로, 당시 흑인들을 필두로 한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민권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시정되지 않아서 도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 조치는 그 때까지 있었던 민권운동이 이뤄낸 결과들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으로서, 존슨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권리와 이론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적극적 조치는 교육, 고용, 기업 경영의 세 분야에서 소수자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 의해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던 승진, 임금, (대학)입학, 장학금, 재정지원 등의 측면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계약에서 소수자가 경영하는 기업이 우선 계약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선발주자인 백인들의 틈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sup>6)</sup>

적극적 조치를 내리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인종차별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가 내려지던 때만 하더라도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원주민 등의 ‘유색인’에 대한 차별이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했다. 둘째로는 과거 200여 년 동안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형성된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이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해야 균등한 경쟁이 되는데, 이미 200년 동안 차별로 백인은 앞서 있고, 유색인들은 뒤쳐진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다. 출발점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처방전이 바로 적극적 조치였다. 셋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흑인이나 라틴계의 전문직 인력 확보였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을 획득한 백인들은 유색인종이 사는 데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결과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에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유색인종이 전문가를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사회에 돌아가서 자기 지역사회를 위해

---

6) <http://www.infoplease.com/ce6/society/A0802658.html>

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다.

#### 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도전

1980년에 집권한 레이건은 선거운동기간부터 적극적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레이건과 부시가 집권한 공화당 정권 기간 중에 많은 정책들이 축소되었다. 게다가 199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폐지안인 ‘주민 제안 209’(Proposition 209)가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54 대 46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교육, 고용, 기업 경영에서 소수자 및 여성 등에게 부여되던 혜택은 전면 금지되었다. 이 투표에서 백인들의 투표 참가율은 무려 74%에 달했고, 그 가운데 63%가 폐지에 찬성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다른 주들도 적극적 조치를 폐지해가는 추세이며 결국 이 조치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폐지될 가능성조차 생겨났다.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첫째, 역차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역차별 논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적극적 조치가 일정집단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곧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예전의 차별이 성과 피부색을 고려하여 여성 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했듯이 적극적 조치 역시 성과 피부색을 의식해서 여성과 흑인을 우대하고 남성과 백인에게는 차별을 가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합게임(zero-sum game)’의 시장상황에서 특정집단에 대해 특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다수자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적극적 조치가 과연 특혜인가, 또는 집단간의 평등보장을 위한 정책이 일종의 특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조치 옹호론자들은 역차별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역차별은 진정한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과거의 소수자 차별로 인한 다수자들의 반사이익과 기득권이 사라진 것을 동일한 의미의 차별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적극적 조치를 일종의 특혜라고 인정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특혜를 받는 집단이 우월하거나 특별한 신분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집단 성원 전체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해체나 대립보다는 사회통합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논점이다.

둘째, 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보상책으로서의 적극적 조치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과거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립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목적 자체가 과거 차별로 인한 불평등과 피해를 교정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과거 차별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현재에 보상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차별의 가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전체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논란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희생자만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차별의 희생자들, 즉 역사적 차별의 희생자들까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적극적 조치 지지자들은 적극적 조치의 의미가 단순한 과거 잘못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즉, 적극적 조치가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과거지향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소수자 집단의 성원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적극적 조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적극적 조치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업적주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업적주의란 개인의 성공이 타고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성별과 피부색을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가 이러한 업적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적인 성취나 실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

어나면서 결정되는 생득적 요인에 의해 대학입학과 고용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지지하는 편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결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을 단지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능력과 자격이 동일한 경우, 타고난 성별이나 피부색에 의해 관행적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적극적 조치의 근본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등한 자격과 능력이라는 것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하에서 여성이나 흑인을 고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적극적 조치의 존재 자체가 성별이나 피부색을 하나의 고려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역차별 문제 역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쟁자들 중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소수집단 성원이 상대적인 특혜를 입는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 조치와 업적주의의 대립 가능성은 현실적인 논란의 출발 지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될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업적주의 원칙과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논란이 근본적으로 사회 정의나 공정함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의 대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다.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시사점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과거 차별의 결과를 보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정책을 의미한다. 단순한 차별금지나 의식개혁 노력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사법적 규제와 강제력을 통한 사회 평등 실현의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적용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소수자 차별

의 문제가 다수자의 기득권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범에 의해 정당화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사회 정의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공한다.

적극적 조치라는 표현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미국의 차별금지 정책을 통칭한다는 점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학문적, 실천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소수자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도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라고 불릴만한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조치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국가 정책으로는 여성채용 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있으며, 대학입시에서 지역 할당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법적 규제가 엄밀하게 적용되는 일부 분야예컨대, 공무원 채용과 같은-를 제외하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될뿐더러 오히려 현실적 차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여성과 장애인이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소수자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밖에도 국가 유공자 자녀, 농어촌 출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는 도데, 넓은 의미에서 이들 모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과 기회 구조의 평등을 지향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프랑스의 소수민족

### 가. 프랑스의 이민자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인종전시장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도 이에 못지않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1999년 현재 프랑스의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470만 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다. 이들 중에서 1/3 정도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지만, 나머지 2/3는 여전히 외국 국적자이다. 여기에는 물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프랑스에 이민 온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낳은 사람들은 제외된다. 현재 프랑스에는 아랍계, 아프리카 흑인, 서인도제도 흑인, 화교, 동남아인 등의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며 살고 있다(조홍식, 2000: 13).

1950-60년대의 경제 성장기에 프랑스는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 인력, 특히 북부 아프리카의 마그레브<sup>7)</sup> 출신의 아랍계 사람들과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대거 수입하였다. 특히 프랑스 사업가들은 식민지이던 알제리의 마을에 트럭을 대기시켜놓고 프랑스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타라고 하였다. 트럭에 올라탄 청년들은 간단한 서류심사를 받고 바로 프랑스 건설현장이나 공장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정책은 1970년대 경제위기로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프랑스인 실업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1973년부터 공식적으로 모든 이민을 중단시켰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예외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와 이미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때뿐이었다(위 글: 269-270). 이민자 문제는 실업자 문제와 긴밀하게 뒤섞여 있다. 이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최하층을 이루고 있으며 빈곤과 범죄라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있다.<sup>8)</sup>

프랑스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심한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이민 온 마그레브 출신자들(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이다. 1980년대 경부터 이민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관용의 한계치’라는 표현이 대중매체나 정치가의 발언에

---

7)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의 총칭이다.

8) 최근 개봉한 프랑스 영화 ‘아마카시’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빈민촌 일곱 젊은이들의 삶과 애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사에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는 아랍계잖아”와 같은 식의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이질적인 것을 허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에서 이 개념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96년에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1퍼센트를 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의 76퍼센트가 ‘프랑스에는 아랍인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45퍼센트에 머물고 있다(르몽드, 1996년 3월 21일자, 고자카이, 2003: 253에서 재인용)

#### 나. 이민자들의 권리

프랑스 혁명은 근대적 의미의 인권 개념을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국민’을 빚어냈다. 프랑스 혁명은 보편적 원리로서 ‘인간의 권리’와 실질적 권리로서 ‘시민의 권리’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했고, 인권은 오직 특정 국가의 시민일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최갑수, 1999: 151-153).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부족했던 보편적인 인권 개념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을 새로운 국제법의 원리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극복되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의 프랑스에서 잘 실천되고 있다.

이민자들과 관련된 법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보편적 의지에 기초한 국제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나 프랑스에 이민 온 외국인 중에서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프랑스 사회에서 살 수 있을 만큼 프랑스화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민자들은 프랑스인과 거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프랑스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비를 더 많이 내지도 않고 의료혜택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제도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조홍식: 266-267). 게다가 프랑스 의회는 1988년에 만장일치로 ‘RMI 법안(사회적응 최소수당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소득이 없는 2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최소생계비 보조금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사회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최후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다. 외국인도 당연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프랑스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들의 민족운동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브르타뉴 민족주의와 오크 민족주의 등이 그것이다(하먼 2001: 157). 그리고 프랑스에도 극우주의자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과 같이 이민자들의 추방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관용의 정도가 높고 소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동등한 대접을 하고 있는 나라다.

프랑스와 가장 상반되는 정책을 펴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국적법은 철저히 혈통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에는 터키 출신 이민자들이 많은데,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교육을 받은 터키 이민 2세나 3세도 실질적으로 독일 국적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인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 이들은 터키 이민 2, 3세와는 달리 대부분 독일어 구사능력이 기초적인 수준이거나 독일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들어선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국적법을 통과시켰다.

### 3. 동남아시아의 화교들

동남아시아의 역사에서 화교들이 차지하고 온 역할과 오늘날 그들의 경제적 위치를 감안하면 화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관계가 날로 깊어짐에 따라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동남아의 소수자들, 특히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인 화교들의 실태를 파악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동남아의 각 나라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화교들의 존재양식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서는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나라별로 나눠서 보고, 수백 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화교사를 연대기적으로 모두 보기 보다는 현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가. 태국<sup>9)</sup>

태국 정부는 2차대전 이전까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이민족주의적인 정책과 ‘반화인’ 정책을 펼쳤다. 1933년의 국민교육정책은 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태국국민으로 교육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실행되었는데, 이에 의거해서 화교학교들의 상당수가 폐쇄되었고 중국어 신문의 발행허가도 취소되었다. 이런 정책 방향은 2차대전 후에도 지속되어서 ‘태국국민 우대 고용법’ 등을 통해서 화교 사회를 압박했고, 그 결과 많은 화교들이 태국국적을 취득하여 태국으로 귀화하였다.

화교가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화교들이 토착사회에 가장 잘 동화된 나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① 음식과 종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태국 문화와 중국 문화 간에 상호유사성이 있다는 점, ② 태국인과 중국인들은 신체적 외모에서 그 차이가 비교적 적다는 점, ③ 태국 문화의 활력과 지속성, 그리고 태국의 독립보존에 대한 태국인들의 역사적 긍지 등이 중국인들에게 태국 사회로의 동화에 대한 매력을 주었다는 점, ④ 태국에서 중국인들이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가졌다는 점, ⑤ 대부분의 태국 정부들이 다양한 경제적 조치들과 태국어 중심의 학교교육 등의 정책을 통해 중국인들을 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kinner, 1973).

그렇지만 태국(특히 방콕)의 화교들은 여전히 강한 중국적 정체성을 보이고

---

9) 조흥국(2000), 26-110 참조

있으며, 언어와 종교에서 동화되지 않은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1992년에 태국 정부가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을 완전 자율화 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화교들 사이에서도 중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태국의 화교들은 태국 사회와의 깊고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동화되어 점차 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중국적인 것을 고수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베트남<sup>10)</sup>

베트남의 근대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화교도 그것과 무관할 수 없다. 프랑스가 식민지 기간 동안에 화교들을 중간자로 이용해서 베트남을 통치했기 때문에 화교들은 이 기간에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민족주의와 부딪히는 반화교 감정을 심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1782년에 이미 중국인 1만 명 학살사건이 있을 정도로 반화교 감정이 있었지만, 프랑스의 식민통치는 이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북부에서는 사회주의화로 인해서 화교들의 활동이 거의 정지했던 것에 비해서, 남부에서는 자본주의화 물결을 타고 화교들의 상업중심적인 활동이 남베트남 경제를 장악했으며 화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대만과 연결시켰다.

그러나 북부가 주도한 1975년의 공산화로 인해서 남부의 화교들은 강도 높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으며, 화교 자본가들은 매판자본가로 비판을 받는 동시에 화교들의 모든 사유재산은 국유화 되었다. ‘보트 피플’로 탈출한 베트남

---

10) 전경수(2000), 112-183 참조

사람들의 상당수가 화교였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과정의 험난함을 말해준다. 특히 1977년에 베트남과 중국이 국경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부의 화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민족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베트남 내의 중국 영향력을 배제함과 동시에 화교들의 국적을 베트남으로 확인했다.

소수민족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베트남 화교들에게 지위의 하락을 의미했다. 베트남에는 5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대부분 산악지대에서 화전을 주업으로 하는 이 사람들과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해온 화교들이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화교들의 지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었다.

현재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화교는 1986년 베트남의 개방정책 시행 이후에는 베트남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남부의 화교사회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지의 화교사회와의 재연결이 나타나면서 화교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다. 말레이시아<sup>11)</sup>

화교가 말레이시아 연방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인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어떤 의미에서 화교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 족과 함께 국민을 구성하는 두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상의 특징은 말레이시아 화교가 다른 동남아시아 화교들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한다.

첫째, 말레이시아 화교들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다. 언어, 종교, 혈연 등에서 그들은 독자적인 종족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른 종족집단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화교사회의 집단적 이해를 공식적인 정치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

11) 오명석(2000) 186-309 참조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화교 정당을 구성하여 말레이계 정당과 연립정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일정 수준 공유하고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 화교사회는 상인, 장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던 이민사회 형성기의 계급구조를 상당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중국의 광둥성과 복건성 출신의 다양한 방언집단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주로 쿨리 교역을 통해서 현재의 말레이시아로 이주해온 화교들은 시기별로 다양한 존재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인 말레이와의 분리와 갈등이라는 틀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일본점령기에는 화교가 반일 세력으로 규정되었고, 싱가포르 점령 직후에 있었던 일본헌병대에 의한 숙청으로 적게는 6,000명, 많게는 40,000명으로 추정되는 화교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 독립 이후인 1969년에 발생한 화교와 말레이 간의 유혈충돌로 정부는 종족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친말레이 정책은 그 전과 비교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의 정책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언어·종교·교육 등은 말레이화를 통해서 동화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부미뿌트라(땅의 아들)이라는 원주민 우선 정책은 말레이와 비말레이 간의 배제를 전제로 하고 또 이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1990년의 총선에서 처음으로 말레이계 야당과 중국계 야당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져 기존의 집권세력이 위협을 받게 되자, 정부는 화교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문화에 대한 다소간 유화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원주민과 이민자간의 구분과 차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말레이의 말레이로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라. 인도네시아<sup>12)</sup>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10,000여명이 학살당한 바타비아 사건(1790년)과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

12) 신윤환(2000), 424-474 참조

경제구조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1949) 이후 첫 1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유럽인과 화교들의 경제적 지배를 종식 시키고자 다양한 차별정책을 시도했고 화교들의 상업활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 화교 공동체는 해체를 강요당하고 탈정치화의 길을 걸었다.

그 후 수하르토의 신질서체제가 사회주의 모형에서 시장경제 모형으로 발전 전략을 수정하고 나서 화교들은 다시 한 번 경제적인 부흥의 기회를 맞았고, 화교들은 소상인에서 대자본가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화교들은 정치적 무대로부터 사라졌다. 이미 오래 전에 친대만 계열의 조직활동이 금지되고 불법화 되었던 것에 이어서, 이를 누르고 승리했던 친중국제 조직들도 공산주의 활동의 불법화를 통해서 제거됨으로써 화교들의 정치적 활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더욱이 중국어 학교와 신문이 사라지고 중국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화교들의 종교가 정부의 공인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체성 유지에 큰 장애로 등장했다.

그러다가 아시아 전역을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발생한 1998년의 반화교 폭동은 인도네시아 화교 사회에 중요한 전환점을 준 것을 평가된다. 이 때 수천 개의 화교 상점이 불에 탔고, 1,000명 이상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신질서 기간 동안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토착엘리트들에 대해 쌓아왔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수만 명의 화교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화교자본도 대규모로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었다. 대신에 화교들은 직접 정당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토착인 정당에 가입 또는 지지표명을 함으로써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수하르토 이후의 인도네시아 정부가 토착민과 화교 관계에 대해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과거에 화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들이 아직 폐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 또 토착민과 화교가 경제수준, 종교, 거주지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되는 집단들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 4.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가. '민족구역자치'의 역사

수많은 민족집단의 이합집산과 투쟁의 결과인 중화인민공화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서 확실한 소수민족 개념에 입각하여 소수민족의 기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우리나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한족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지만 '통일적 다민족국가' 또는 '다민족 사회주의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상정한다. 중국정부는 인구수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이 중심이 되어<sup>13)</sup> 55개의 크고 작은 소수민족을 단합과 조화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 통일적 민족관계를 강조된다. 이 구도에 따르면 통일적 민족관계는 과도기적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융합의 과정을 하나의 중화민족이 되는 단계로 이어진다(조정남 1988: 13-17).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주창하는 현단계에서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의 원칙이다. 민족간의 갈등과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모든 민족이 그 대소와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민족도 다른

---

13) 199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한족은 전체 인구의 약 92 퍼센트를 차지한다. 소수민족 보호를 위해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인구제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민족에 비해 특권이나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족단결은 민족간의 압박과 착취에 반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 가운데 형성된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곧 민족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채택한 것이 바로 소수민족 집거지의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 곧 민족구역자치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에 개최된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중국인민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각 소수민족 집거지에서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1952년에는 민족구역자치 실시에 관한 요강을 제정하였고 1954년에 다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헌법 속에 포함시켜 중국의 기본 제도로 확정지었다(龔學增 1996: 142). 그러나 1954년의 헌법은 소수민족의 기본 권리들을 충분하게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1950년대 말의 대약진운동이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적 급진주의 시대에는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제대로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한족 중심적인 민족동화 정책이 시행되곤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의 개정 헌법은 1954년 헌법에서 보장한 소수민족의 기본권들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기본 권리가 헌법에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개혁개방시대에 들어선 다음이었다. 1980년대 초반,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자치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자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1982년의 개정 헌법 속에 그 요구를 반영하였고 1984년에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을 통해 그것을 구체화하였다(Heberer 1989: 40-42).

#### 나. 소수민족 자치제도의 주요 내용

현행의 소수민족 구역자치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조정남 1988: 114-120). 첫째는 구역자치 시행이다. 이것은 소수민족의 집거지를 중심으로 그 규모에 따라 ‘자치구’(성급), ‘자치주’(시급), ‘자치현’(현급) 등의 자치구역을 설정하여 민족자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치구역의 종류에

는 한 개의 소수민족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경우, 여러 소수민족 중 비교적 인구수가 많은 소수민족이 중심이 되어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 자치구역을 형성하는 경우, 둘 이상의 소수민족 집거지를 연합하여 하나의 자치구역을 형성하는 경우, 그리고 복수의 민족이 연합하여 하나의 자치구를 형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기할 사실은, 민족자치구역이 하나의 소수민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대개는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민족자치구역 속에 공존하고 있는데, 한족이 인구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는 자치기관의 설립이다. 민족자치구역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 자치를 위한 인민대표회의와 인민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고, 인민대표회의는 구역 자치를 실행하는 민족대표 외에 그 행정구역 내의 다른 민족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의기구이다. 중국정부는 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에서 이런 자치기관의 장을 맡도록 하는 등 ‘자치기관의 민족화’를 민족구역 자치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자치기관의 민족화라 함은 자치구역의 각종 행정기관이 언어와 문자, 형식, 간부 등 3개 부문에서 민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각급 자치기관은 자치의 주체가 되는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구체적인 민족업무 수행에서 그 민족의 형식을 따라야 하며, 자치기관의 조직은 그곳 자치민족 간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은 자치권의 행사이다. 자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민족구역자치법>이 명기하고 있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자치 지방의 인민대표회의는 그 지방의 정치와 문화, 경제적 특징을 감안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2)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과 지시 등이 지역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얻어서 이를 변경해서 집행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 민족자치기관들은 국가의 지도 아래 자치적으로 경제건설 사업을 안배하

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4) 민족자치 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을 가진다.

5) 그 지방의 교육계획과 각급 학교의 설치, 학제, 수확방식, 수업내용, 수업 용어 등을 결정한다.

6) 자주적으로 그 지방의 과학, 기술 발전 규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료위생사업을 결정할 수 있고 체육사업과 민족전통체육활동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 인민들의 체질을 증강시키는 방안을 집행할 수 있다.

7)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위생, 체육 등의 방면에서 국외 교류를 할 수 있다.

#### 다. 자치정책의 포용성

소수민족 구역자치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중국 소수민족정책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sup>14)</sup> 문화대혁명 시기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이 보여주듯이 소수민족의 법적 권리가 초법적 권한을 갖는 힘들 앞에서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족구역 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법령의 제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 (Heberer 1989: 43)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큰 그릇 속에 소수민족들을 평등한 동반자로서 포용하는 이러한 정책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민족의 일부인 중국의 조선족 역시 이러한 소수민족 포용 정책의 수혜자이다. 국경을 넘어 만주지역에 뿌리를 내린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그들을 중국 공민으로 인정함에 따라 대다수가 중

---

14) 민족구역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치는 국가의 통일적인 영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수민족 자치구역이 갖는 자치권은 실질적이라기보다 명분적 성격이 강하다(조정남 1988: 121)

국에 남게 되었고 토지개혁 때도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다(정신결 2000 참고). 이들은 소수민족 자치정책의 기틀 위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 조선족자치현 등의 자치구역을 중심으로 민족간부의 영도 아래 민족의 언어와 문자, 전통문화를 보존해 왔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조선족으로 하여금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중국정부의 포용적인 자세는 화교에 대한 방관적 태도, 동화가 아니면 배척이라는 이분적 사고로써 화교 문제를 접근해 온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 5. 재일한인들의 지위

한국 화교의 문제를 논할 때마다 재일한인에 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두 나라가 모두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나라라는 점도 비슷하고, 따라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한국이 화교에게 가하는 차별이 마치 일본인 재일한인에게 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비교에서부터, 선진국인 일본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순위를 논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본의 재일한인 정책은 우리의 화교 관련 정책에 교훈을 준다.

### 가.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1947년5월2일 일본 정부는 칙령 제207호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일본 국적을 가진 한국·조선인이나 대만인에 대해서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전날까지 일본인으로서는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분간’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1952년 4월 2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에 때맞춰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19일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지로 재일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하여 ‘영원한’ 외국인으로 만들었다(조정남 2001: 51). 물론 그 후 일본 정부는 한국·조선인 귀화희망자들을 그들의 기호에 따라 선별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통지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일본 국적을 잃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과 같이 귀화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황민화’와 ‘내선일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했던 동화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재일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민사국장이라는 한 행정당국의 통지로 박탈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고 한 헌법 규정(제10조)에 위반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영토 귀속의 변경에 따라 주민의 국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거주한 오스트리아인과 같이 해당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로서, 재일 한국인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침해이며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

일본이 비준한 난민조약이 1982년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사회보장 등 입국 후의 처우와 아울러 난민의 입국과 재류를 인정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령의 개정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름도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으로 바꿨는데, 한일법적지위협정에 기초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재류 자격에 그대로 방치되었던 사람들이 198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영주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강제퇴거사유를 적용할 때 일반 외국인과 같이 협정 영주자와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고, 역사적 정주 원인 및 거주형태를 같이하는 민족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위의 신청기간 이후에 태어난 ‘법 126조 해당자’의 손자녀 및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영주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1991년 1월 10일에 한일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91년 각서’에야 비로소 영주자격을 가진 재일한국인들의 강제퇴거사유를 내란·외환죄, 국교, 외교상의 이익에 관계되는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강재언, 김동훈 2000: 241-242).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란 자국의 여권을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본 정부의 비자(입국사증)를 받아 입국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일본에 재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2차대전 전부터 재류해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로 구성된 정착 거주자는 그 형성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우도 당연히 일반 외국인과 정주외국인과는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은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 나. 재일한인의 사회적 지위

재일한인이 일본으로 이주·정주해온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재일한인은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노동과 납세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의 발전에 일본인과 동일하게 기여한 주민으로서 정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은 완전히 무시·사상되어, 일반 외국인과 같이 처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로서 지배 관리되고 있다.

1991년 각서는 말썽 많던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영주자격자에 한정함으로써 영주자격 없이 장기간 거주하는 정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동반한 지문날인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경찰이 임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인이 주민기본대장법 위반을 할 때에는 과태료만 내게 하면서 외국인 등록법 위반은 징역을 포함한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외국인 등록법에 기초한 외국인 주민의 등록은 처음부터 법무성이나 경찰이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체의 주민으로서의 등록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을 부정하고 일본교육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다. 1948년 4월 26일에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에게 발포하여 16세였던 김태일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민족교육은 ‘과외’교육으로서만 인정되었다. 1991년의 각서에서

는 동화교육을 밀어붙인 1965년 문부차관 통달 제 464호를 포기하고 한국·조선인 아동과 학생들을 특별 취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민족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 ‘배려한다’는 문구만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다(강재언, 김동훈 2000: 253-254).

공무원 임용이나 국공립 초중고 교원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의해 자의적으로 외국인의 임용이 인정되거나 또는 안 되는 것은 외국인의 임용거부가 법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정책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91년의 각서는 재일한인의 공립학교 교원 채용을 인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에 취해진 조치들을 보면 실제로는 교사가 아닌 상근강사에 한해서 채용을 인정하고, 지방 공무원 채용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재일한인의 차별 철폐운동에 정신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일본 사회의 수용이었다. 재일한인 및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한 국제 인권규약 비준요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결국 1979년 8월에 비준이 이루어져, 같은 해 9월 21일에는 국제인권규약이 일본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1982년 1월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1985년 7월에는 여성차별철폐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일본 헌법 및 기타 국내법 나아가서는 한일법적 지위협정으로 철폐되지 않았던 국적과 민족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이들 일련의 국제인권조약과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운동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되었다.

#### 다. 사회보장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전에는 재일한인들이 일본인으로 취급되었으므로 생활보호의 적용에 있어서 일본인과 표면상의 차이가 없었으나, 조약 발효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일본 후생성이

1954년 5월 8일에 발표한 빈곤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관련 내용에 따르면, “생활보호법 제1조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외국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당분간 생활이 곤란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결정·실시의 취급에 준하여 ... 보호를 행한다”고 전제하였다. 정313 이후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조율과 80년대 국제인권조약과 난민조약 가입에 따른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후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며, 재일외국인에게는 생활보호법이 행정조치로써 준용될 뿐 권리로써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이름부터 국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였다. 피보험자의 자격도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일본 국민’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과 일본 사회의 주민으로 정주하는 한국·조선인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재일한인은 질병에 의한 생활 불안에 더하여 노령, 장애 그리고 사망에 의한 생활 불안에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 부조인 ‘생활보호’는 적용되었다. 그리고 소위 ‘사회복지 5법’에 해당되는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아동수당이나 모자(母子)가정에 대한 대부금 등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하였다. 공영주택의 입주에서도 ‘일본 국적’을 응모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공영주택에 대해서만 입주가 인정되었다.

1979년에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관계 법령들을 정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공영 및 공단주택 입주, 주택금융의 대부 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근간이고 특히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재일한인에게 중요한 국민 연금은 사회권 규약의 ‘점진적 실현’ 인정, 한국과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적용 등을 이유로 국적 조항을 철폐하지 않았다(위 글: 238).

그러다가 1982년 1월 1일 난민조약의 국내발효에 따라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이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민’에서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재일한인도 가입자격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60세까지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35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특히 2차대전 전부터 일본의 편익에 따라 도항·이주한 1세들이 제외되었다. 다만 1986년 4월 1일의 개정에 의해 ‘공백 기간’의 도입이 인정되어 60세 미만인 사람은 다소 구제되었지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종래의 차별에 대한 일본 정부 스스로의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난민조약이라는 국제기준의 국내법 수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과거 국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급되던 여러 가지 아동 관련 수당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수당, 복지수당)들이 난민조약의 발효에 따라 국적 조항이 철폐되어 전국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1991년 각서에도 장애자연금, 노령자연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국제인권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을 모든 자의 권리로 규정하여 내외국인 차별을 부정하므로 생활보호법은 재일외국인에게 권리로써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정인섭 1996: 320).

#### 라. 재일한인과 한국 화교

2002년에 한국 화교에게 영주자격이 부여됨으로써 그들의 법적 지위는 재일한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은, 재일한인들이 ① 조선인, ② 일본인, ③ (일반)외국인의 신분을 거쳐서 ④ 영주외국인의 신분을 획득한데 비해서, 한국 화교는 한국 국적을 거친 적이 없이 일반외국인으로서 ① 중국인, ② 대만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③ 영주외국인의 신분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국가가 자국거주 외국인을 모든 면에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일한인과 한국 화교는 각각 일본과 한국사회에서 평생을 살게 될 그 사회의 일원이다. 이들은 각각의 나라 사람들과 생활상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이며, 공통의 사회적 부담 하에 생활한다. 그

런 면에서 재일한인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은 한국 화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 IV. 국내거주 화교의 차별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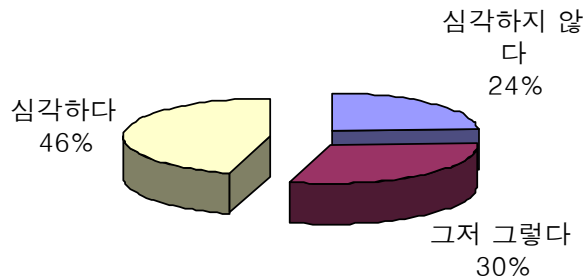
### 1.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차별 현황

#### 가. 교육에 관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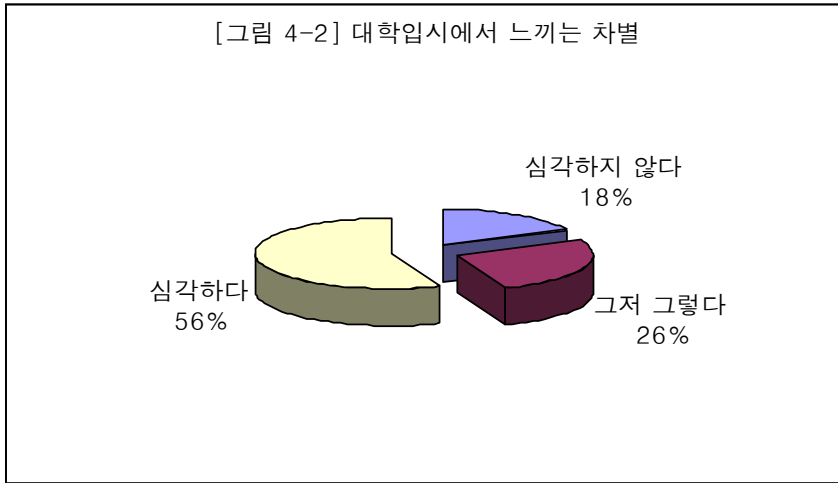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스스로도 높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눈에도 그렇게 비친다. 이런 현상은 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이 교육의 측면에서 이런 저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인들의 수준에 버금가는 교육열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만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소위 '정통'에 해당하는 경로였지만,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런 추세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46%의 화교들은 [그림4-1]에서 보는 것처럼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느끼는 교육에서의 차별은 화교학교가 처한 열악한 환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면접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화교학교는 한국에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립학교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고등 사립학교와는 달리 정부로부터 교원급여 지원을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화교의 수가 줄어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고 상당수가 폐교 위기에 놓여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지방) 화교 교육 문제는 위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화교들이 느끼는 교육에서의 차별은 본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는 교육세가 본인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느끼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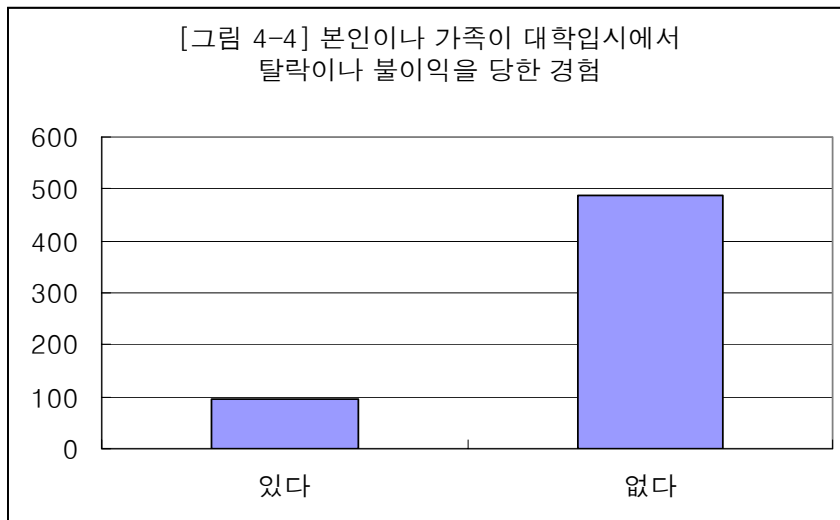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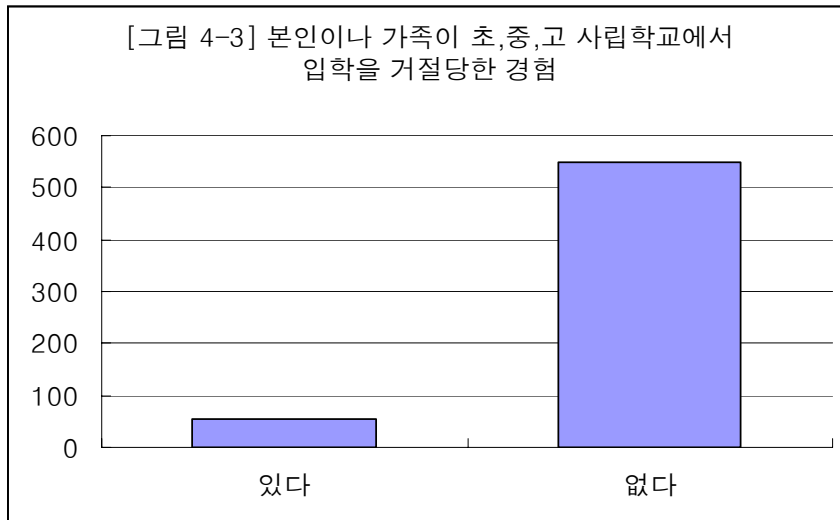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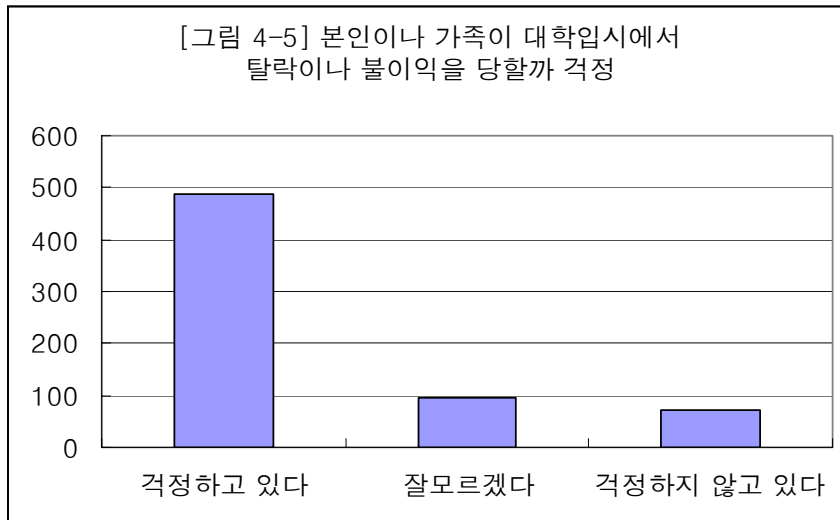
화교들이 대학입시에서 느끼는 차별은 앞의 경우 보다 조금 더 높아서 [그림 4-2]에 나타나는 것처럼 약 5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화교들은 부모가 모두 화교일 경우 대학입시에서 외국인의 특례입학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안 되므로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대만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다. 물론 화교인 아버지와 대만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가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싶어도 자식이 입시를 마치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화교들이 희망하는 사항 중의 하나는 ① 화교와 결혼을 한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② 화교가 귀화를 하고 싶은 경우 자식의 대학 입시 때문에 못하거나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시정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① 부모 중의 한 쪽이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화교임을 증명할 수 있고, ②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외국인 특례입학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입시에 관해서는 심층면접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그림 4-3]을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입학을 화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9.1%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부분의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립학교(대개 초등학교)에서 거절당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림 4-4]는 본인이나 가족이 대학입시에서 화교라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4%로 나왔다. 화교학교의 교육내용은 완전히 대만식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는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가 그런 경험 있다고 응답한 것은 폭이 좁은 특례입학의 문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5]는 3/4에 해당하는 74.9%가 대학입시에서 화교라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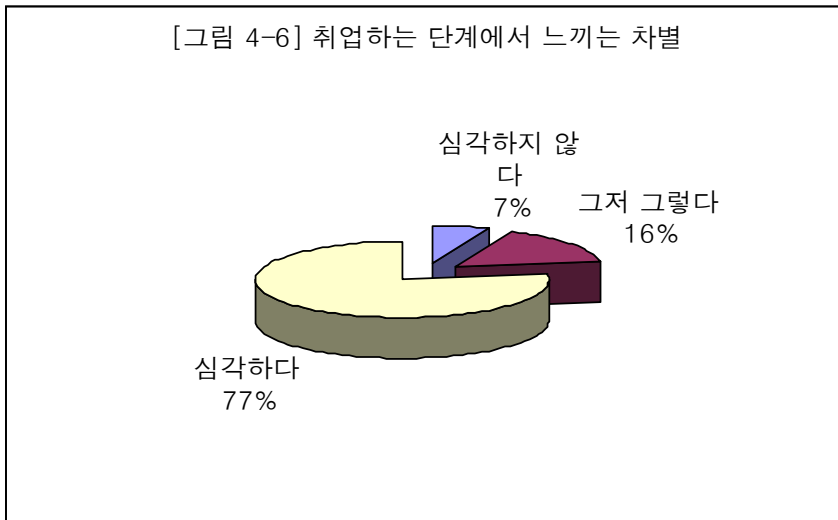




#### 나. 취업과 승진에 관한 차별

물론 교육에서 화교들이 느끼는 차별이 심각하지만 취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문제가 커진다. [그림 4-6]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자의 77%가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화교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특히 한국 사회에 '중국 열풍'이 불기 전에는 훨씬 더 심했던 것으로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래도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교역이나 접촉이 늘어나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는 것이다. 그런 물결이 있기 전에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나섰던 사람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었던 '수모'들은 화교들을 접촉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된다.

[그림 4-6] 취업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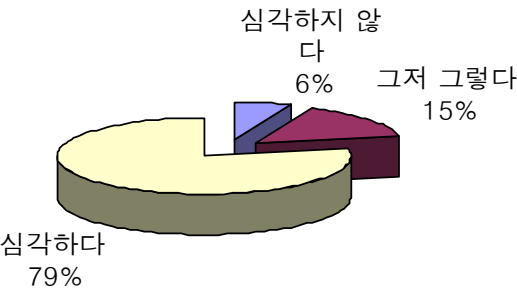


일단 성공적으로 취업이 된다고 해도 승진 문제에 이르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여기에는 79%가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4-7]). 화교들의 지적 중에는 한국 회사들이 화교들을 통역을 위한 역관 정도로 생각하고 채용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즉, 필요해서 채용을 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만 승진을 허락하고 그 이상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주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모든 현실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화교들은 (단편적일지는 몰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인 차별로 인식하는 셈이다. IMF외환위기 때 해고된 화교들의 사례는 이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비록 한국 사람들도 무더기로 해고가 된 때지만 화교들은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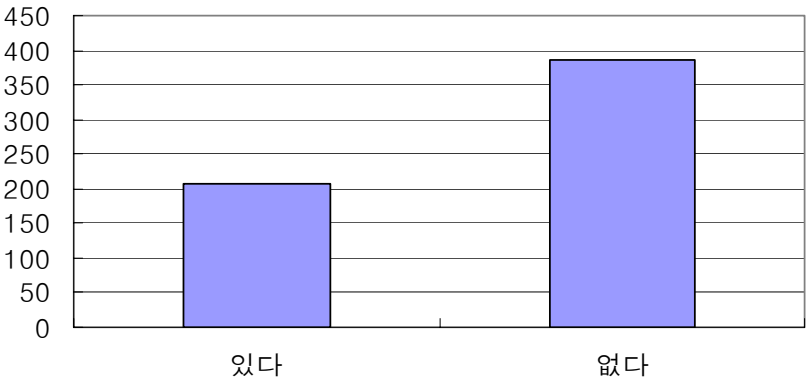
그러나 의외로 본인이나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35.0%([그림4-8])와 29.3%([그림 4-9])로 나타나서 (낮지는 않지만) 앞의 그림에서 본 차별의 느낌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느낌과 현실 사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예상되는 차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요식업, 중국과의 무역업 등)해서 의외로 격차가 덜 나는 경우도 있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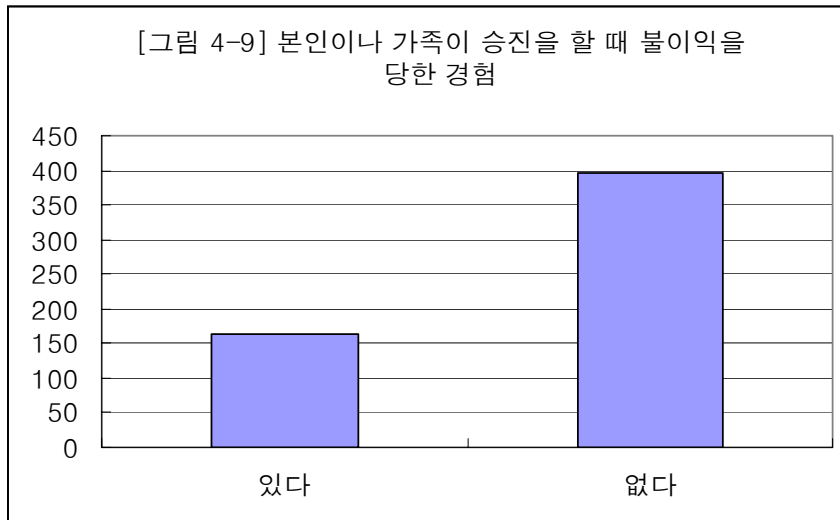
있다. 또한 예상되는 차별 때문에 비교적 차별을 덜 받는 분야 (한의사, 약사 등)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림 4-7] 승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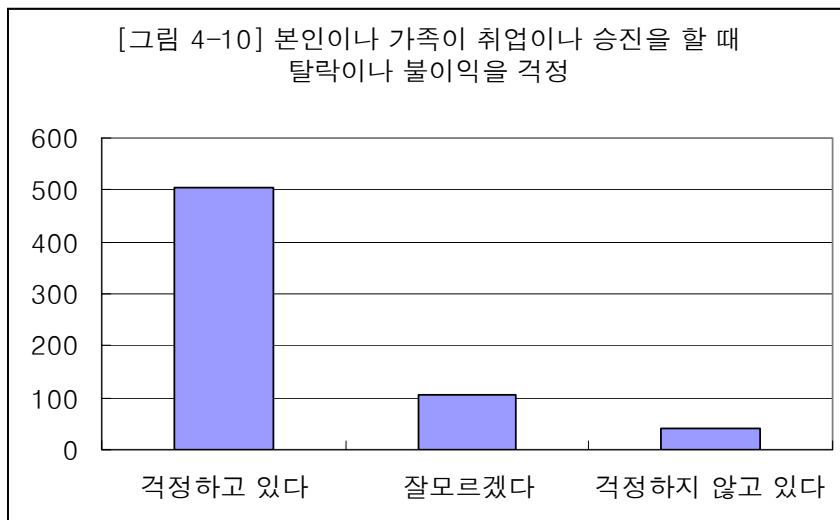


[그림 4-8]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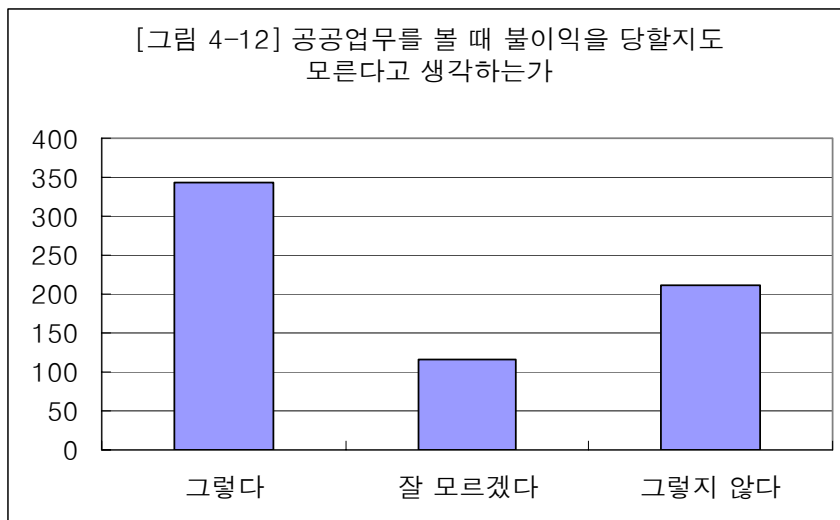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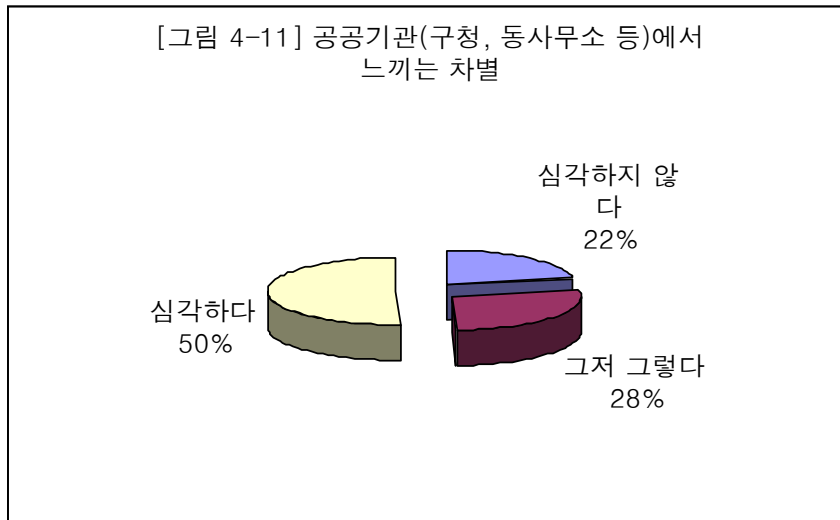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 4-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화교들의 대다수인 77.3%가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이나 승진을 할 때 화교라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주어진 현실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다.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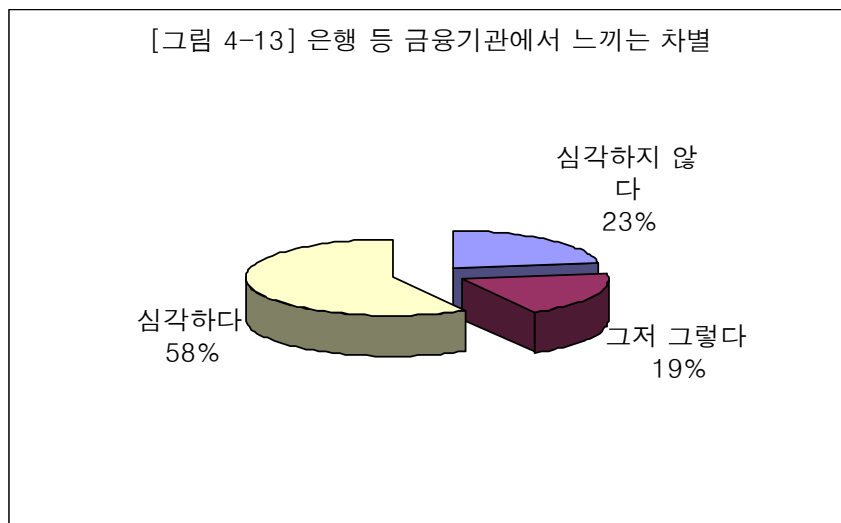
공공기관(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의 차별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가를 묻는 항목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1]에 나와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50%가 심각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수치 자체로는 높은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같은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거주지 구청을 가면 된다. 문제는 구청에서 외국인에게, 다시 말해서, 화교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특별히 더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한국인 민원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별개로 치자. 그렇다면 왜 절반이나 되는 화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화교들과의 개별 면담을 해보면 과거에는 공공기관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지만 지금은 '양반이다'라는, 즉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다 좋다는 진술을 한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화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더욱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화교와 한국인을 막론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이 뇌리에 남아서 화교들이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인 소수자로 사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들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화교들의 경우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은 불친절을 겪어도 '화교이기 때문에 당한다'는 느낌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12]를 보면 절반이 조금 넘는 51.3%의 화교들이 공공업무를 볼 때 화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교들이 실제로 불편과 불이익을 많이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공공기관 쪽이라기보다는 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림 4-13]를 보면 58%의 화교들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심각하게 차별을 느끼고 있다. 심층면접 결과분석에 자세히 언급되지만, 원칙적으로 화교들은 외국인이지만 ‘거주자’이므로 금융기관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화교들과의 거래가 없는 지점의 일선 창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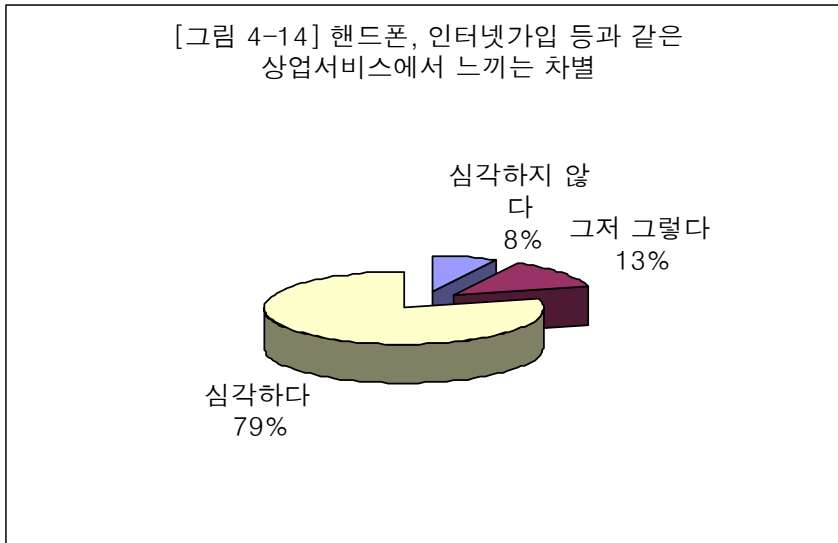
이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인 고객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화교들과 거래를 하는 지점들은 물론 관련 업무를 익숙하게 처리하고 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가입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림 4-14]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79%가 심각하게 차별을 느끼고 있어서 문제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주 가는 사람이야 다르겠지만 은행은 방문하는 횟수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은 요즘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와 놀이가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자기 집이나 PC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가 원하는 사이트에 아무 때나 가입을 하는 한국인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은 즉석 가입이 불가능함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외국인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고 어찌고 하다보면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거리를 걸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며 광고를 하는 곳에서 즉석으로 핸드폰을 구입하는 친구와는 달리, 집에 가서 서류를 챙기고 본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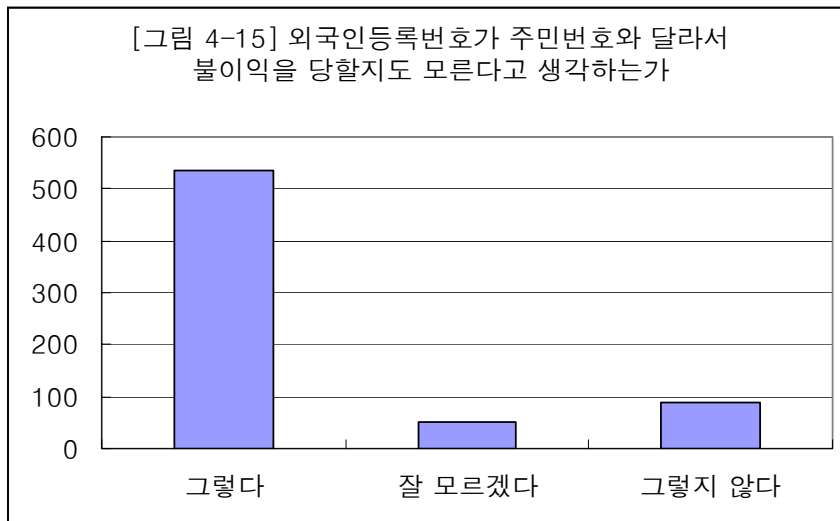
구입을 해야 한다면 스스로가 다른 존재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원인들 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것은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와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한국인의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번호가 남자의 경우에는 1이나 3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2나 4로 시작한다. 그러나 외국인등록번호에서는 남자가 5, 여자가 6으로 시작하므로 누가 봐도 ‘특이’하게 보인다. 더구나 외모나 억양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는 꿈에도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번호를 기입한다면 얼핏 봐서는 잘못 쓴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길에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다가 그런 번호를 써넣으면 접수를 받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들은 대개 본사 직원이 아니므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는 회사나 인터넷 프로그램에 따라 인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화교들의 대다수(79.3%)는 주민번호를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등록증의 뒤 번호가 한국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림 4-15]).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층면접 분석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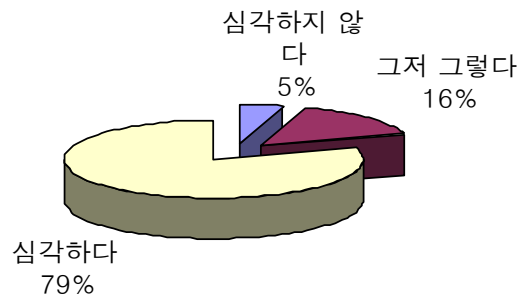
라. 주민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차별

아래의 [그림 4-16]부터 [그림 4-19]까지는 각각 참정권, 복지혜택, 연금, 세금에서 화교들이 느끼는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50%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세금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모두 70%가 넘는 응답자가 심각하게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귀화를 하지 않은 화교들은 국적상 외국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재일한인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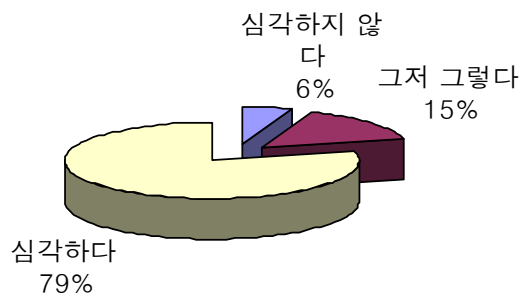
화교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국민’의 개념이 아니라 ‘주민’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참정권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화교들은 없다. 다만 지역자치단체와 관련된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

이 열리기 바란다는 화교들이 있다. 복지혜택과 연금에 관해서는 심층면접의 분석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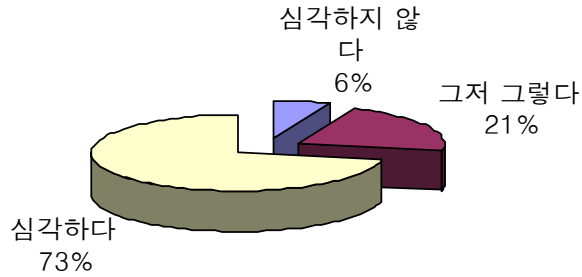
[그림 4-16] 참정권에서 느끼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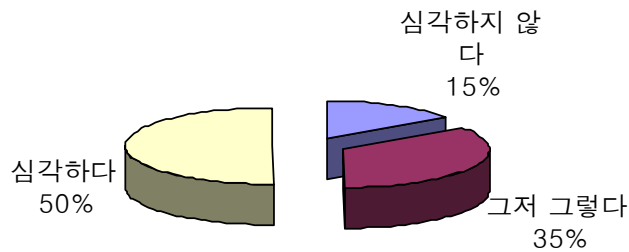
[그림 4-17] 복지혜택에서 느끼는 차별



[그림 4-18] 연금에서 느끼는 차별



[그림 4-19] 세금에서 느끼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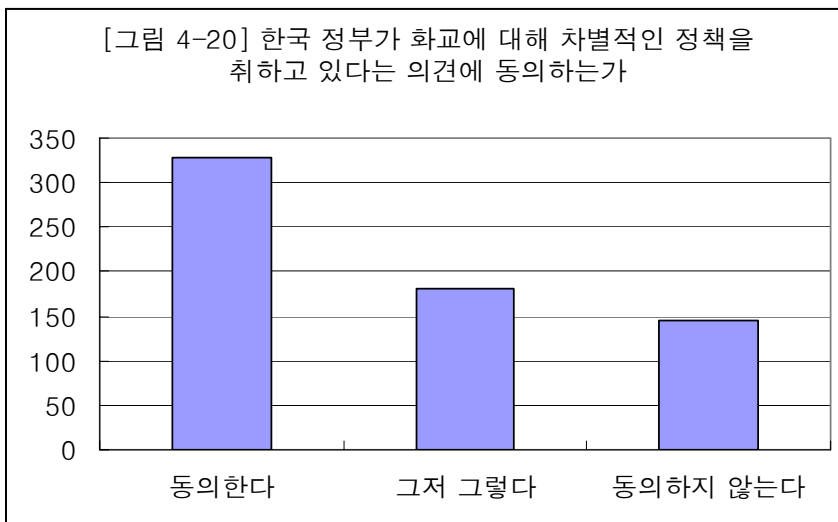


#### 마. 정부정책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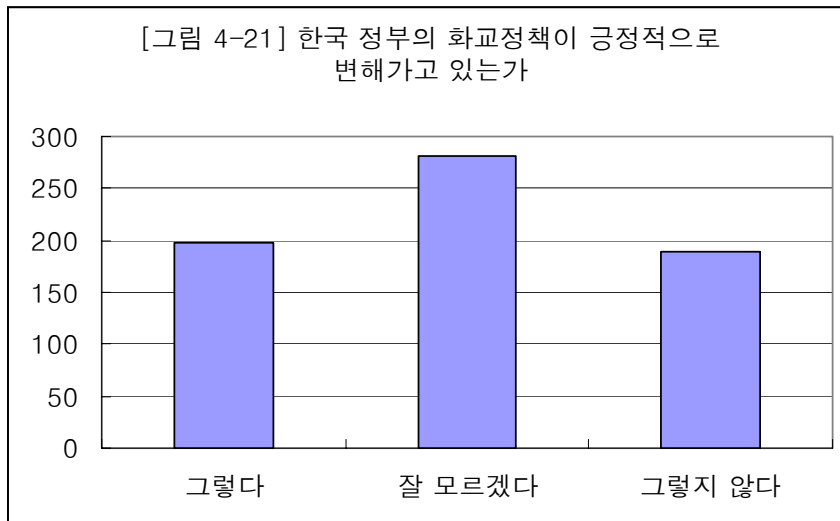
[그림 4-20]을 보면 응답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328명(50.1%)은 한국 정부가 화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화교들이 각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심각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그런 관점을 고려해보면 역으로 절반의 응답자

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의외로 보인다.

다소 아전인수 격인 해석일 수 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추정을 해본다면, 이런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화교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동산 소유제한의 폐지, 영주권 부여, 귀화절차 간소화 등은 화교 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불충분하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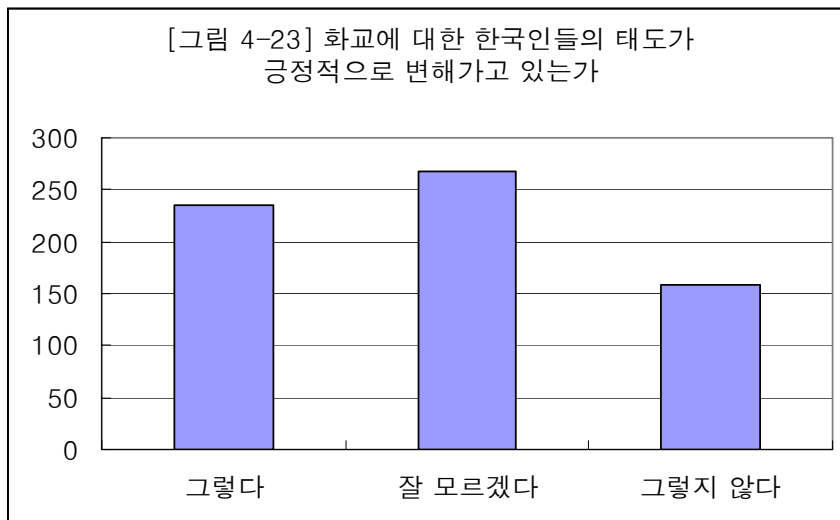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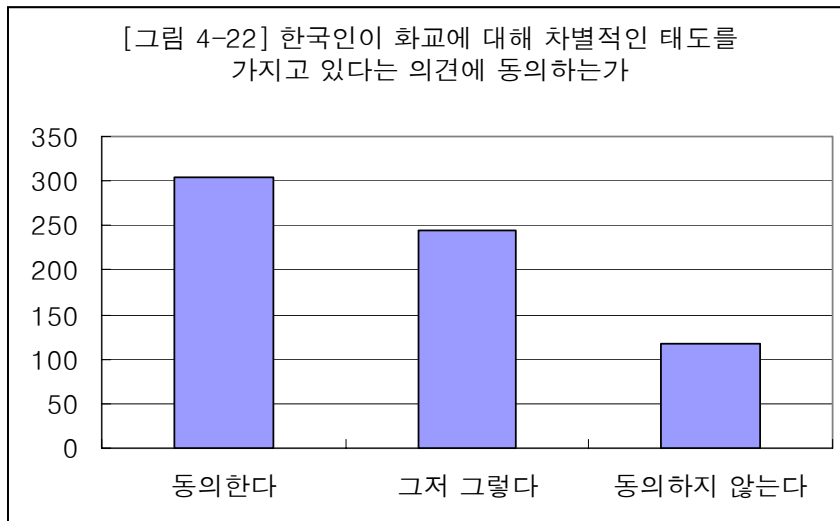
이런 점은 [그림 4-21]에서 보듯이 화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90명으로 28.4%에 그친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비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97명(30%)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많은 점, 그리고 정부에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 바. 한국인의 태도

한국인들이 화교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4-22]를 보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05명(45.8%)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대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117명(17.6%)로 나왔다. 절반 정도의 화교들은 한국 사람들이 화교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면접 도중에 화교들은 자주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말 좋아졌다”고 말한다. 좋아진 정도가 이것이라면 이 수치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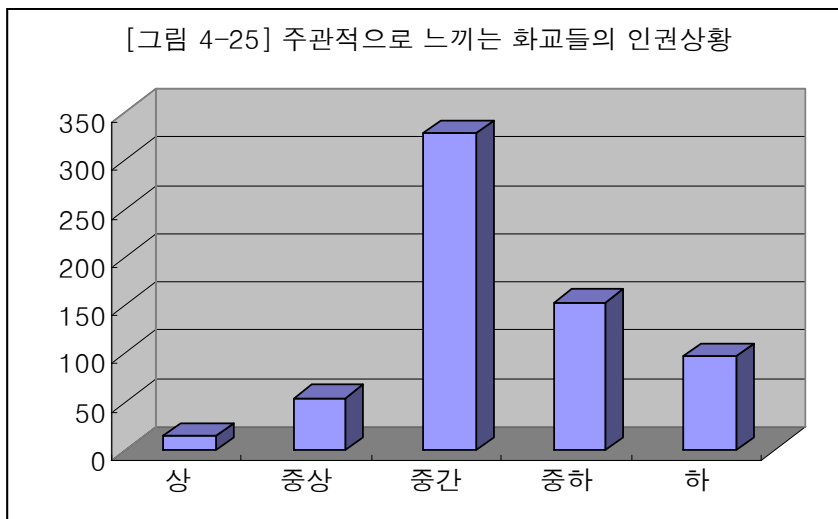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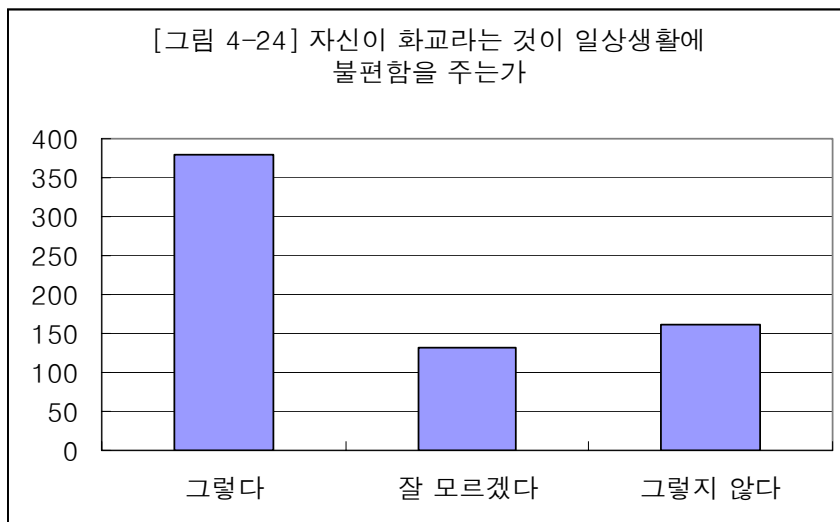
이것과 비슷하게, 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35명(35.5%)으로, 앞에서 본 한국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많았다([그림 4-23]).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59명(24%)나 있어서 한국인들의 태도가 좋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 주관적으로 느끼는 화교들의 인권수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79명(56.3%)의 화교들은 자신들이 화교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4-24]). 앞에서 살펴본 화교

들이 경험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다. 한편 [그림 4-25]는 화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스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여 준다. 이 그림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328명(50.7%)이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중간'으로 평가를 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인권의 수준이 낮은 쪽으로 응답이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 아. 귀화와 관련된 의식

한국 화교들은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로 강제 귀화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화교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적어도 아직까지는 화교의 압도적인 다수가 귀화를 하지 않은 채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에는 조사대상자들의 귀화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98%가 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 화교들 중에서 귀화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위의 수치는 화교 사회의 각종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 추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귀화 여부

|           | 인원(명) | 퍼센트   |
|-----------|-------|-------|
| 귀화 하지 않았다 | 636   | 98.0  |
| 귀화했다      | 13    | 2.0   |
| 합계        | 649   | 100.0 |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4-2>는 화교들이 귀화를 하지 않는데 각 이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① 한국이 싫어서, ② 어차피 한국을 떠날 것이어서, ③ 대만국적 유지가 사업상 불가피해서, ④ 한국 국적으로 살면 불편해서 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교들은 한국이 좋지만(①번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 살 예정이지만(②번의 경우) 귀화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대만국적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도 아니고(③번의 경우), 한국국적을 기지면 불편해지는 것도 아니다(④번의 경우). 게다가 귀화를 한다

고 해서 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⑨번의 경우).

<표 4-2> 귀화를 하지 않는데 아래의 이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

|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들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중요<br>한<br>편이<br>다 | 매우<br>중요<br>하다 |
|------------------------------------------|----------------------|----------------------|-----------|--------------------------|----------------|
| ① 한국이 싫다                                 | 24.5                 | 24.3                 | 41.1      | 5.5                      | 4.6            |
| ② 어차피 한국을 떠날테니 불필요하다                     | 32.8                 | 29.1                 | 29.0      | 5.3                      | 3.8            |
| ③ 대만국적 유지가 사업상 불가피하다                     | 32.1                 | 24.5                 | 33.5      | 6.9                      | 3.1            |
| ④ 한국 국적으로 살면 불편하다                        | 30.3                 | 27.9                 | 29.0      | 7.4                      | 5.3            |
| ⑤ 중국사람이므로 반드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한다           | 7.2                  | 9.1                  | 21.6      | 24.2                     | 37.8           |
| ⑥ 귀화를 안 하는 것이 (본인 또는 자녀가) 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 | 19.5                 | 20.8                 | 29.9      | 18.8                     | 11.1           |
| ⑦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다            | 15.5                 | 17.8                 | 25.7      | 22.5                     | 18.5           |
| ⑧ 귀화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 15.0                 | 18.9                 | 28.1      | 18.2                     | 19.8           |
| ⑨ 화교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                     | 39.2                 | 26.0                 | 22.5      | 7.4                      | 5.0            |

반면에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⑤ 자신들이 중국 사람이므로 중국(대만) 국적을 지켜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⑦ 귀화를 하면 화교 정체성이나 문화를 잃을 것 같아서, ⑧ 귀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리고 ⑥ 귀화를 안 하는 것이 한국의 대학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라는 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⑥번과 ⑧번의 경우는 다소 현실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⑤번과 ⑦번은 ‘문화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⑤번과 ⑦번은 민족·국적과 관련해서 화교들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스스로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성적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요즘은 재일한인의 귀화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그 동안 그들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귀화를 하지 않고 버텨왔던 것도 그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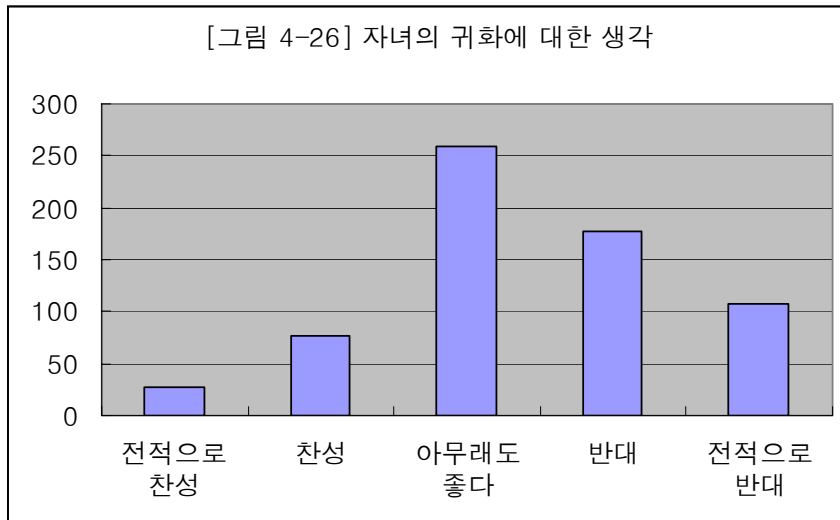
렇게 하고 싶어’였다. 조금이라도 계산을 해보면 귀화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하지 않았다.

화교들이 앞으로 평생을 한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여기에서 살아갈 것으로 믿으면서도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저 그들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을 해도 ‘여기서 살려면 귀화를 하세요’라는 말은 사실은 화교들에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라는 강제일 수밖에 없다.

⑥번(대학진학)과 ⑧번(귀화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심층면접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한편, 자신의 귀화와는 달리 “자녀들이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28명(4.3%), 찬성하는 사람이 76명(11.7%)이었고,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107명(16.5%), 반대하는 사람이 177명(27.4%)로 나와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응답 결과를 읽을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즉, 이 질문의 응답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좋다’(총 259명, 40.0%)라고 말한 사람은 사실은 자녀의 귀화를 (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겠지만) 용인하는 사람으로 보아야한다. 이렇게 볼 때, 자녀의 귀화에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앞의 세 경우를 모두 묶은 56.0%가 되는 셈이다. 그들은 비록 자신은 귀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세대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문화로의 적응 속도와 폭이 부모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넓은 지금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귀화하는 화교의 수가 늘어갈 가능성도 있다.



## 2.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통해본 차별 현황

### 가. 최근의 긍정적인 변화들

한국사회의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 화교집단의 인권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이것은 심층면접 대상자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화교 인권문제의 개선은 1990년대 말의 IMF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한 국내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화교를 포함하는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가 김대중 정부의 업적으로 들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 가운데 첫 번째는, 1998년 6월부로 시행된 새로운 「외국인토지법」이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이 50평 이상의 상점이나 200평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려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실상 금지시켰다. 그러나 1998년 6월부로 시행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와 관련된 그와 같은 제한을 없앴으로써 화교들의 재산 보유와 증식을 가로막던 큰 걸림돌을 치우게 되었다. 물론 이 법의

제정이 화교를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며 또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진 다음이어서 화교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재산보유에 대한 제약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한국화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는 외국인 체류규정의 개선과 영주권 제도의 도입이다. 1998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F-2 비자의 갱신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또 ‘재한화교에 대한 특례조치’가 만들어져 화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한국에 직계가족이 남아 있는 사람 등은 예외로 거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4월에 다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F-2 비자를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만 5년 이상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과 해당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F-5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대만 국적의 한국 화교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신청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적법의 개정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화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에 바탕을 둔 부계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인인 외국인 자녀에게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그러나 1997년에 개정된 새 국적법에서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 원칙에 부합되게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제성호 2001),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한국인이기만 하면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화교의 한국 국적 취득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손꼽혔던 까다로운 귀화 조건의 완화 조치를 들 수 있다. 원래 외국인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이나 교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화교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었다. 최근 개정된 법은 추천서 기준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낮추는 등, 귀

화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전향적인 법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화교의 기본 권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나 부분적 개선을 바라는 문제점들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영주권 획득이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불편을 없앤 것 외에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거주자인 자신들에게 별다른 현실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sup>15)</sup>

## 나. 분야별 차별의 현황

### 1) 사회복지 혜택

화교들 사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빈곤가정, 장애인, 노인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화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이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노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표 4-3> 참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한 빈곤가구에 대해서도 모자라는 생계비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1999년 10월 현재 54만 명에 불과했던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2002년 10월 현재 139만 명으로 늘어났고 급여 혜택도 60 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

15)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대구화교 협회에 따르면 그 지역 화교 가운데 영주권 취득한 사람은 65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들 가운데는 살만큼 살았고 영주권 받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표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 기준과 내용

| 제도 개요                          | 선정기준                                       | 지원종류                     | 지원내역                       |
|--------------------------------|--------------------------------------------|--------------------------|----------------------------|
| <b>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b>           | 최저생계비                                      |                          |                            |
|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4인가족기준 102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 생계·주거·교육·자활·재산·장제급여      | 현금 :4인 897천원<br>기타 현물지원    |
| - 의료급여 대상자                     | " 등                                        | 의료급여                     | 의료비(1,2종구분)                |
| <b>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추가지원</b> | 최저생계비                                      |                          |                            |
| - 저소득노인 수급자                    | 4인 102만원                                   | 경로연금                     | 1인 45~50천원                 |
| - 장애인 수급자                      | "                                          |                          | 아래 각 금액                    |
| ·1~2급·3급중복 장애인                 | "                                          | 장애수당                     | 1인 50천원                    |
| ·1급 장애아동 보호자                   | "                                          | 장애아동부양수당                 | 1인 45천원                    |
| ·2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
| - 저소득 유자녀가정                    | "                                          |                          | 아래 각 금액                    |
| ·저소득 보육료지원 (수급자)               | " (취학여부 따라 차등지원)                           | 보육료                      | 1인 125~243천원 또는 62.5천원     |
| ·만5세아 무상보육                     | "                                          | 보육료                      | 1인 125천원                   |
| ·장애아 무상보육                      | "                                          | 보육료                      | 1인 201~243천원               |
| - 소년소녀가정 수급자                   | "                                          | 지원금                      | 1인 65천원                    |
| <b>3. 요보호 차상위계층 지원</b>         | 최저생계비의 100%~최대210%                         |                          |                            |
| - 저소득노인                        | 4인 194만원                                   | 경로연금                     | 1인 26~35천원                 |
| - 1~3급장애 중·고등학생                | 4인 133만원                                   | 장애인 학비지원                 | 입학금, 수업료                   |
| - 저소득 모부자가정                    | 4인 130만원                                   | 아동양육비(6세미만), 자녀 학비(중고생), | 양육비1인 568원/일<br>학비-입학금·수업료 |
| - 저소득 유자녀가정                    |                                            |                          | 아래 각 금액                    |
| ·저소득 보육료 지원                    | 4인 125만원(취학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 보육료                      | 1인 50~97천원 또는 25천원         |
| ·만5세아 무상보육                     | 4인 215만원                                   | 보육료                      | 1인 90~105천원                |
| ·장애아 무상보육                      | 만7세이하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보육료                      | 1인 01~243천원                |

※기타 용자제도 : 생업자금 용자,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등

한국정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지체, 시각, 청각/언어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 되면 자동차, 고용,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지 혜택의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교는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형편은 F-2비자(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F-5비자(영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다.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교들을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 체류자를 포함하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 때문에 화교 극빈자나 장애인 등은 기초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처지에 있다. 부인 없이 2남 1녀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후반의 한 화교 장애인은 한국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애인 수칙 제 1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나온다. 한국에서 장애인 혜택은 국민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교 장애인은 장애인 혜택을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 . . . 구청에 가서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귀화하라고 한

다. 귀화도 조건이 쉬운 게 아니다. 국가 공무원 2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 외국인으로서 장애인 수첩이 없으니까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정말로 몰리다 보면 폭탄이라도 터뜨릴 수 있는 것이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 . . 정부가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런 장애인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반짝쇼박에 안된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은 잘 한다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 . . 고난의 시절, 암흑시대를 같이 겪어온 사람들이니까 화교들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장애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 . . 문제는 이런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다. 관청에 가서 얘기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에 올라가야 하고, 하는 식으로 말한다.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가 되어서 해결될지 모른다. 그동안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 . .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관청에 가서 얘기해도 장애인 인정을 안해주니 가슴이 답답해서 명상을 한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한탄할 뿐이다. 불행한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살까를 생각한다.

이 사람은 한국정부가 의무에 관해서는 화교를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권리에 대해서만 화교를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내국인과 차별을 한다는 주장한다. 화교가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함께 살아온 한국사회의 일원이면서 내국인과 다름없이 세금이나 공과금 등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화교에게도 기본 복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화교는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구분하여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화교만큼 심각한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지방의 Y씨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화교 장애인 인정 문제를 거론하였다. 현재 그의 어머니는 신장병 때문에 투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만 5천원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장애인 보조 대상자가 되면 치료비 감액을 받을 수 있지만 화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는 화교도 주민

세, 교육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으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 한 화교협회에서 일하는 직원 L씨 역시 화교 극빈자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한국정부의 화교 차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화교 극빈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화교협회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였다. 구청장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줄 잘 알지만 어떨 때는 요청에 못 이겨 화교협회 명의의 증명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 역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화교를 내국인과 같이 취급하고 권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으로 취급해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는 말로써 한국정부의 화교 차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장애인과 극빈자에 대한 혜택 부여 문제는 화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화교가 아직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정부로부터 장애인이나 극빈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갖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 온 지역주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 2)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들

화교들이 가장 심각하고 비윤리적인 문제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한국인 어머니를 둔 화교학생에게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부의 규정이다. 이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 화교 부모가 서류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것이 때로는 실제적인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대학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외국인 신분을 이용한 한국계 학생의 편법 입학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영뚱하게 화교 학생의 크나큰 불이익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한국정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재국 혹은 한국에서 교육받는 내용이 한국 학교의 교과내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학교를 나온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특별전형을 통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요건은,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혹은 외국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이면 된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정원 외 모집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모집이 가능하다.

화교 학생들은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이므로 오로지 첫 번째 요건(부모 모두가 외국인)을 충족시켜야만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화교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들 중에 생활상의 여러 가지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경우 교육을 화교학교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인 어머니가 사망 혹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순수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아 대학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표 44> 참조).

이런 사정 때문에 부부가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해 편법으로 가짜 이혼을 하거나 부모 혹은 어머니를 사망한 것으로 등록하거나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다만 국적을 취득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히 행해지는 것은 가짜 이혼이다. 화교학교 교무주임으로 있었던 T씨에 의하면 어떤 해에는 자신이 찍은 가짜 이혼 도장만 80개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잠시 가짜로 이혼했다가 자녀의 대학입학 후에 다시 재혼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대 중반의 G씨는 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대학에 입학하려 한 한

화교학생의 예를 들고 있다. 이 학생은 결국 대학 입학에 실패했는데 그것은 학교측에서 어머니의 사망 이전 국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또, 어머니가 대만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녀의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화교가정도 적지 않다. 원래 화교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가 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질 때 생기는 갖가지 불편과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자녀의 대학입학 때문에 생활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결과를 안게 된다.<sup>16)</sup>

<표 4-4> 대학입학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공통자격기준

| 구분              | 자격요건                                  | 공통학력요건                          |
|-----------------|---------------------------------------|---------------------------------|
| 교육과정 졸업<br>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br>외국인 학생                 | 국내 또는 외국에서<br>고등학교 과정을<br>졸업한 자 |
| 교육과정 이수<br>외국인  | 외국에서 2년 이상의<br>고등학교 과정을<br>이수한 외국인    | 국내 또는 외국에서<br>고등학교 과정을<br>졸업한 자 |
| 전교육과정 이수<br>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br>모든 교육과정을<br>이수한 외국인 학생 | 12년 이상의<br>전교육과정을<br>외국에서 이수한 자 |

외국인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려면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녀는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학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규정은 귀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화교가정의 자녀는 대부분 화교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모의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계

16)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 대학들에 알려지면서 외국인 학생의 자격에 대한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화교 학생의 어머니가 대만 국적을 취득한 기간이 짧은 경우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서류심사 기간을 길게 잡고 실제 이혼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생겼다.

속 다니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들이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한국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하여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례입학 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교과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는 한국인들의 편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그것은 화교 가운데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어머니의 국적에 관계없이 화교 아버지를 가진 자녀는 모두 법적·사회적으로 화교, 즉 외국인이다. 화교이기 때문에 화교학교에 진학하여 한국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학생들과 대등한 경쟁을 거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릇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이면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3) 화교학교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

현재 화교교육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낙후된 교육시설에서 자격미달의 교사들이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대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화교학교의 현실에 대해 거의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화교인구의 감소에 따라 화교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화교학교 가운데 폐쇄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1974년에 초등학교 50개소, 중고등학교 5개소에 달했던 화교학교는 1994년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쳐 34개교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韓華教師聯誼會 자료), 1999년에는 다시 26개교로 줄어들었다(외국인학교법제편제위원회 자료). 학생수의 감소로 한 학년에 한 반을 유지하기 힘든 곳도 많아져서 교사 한 사람이 두 학년 이상을 맡아 교육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화교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들 역시 화교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의 한 화교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숫자가 182명이지만 5, 6학년의 경우 각각 17, 2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저학년은 편법으로 한국인 학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숫자가 꽤 많은 편이다(1학년의 경우 49명). 그곳의 화교중고등학교 학생 숫자는 모두 160명 정도로 한 반 학생이 30명에도 못 미친다. 다른 대도시의 화교초등학교는 총학생수가 불과 47명으로 한 학년 재학인원이 평균 8명이다. 놀랍게도 이번에 졸업하는 6학년은 졸업생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곳의 중고등학교 역시 학생 숫자가 80명에도 못 미쳐서 한 학년 당 평균 13명을 조금 넘는 정도일 뿐이다.

화교학교는 그 재정을 학생 등록금과 기부금 외에 대만정부의 지원과 화교독지가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대만정부의 재정 지원은 한정된 금액에 불과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대만과의 전통적인 관계와 사상적 이유 때문에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화교 독지가의 기부금은 화교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최근 한국인 학생을 받는 화교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 이 학교들의 재정적인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한중 경제교류의 급증은 중국어 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화교유치원이나 화교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대다수 화교초등학교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한국 아동들의 등록금과 기부금 덕택에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초등학교에도 한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학교 재정의 내실화를 꾀한다.<sup>17)</sup> 그러나 화교학교의

---

17) 외국인학교로 인가를 받은 화교학교가 내국인 학생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학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은 중국어 사용 외국인, 외국시민, 영주권 소지자, 한국계 혼혈아, 5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에 국한된다. 한 화교초등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고 한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였다가 그 사실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뒤 교육청의 호된 질책과 경고를 받았다.

재정 형편은 낡은 학교건물과 노후화된 설비가 말해주듯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화교학교의 재정 문제는 교육여건의 악화와 교사의 낮은 보수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화교학교의 교사는 한국이나 대만의 교사에 비해 월등히 낮은 보수를 받을 뿐 아니라 화교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나 보험 및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교사 처우 때문에 화교학교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한다(석미령 1995: 46-7). 그나마 학생수 감소 때문에 교사의 숫자를 감축하는 경우도 많다. 한 대도시 화교초등학교의 교장은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교사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 학교의 경우, 교사는 교장과 교무주임 각각 1명과 학년 담임교사 6명이 전부이다. 이 가운데 대학 출신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다. 교사의 봉급 수준은 매우 낮아서 월 120만원이 기본이고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과외를 함으로써 수입을 보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화교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은 몇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 우선 그것은 대만과 한국 양쪽 모두 화교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교민학생들에게 일정한 입학생 숫자를 할당해주는 대만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들의 대만내 대학 진학은 수월한 편이다(우심화 1999).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역시 외국인 특례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입시의 압박감이 적은 만큼 화교학교에서는 한국 학교들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적인 욕구 분출에 따른 사고가 별로 없다(안선

덕 1990: 103).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 또한 학습의욕을 저하시킨다. 법적, 사회적 제약 때문에 한국 화교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이유 때문에 학업을 미리 포기하는 화교학생이 많다(왕춘식 2002: 204).

화교학교가 현재처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많은 화교는 자신들이 한국 국민과 다름없이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화교학교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화교를 납세자이자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화교학교와 관련하여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원래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단체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를 받을 수 없었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학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화교학교는 교육관계법상의 지위가 아니라 오로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개정된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은 화교학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거리를 던져준다. 1999년 3월 8일부 교육부령 제741호로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화교학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각종 학교로 인가 받은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의 지위를 갖게 되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지만(박상순 2001: 62-3), 양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한국 학생 모집을 통해 재정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과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력 인정 수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직 학력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점이다.<sup>18)</sup>

---

18) 학력 인정을 못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교학교 졸업자가 여전히 아무 문제없이 한국 대

외국인 학교가 한국법이 정하는 교원, 교사, 체육관, 수익용 재산, 교과목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학력인정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학교는 학력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지리,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과정을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교육하는 학교에 대해 그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 4) 인터넷상의 외국인등록번호 인식의 문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는 아니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인터넷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데 따르는 불편이다.<sup>19)</sup> 과거부터 화교를 비롯한 주한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회원 가입, 동호회 구성, 상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요한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sup>20)</sup>

화교학교의 교사로 있는 T씨에 따르면 초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뒤쪽 숫자를 조작하여 실명확인을 하는 편법이 동원된 적도 있었다. 불편에 대한 외국인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뒤에는 웹마스터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신원을 확

---

학에 진학하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 대구화교협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화교들의 민원업무 처리를 도와온 L씨에 따르면, 화교의 외국인등록번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왔다. 초기에는 뒷자리 숫자 앞에 China를 뜻하는 기호 C가 첨부되었는데, 나중에는 C 앞에 지방을 나타내는 알파벳 기호가 더해졌다(예를 들어 대구는 TC). 이후에 다시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되는 번호가 부여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남자 5, 여자 6으로 구분하는 번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 대구화교협회 L씨가 기억하는 바로는 옛날에는 경찰서에서조차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화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번은 화교에게서 전화가 왔다. 버스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있어서 버스 통째로 경찰서에 갔는데 한국인은 모두 풀어주고 자기만 남겨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조회를 해도 신원을 알 수가 없어서 안 풀어준다는 것이다”(사례 ?)

인하는 방법이 채택되기도 했다. 최근 화교협회 등 주한 외국인 단체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호회나 전자상거래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법무부는 외국인인식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외국인 인식시스템이란 정상적으로 입국한 주한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트에 접속하는 주한 외국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국인 실명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화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화교 Y씨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국인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다운로드 주소: [http://www.mic.go.kr/jsp/foregin/fore\\_t.jsp](http://www.mic.go.kr/jsp/foregin/fore_t.jsp)) 아직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이트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는 KBS와 MBC 등의 공적 기관과 LG 홈쇼핑처럼 큰 업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팩스로 자료를 보내고 확인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Y씨는, 기업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대상자 대다수는 이것이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나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나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 탓이라고 본다. 정부의 해당부처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방치해 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공적 기관과 민간업체의 외국인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 설치를 좀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한 외국인이 인터넷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은 해도 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외국인보다는 준내국인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매기는 화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더더욱 당연한 권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화교는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그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 5)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화교의 경우도 5인 이상의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화교 중 1949년 4월 이전 출생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이후 출생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월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환일시금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물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1949년 4월 이후 출생자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에 달했을 때 혹은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sup>21)</sup> 대만과는 특별한 상호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대만 내 한국인이 대만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화교는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내용을 잘

---

21) 현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가나, 말레이시아, 미국, 버뮤다, 스리랑카, 스위스(97. 1. 1이후 상실자에 한함), 캐나다(99. 5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카자흐스탄(98. 1월 이후 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엘살바도르(98. 4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며 기타 지역은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외국인’인 자기들이 나중에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거나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화교는 해외로 이주하게 되거나 기타의 이유가 발생할 때 불입한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국민연금이 자신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화교경제인협회의 L씨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제가 연금을 안 냈어요.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연금을 계속 냈는데 내가 한국을 떠난다면 연금이 우리에게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 . .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만하고 국가 대 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도 대만에 가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이라 이거죠. . . .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 . . 아무리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이 돈은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 비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보장 안 되는 돈을 내겠습니까? . . .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랑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내면 돌려주든가, 만약 우리가 떠나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L씨는, 한국에서 정당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화교들에게 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내세워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3개월간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였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압류예고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그의 직장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집행을 하게 되며 사용주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L씨는 정부기관이 돈을 내는 사람을 충분히 납득시키지도 않은 채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표출하였다.

화교가 국적상 외국인이라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

나거나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는 살기 힘든 준내국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제도의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조항을 차별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화교들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간의 상호주의 역시 대만의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의 화교와는 달리 주재국에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본다.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는 한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 6) 은행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인터뷰 대상자 중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상생활에서 겪는 중대한 불편사항의 하나로 간주했다. 시중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화교와 같은 거주자는 은행 거래에서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A은행의 업무편람에는 “외국인이 거주자이면 제한 없이 거래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이면 외국환관리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여신거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교는 거주자이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내 외국인 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환 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규의 제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주자일 경우에는 원화거래는 자유이지만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마다 이런 규정이 존재해도 일선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규정에 익숙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와의 거래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화교들과의 거래가 많은 지점에서는 일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점들은 화교와의 거래를 외국에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처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화교는 장기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인터뷰 대상자들의 반응이었다. 신용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것 역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그들 주위에 신용대출을 받은 화교가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화교단체에서 일하는 L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친구가 몇 년간 거래해 온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화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은행에 L씨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정을 설명하자 그쪽에서 대출을 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정상 한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 창구의 담당자의 판단이나 무지에 의해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카드 발급은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급은 가능하다. <표 45>는 카드사별 요구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대다수는 카드회사들이 내국인에 비해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고,<sup>22)</sup> 그 때문에 카드 발급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만방송사의 한국 현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H씨는 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카드와 연결된 가족카드 발급은 용이하지만 독립된 카드를 발급 받는 데는 요구하는 서류가 아주 많고 수속이 까다로웠다고 한다. 남편의 보증, 신분증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류

22) 핸드폰 서비스 가입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별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1년 이상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화교인 경우 보증보험제 적용에 따른 채권보전료 만 3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KTF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국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겠다는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하다. LF 텔레콤은 외국인등록증만을 요구하며 단말기 분할 구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핸드폰 가입이 불가능하여 한국인 친구의 명의를 빌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진 편이다.

를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카드 신청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예는, 신용카드 발급 역시 은행 거래와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준수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5> 카드사별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회사명            | 필요서류                                                                                                                      | 비고                                                           |
|----------------|---------------------------------------------------------------------------------------------------------------------------|--------------------------------------------------------------|
| BC카드<br>(우리은행) |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혹은<br>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급여이체<br>통장 사본<br>-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br>영수증 혹은 국민연금, 건강보험<br>납입 영수증, 세무서에서 발급하<br>는 소득금액증명서 | 신용카드 결제 능력 유무<br>에 따른 심사를 거친 후<br>발급                         |
| LG 카드          | -외국인등록증, 현재 거래중인 은<br>행통장, 재직증명서<br>-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
| 삼성카드           | -외국인등록증, 고용보험증명서류<br>-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재산세 영<br>수증 혹은 지역 의료보험증 사본                                                              |                                                              |
| 국민카드           |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br>고증, 내국인 신용보증                                                                                          | 내국인으로 연소득3000만<br>원 이상인 자 혹은 국민<br>은행·국민카드 직원, 공<br>무원 등의 보증 |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서 화교들은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지사나 창구에서 업무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본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등의 부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화교들은 자신이 한국사회의 이방인임을 실감하게 된다.

## 7) 취업과 승진

화교의 직업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다양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직업 선택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도 승진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화교는 자영업 등의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자에 한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장교, 외무공무원 등이 될 수는 없다. 외국인이 일반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나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sup>23)</sup> 또 공익성이 강한 대부분의 공공단체 임직원도 될 수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국적과 관련된 제한 조항은 없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분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을 통해 외국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박상순 2001: 68-72).

일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취업은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 중 많은 사람은 중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직무를 제외하고는 화교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최고위급 임원 자리에 오른 화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취직하고 승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화교단체에서 일하는 L씨는 취업과 승진에서 화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좀 안타까운 게 화교가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 들어가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진급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 . . 진급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후배한테 많이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대학을 나와도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겠죠.

---

23) 동아일보는 2003년 9월 14일자 기사에서 안동시가 외국인 3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하면서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므로 취직과 승진에서 화교들의 상황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승진에서의 차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화교들에게는 취직과 승진이 아직도 한국인에 비해 훨씬 높은 장벽을 가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 8) 기타

면접대상자들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차별의 형태를 제기하였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화교에게 내국인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화교 돈은 먹어도 뒷탈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뒤 그것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화교 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심한 경우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부는 여전히 세금 부과와 관련된 차별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행정부서나 기업 등에서 화교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처리를 미루거나 다른 부서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화교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심지어 규정과는 상관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거나 더 많은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문제도 자주 거론되었다.

대구의 화교협회 임원 L씨는 화교와 관련된 업무를 출입국관리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일본처럼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만 취급하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과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기관인 법무부가 범법자도 아닌 외국인의 민원 업무까지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역사회의 정당한 주민인 화교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땔 수 없는 것을 개탄하였다.

## V.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 1. 사회복지 혜택 개선

화교가 비록 외국인이라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함께 살아온 한국사회의 일원이면서 내국인과 다름없이 주민세, 교육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나 공과금 등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화교에게도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을 모든 자의 권리로 규정하여 내외국인 차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화교에 대한 복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극빈자에 대한 혜택 부여 문제는 화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화교가 비록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결국 그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갖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 온 지역주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 2. 화교학교 지원

화교학교는 화교사회를 떠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그러나 현재 화교학교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만 정부로부터는 교과서만을 지원받을 뿐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 턱

없이 줄어든 학생수는 학교의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화교소학교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화교 학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다. 위의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결국 화교들이 교육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므로 그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한국의 교육부가 규정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만이라도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다른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화교는 한국 땅에서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주를 하게 될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3.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에서는 화교들의 경우에 양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유지해야만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① 화교와 결혼을 한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② 화교가 귀화를 하고 싶은 경우 자식의 대학 입시 때문에 못하거나 연기를 해야 한다. 이것 역시 화교를 일반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만약에 화교가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세대를 거듭해서 한국에서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인정한다면, ① 부모 중의 한 쪽이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화교임을 증명할 수 있고, ②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외국인 특례입학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 상업적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공

앞에서 살펴본 인터넷 서비스 이용, 은행 등의 금융기관 이용, 그리고 핸드폰 가입 등의 상업적 서비스의 이용에서 화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홍보 및 강력한 지도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외국인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또 강력하게 지도함으로써 화교들의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의) 불편을 덜어줘야 하고, 은행 등의 기관에서는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등록번호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등록번호는 뒷자리 첫 번호가 5번이나 6번으로 시작되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한 번호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외국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상에서 인식도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번호를 한국인들의 주민번호와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임을 파악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①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이미 외국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② 번호만으로 외국인임을 구별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오히려 번호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등록 외국인들에게 아예 주민등록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어떠한 기준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국제규약의 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5. 연금제도의 개선

연금의 경우 다른 모든 것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반환일시금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만과 특별한 상호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교가 국적상 외국인이라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는 살기 힘든 준내국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간의 상호주의 역시 대만의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의 화교와는 달리 주재국에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는 한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 VI. 결론

###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인권에 관련된 조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점은 바로 화교들의 '소극성'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역사가 화교들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조사 협조로 이끌어내는데 만만치 않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었다.<sup>24)</sup> 다행히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연줄'을 동원한 접근은 첫 만남에서의 거부감을 덜어주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사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동안 화교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차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했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 한 화교단체의 임원은 '한국인조차 꿈쩍 못하던 독재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래서 화교들은 집단적인 저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개인적으로 떠나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대량 이민과 그에 따른 화교수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가 4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의 64.9%가 40대여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상 표본 추출이 가능한 쪽으로 집중을 한 결과였다. 이런 점은 조사의 내용이 40대의 생각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록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설문조사의 결과표와 그림들을 읽을 때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석

---

24)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자 두 사람 모두 다 각자의 조사를 위해서 각기 다른 화교단체들을 방문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제한점은 ‘국내 거주 화교’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이다. 앞의 <한국화교 사회 개관>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화교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을 떠났다. 한성화교고등학교의 일부 기수들 중에서는 국내에 남아있는 동기들의 수 보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동기들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 같은 화교라고 해도 여전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떠난 사람들 사이에도, 즉 미국으로 떠난 화교와 대만으로 간 화교들 사이에도 시각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조사용역의 성격상 이런 점들을 사상하고 한국에 남아 있는 화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교들의 인권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은 최근의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매우 개선되었다. 실제로 화교들이 가장 원했던 두 가지 문제인 부동산 보유와 영주권 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와 비교해볼 때 이미 상당한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이 화교들에 대해서 갖는 차별도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차별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을 밝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남아 있는 일견 사소한 문제들이 인권 상황의 완전한 개선을 막고 있다. 법적으로는 완비가 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무관심 또는 무지 때문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바로 그

것이다.

넷째, 역시 그들을 일반 외국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역사와 특징을 갖는 영주자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미 몇 세대를 거쳐서 한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 사람들을 잠시 들러 가는 외국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단 정서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게다가 화교들이 한국 거주민으로서 한국에 제공한 납세 등의 의무에 대한 대가가 복지혜택 등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물질적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교들은 이미 한국의 일부임을 확인되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 사람과 구별해내기 어렵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과연 화교는 ‘외국인’인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인가? 여전히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사회 속에서 영구히 뿌리를 내릴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한국인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화교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속에서의 입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써는 현재 한국화교의 정체성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한국화 된 스스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인정한다.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지 그들에게 양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한국사회 속의 소수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화라는 동화의 정책을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장기 거주하는 소수민족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 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정체성 부분과 국적은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을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관점이며, 결국 혈통주의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재언, 김동훈(하우봉, 홍성덕 역), 『재일 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 한림신서, 2000.
- 고자카이 도시아키(방광석 역),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 국가안전기획부, 『전세계 화교의 경제활동 실태』, 1995.
- 김기홍, 「재한화교의 Ethnicity에 관한 연구: 재한화교의 적응과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남궁봉, 「재한화교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0호, 1980, 60-82.
- 다카기 게조(이선희 역), 『화교의 상술에는 불황이 없다』, 바다출판사, 1997.
- 박사명 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 박상순, 「재한중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만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박은경, 『화교의 정착과 이동: 한국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한국 화교의 種族性』, 서울: 한국연구원, 1986.
- 석미령, 『한국화교교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1999.
-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pp. 424-474,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2000.
- 안선덕, 「한성화교 초·고급중학교」, 『월간중등우리교육』 3호, 1990. 100-106.
- 안시현, 『한국 화교 청소년의 생활상과 종족성』,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사학위 논문, 1998.
- 오명석, 「말레이시아 화인사회: 다종족국가 내에서의 공존과 갈등」, pp. 186-310,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2000.
- 와이덴바움·휴즈 (M. Weidenbaum and S. Hughes), 『화교 네트워크』, 지혜범 역, 세종연구원, 1998.

- 우심화, 「한국 화교교육의 실태와 전망」, 『국제심포지움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발표논문, 1999.
-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길벗, 1994.
- 이재정, 『한국의 화교 거주지 연구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장수현,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4: 1-30, 2001.
-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19: 245-258, 2002.
- 전경수, 「월경소수민족으로서의 베트남 화인사회」, pp. 112-184,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2000.
- 정신걸, 『중국 조선족』, 서울: 신인간사, 2000.
-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 4: 107-158, 2001.
- 조정남, 『중국의 민족문제』, 서울: 교양사, 1988.
- 「일본의 단일민족 정책」, 『민족연구』 7: 44-74, 2001.
- 조홍식, 『똑같은 것은 싫다: 조홍식 교수의 프랑스 문화 이야기』, 창작과 비평사, 2003.
- 조홍국, 「태국의 화인: 원만한 동화와 중국적 정체성 사이에서」, pp. 26-110,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2000.
- 주청산, 「난징대학살 사건과 왜곡의 역사」, 정근식 외 편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국가 폭력과 트라우마』, 삼인, pp. 76-81, 2001.
- 최갑수, 「프랑스 혁명과 ‘국민’의 탄생」, 한국 서양사학회 편, pp. 107-153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까치, 1999.
- 최재선, 「화교 경제 현황과 대응전략」, 『교포정책자료』 55: 127-155, 1997.
- 카세타니 토모오, 「서울의 “차이나타운”: 배제와 동화 속의 재한화교 에스티스티」, 『한국학연구』 9집, 1997, 329-46.
- 크리스 하먼(배일룡 역), 『민족문제의 재등장』, 책갈피, 2001.

황정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여성: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5: 119-141, 2002..

龔學增 主編, 1996, 『中國特色的民族問題理論』,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Skinner, G. William. 1973. "Change and Persistence in Chinese Cultures Overseas: A Comparison of Thailand and Java." J.T. McAlister. ed. *Southeast Asia: The Politics of National Integration*. New York: Random House.

Thomas Heberer, 1989,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utonomy or Assimilation?* Armonk, New York: M. E. Sharpe, Inc..

<부록 3>

## 심층면접 질문지

1. 개인 인적 사항

-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 가족사

2. 인권문제

-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3. 정체성

-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교육

-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록 4>

# 심층면접 녹취록

### <사례 1>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12일, 신촌

면접자: 장수현

대상: L씨 (여, 24세, 회사원)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여, 24세, 전북 출생, 대졸, 무역회사 해외영업부소속, 대만국적, 미혼, 양친 대만 국적
-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북에서 서울로 올라옴. 화교소학교(명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이화여대 무용과 나옴

# 가족사

- 부모 두 분 다 화교, 어머니 쪽은 외할아버지가 한국으로 건너옴. 아버지 쪽은 증조부가 건너옴. 아마도 완전히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다(들어온 이후 중국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함께 피신했던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 양쪽 집안이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로 알고 지낸 탓에 결혼하게 된 것. 인천이나 그 외 지방이 더 많았고, 서울에서는 그리 많은 수가 살지는 않았다. 현재 외조부모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살아 계심.
- 아버지 형제는 8남매. 큰아버지는 한국 청주에 거주. 큰 고모는 미국거주(고등학교 졸업 후 대만에서 공부하다가 고모부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감). 둘째 큰아버지는 일본에 거주(고등학교까지 한국 화교학교 다님, 일본에서 대학 졸업, 현재 식품 무역회사를 오사카에서 경영). 둘째 고모는 말레이시아 거주(대만에서 공부하다 말레이시아 화교인 고모부를 만나서 현재 음식점 경영). 본인의 아버지는 36세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산에 있는 음식점(할아버지가 경영)에서 함께 일했다. 현재는 작은 아버지(넷째 작은아버지-일본에서 공부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음식점 운영) 작은어머니가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 분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반대가 많았다. 국적을 바꾸지 않아서 사촌동생이 대학갈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음. 본인의 어머니도 현재 작은 아버지와 함께 중국음식점에서 일하심. 막내고모는 대학

을 일본에서 나오고, 현재 일본 거주한다. 고모부는 한국화교이며, 중국 상해에서 건설기계공장을 경영한다. 막내삼촌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 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 미국에서 작은어머니 만나서 96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현재 식품공장(일본 초밥에 들어가는 찐지종류로 일본, 동남아로 수출)을 경영한다. 중국 용거에 위치. 중국 엔타이에 가족 모두가 관여하여 경영하는 공장(기계, 새시 종류)이 있다. 여섯째 작은아버지와 큰 고모, 둘째 고모, 큰아버지 등 가족모두가 함께 경영한다. 현재, 큰어머니가 청주대 중문과 조교수로 계신다.

- 가족 모두 대만국적 소지
- 홀어머니 밑으로 언니, 본인, 남동생이 있음. 언니는 26세, 대만거주, 지능치료를 전공하여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만생활에 만족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한국은 너무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대만에서의 생활이 더 맞는 것 같다. 남동생은 21세, 화교학교를 나와서 현대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중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참정권이 없다는 것, 화교의 비율이 적으니까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별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선거 시기가 되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관해 서로 이야기할 때 자신이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야기 하다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물으면 자신은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럴 때, 자신이 외국인이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순간적으로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든다.
- 전자상거래 할 때, 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이 안 된다. 카드신청 할 때에도 불편하다. 현재 의료보험과 연금은 가입할 수 있다. F2, F5 에 대해서도 무슨 일을 하던지 잘 모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금을 신청할 때에도 한참동안 F5에 관해 설명해야 했다. 아직 많은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 연금의 경우 중간에 수혜는 불가능하고, 60세까지 한국에 거주해야 수혜가 가능하다. 한국국적을 가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화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 많다.
- 최근 여러 제도가 바뀌어서(F5) 좋다고는 느끼지만, 많은 곳에서 아직 인식이 안되어서 더 불편하다. 현재는 핸드폰 가입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보증금을 2~30만원정도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야 했다.
- (직업 선택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은 아예 자격이 안되니까 생각도 안 해봤다. 화교학교 친구들은

거의 학생이 많으며, 대개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한국사람처럼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가끔은 한국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학교를 포기하고 중식 조리사나 가이드로 대부분 취업을 한다. 같은 나이에 비해서 보수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조리사 월 100만원 이상, 주방장 월 300이상)이다. 대만의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다.

# 다른 나라로의 이주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른 나라로의 이주는 생각하고 있지만,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어머니가 대만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 가족 따로따로 유학을 가서 정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나는 시기를 놓친 상태이다. 대만 비자를 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갈 수 없게 되었다.

#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 생활하는 것은 한국이 더 편하지만, 오랫동안 여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화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 생활은 나를 숨기고 싶은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또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에 대한 염증은?

- 아직까지는 없다.

### 3. 정체성

# 내 자신이 중국사람이라는 걸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

- 집안에서 행사를 전통적으로 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명절 때 음식문화가 한국과 서로 다를 때 느낀다.

# 전통의상은 구정 때에도 입나?

- 대부분의 화교는 명절 때 전통의상은 잘 안 입는다. 아마 전통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이다.

# 그밖에 전통문화로서 한국 화교에게 남아있는 건?

- 보름 때 찹쌀떡을 먹는다(1월15일), 찹쌀밥을 옥수수 잎으로 싸서 찌낸 음식도 먹는다. 구정 때 만두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대추와 밤을 먹으면 한해 운이 좋다는 말이 있다. 단오제 때는 실로 빗자루, 팔찌, 발찌 등을 만들어서 지니면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단오제 후 처음 비가 오면 잘라서 호수에 버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양력10월 첫째 주쯤에 산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다.

# 현재 한국 화교들이 하는 중국말과 중국 북경어와 많이 다른가?

- 어차피 화교학교에서 표준말을 배우니까 많이 다르진 않지만, 중간 중간 어떤 표현이나 억양 등에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다.

# 집에서는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나?

- 집에서 엄마는 주로 중국어를 사용한다. 나는 한국어로 대답한다. 한국어가 습관이 되어서 더 편해졌다. 중학교 전까지는 한국어를 거의 하나도 못했다. 중학교 이후 무용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하게 되었다. 대학이후,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나의 중국어는 표준말보다 산둥어를 더 많이 쓴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어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가족이 모이면 중국어를 쓰는데, 사촌 오빠들과는 몰래 한국말도 한다. 또 가족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이 중국어를 주로 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 화교친구이다. 현재 3~4명 정도가 현재 한국에 있고, 대만에 2명 있다. 모두 고등학교 친구이다. 한국친구는 대학친구, 학원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 마음을 터놓고 고민할 수 있는 건 화교친구이다.

# 스포츠 경기할 때 어느 팀을 응원하나요?

- 굉장히 곤란한 경우이지만, 저번 월드컵 때에는 한국을 응원했다. 중국 대 한국 경기라면 한국을 응원한다. 대만 대 한국 경기라면 응원하기가 애매하다.

# 결혼 상대자로 화교를 선호하나?

-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에서는 분명히 한국 사람은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이나 화교와 결혼을 할 것 같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국적을 바꿀 생각이 있다. 또한,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적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여자이기 때문에 국적문제에 있어서 더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되고 남자를 따라가니까.” 하지만, 되도록 국적 바꾸는 것은 안하고 싶다.

#### 4. 교육

# 한국학교를 다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

- 그런 생각 해봤다. 여기에서는 내 자신이 어정쩡한 위치라서, 한국 역사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교학교에서는 다른 내용을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서는 공부하거나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공

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한국 학교의 교육과정 용어 등이 생소하다.

# 만약 화교와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는 어떤 학교에서 교육시킬 것인가?

- 화교학교는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한국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영어권 외국인 학교로 보낼 것이다.

# 화교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있나요?

- 화교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한국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에 가고자 한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한국 대학에 진학 할 때에도 언어 계통이나 인문계, 한의대를 주로 진학한다. 공대나 의대는 힘들다. 사춘오빠는 한국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대 법대에 진학했는데, 한국교육을 받아서 다른 화교들에 비해 어려움은 덜 하겠지만, 고시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할 경우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국제 변호사를 해야 하는지, 국적포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 화교학교의 시스템중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나?

- 중국 교과과정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 대학에 진학 할 것이라면 한국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화교학교에도 한국 교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체계가 덜 잡힌 것 같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은 부족하다. 초등학교를 화교학교로 다니면 중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 그런 면은 괜찮지만, 중고등학교는 별로 화교학교를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화교학교보다 인천에 있는 화교학교가 더 괜찮은 것 같다. 화교학교 사이에도 지역별 경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천 학교가 더 낫다고 나왔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에서 살 생각은 ?

- 중국에서의 취업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대만 신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상해 사람과 사업을 하면 득이 있다. 상해에서 사업이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같은 상해 사람과 상담하면 더 많이 얻어올 수 있다. 상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지역, 민족의 사람을 알보는 경향이 있다.

# 중국국적을 취득할 용의가 있는지?

- 중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중국국적을 취득해도 괜찮다.

## <사례 2>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5일, 영등포 홈플러스

면접자: 장수현

대상: S씨(남, 59세, 장애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남. 1954년생. 부모 모두 산둥 日照 출신.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2세.

# 가족사

-부모의 소망대로 (화교와) 결혼을 했는데 부인과 헤어짐. 음식점을 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 상태이다. 자녀는 2남 1녀. 첫째 아들은 놀고 있고 둘째는 홍대 설계과 재학중이다.

### 2. 인권문제

# 한국정부는 의무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구분을 한다. 외국인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 나라에 내야 할 것은 내국인과 똑같이 내야 하는데 내국인만큼 권리는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다.

# 우리는 시대적 불행의 산물일 뿐이다. 준내국인으로 봐야지 외국인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 외국인에게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 세금 납부 등의 기여를 한 만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전체적으로 외국인 차별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제 3세까지는 외국인 신분 유지하게 하되 그 뒤는 완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비판할 건 못하고 건의해야 한다.

# 화교는 새로 들어온 조선족과는 다르다. 조선족 국적 포기 문제가 보도되는데 중국은 필요 하면 조선족을 모두 한국에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 장애인 수칙 제 1 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나온다. 한국에서 장애인 혜택은 국민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교 장애인은 장애인 혜택을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 화교들도 한국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자동차 주차용 장애인 스티커는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다. 그건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도 그냥 어디서 받았다.

# 구청에 가서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귀화’하라고 한다. 귀화도 조건이 쉬운 게 아니다. 국가 공무원 2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도 까다로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여기서 일이년 산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물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싫은 사람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 한국에서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 나는 백그라운드도 가진 것도 없다. 이것 저것 내라는 것만 많다. 96년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 등 밀린 돈이 50만원 정도 된다. 구청에서는 차압을 한다고 한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다. 정상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 로또 당첨 되지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고 있다.
  - #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이다”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요구하니 힘들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외국인이라서 장애인 수첩이 없으니까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정말로 몰리다 보면 폭탄이라도 터뜨릴 수 있는 것이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 # 정부가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런 장애인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반쪽소박에 안된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은 잘 한다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 # 한국인 장애인들은 환경부담금 등을 안낸다.
  - # 고난의 시절, 암흑시대를 같이 겪어온 사람들이니까 화교들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장애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방인은 아닌데, 아닌가 하면 또 이방인이기도 하다.
  - # 문제는 이런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다. 관청에 가서 얘기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에 올라가야 하고, 하는 식으로 말한다.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가 되어서 해결될지 모른다. 그동안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 #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관청에 가서 얘기해도 장애인 인정을 안해주니 가슴이 답답해서 명상을 한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한탄할 뿐이다. 불행한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살까를 생각한다.
  - # 취업시의 불이익은 어느 나라에도 있는 문제이고 정도의 문제이므로 너무 부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 한국사회가 밀폐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능력이 동일한 경우, 외국인을 차별하면 문제이다. 그러나 밀폐된 사회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차별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는 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외국인은 취업에서 차별한다.
  - # 영주권 받았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현실적인 혜택은 없다. 해외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영주권 받아도 신용카드조차 일반인은 발급받기 힘들다. 변한 건 말(표현)뿐이다.

- # 원래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한국정부가 항의를 하고 싶었는데 일본정부가 한국 화교의 문제를 들고 나오자 할 말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화교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한 것이지, 화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한국화교들이 일본의 득을 본 것 같다. 국제 여론에 밀려서 해준 것일 뿐이다.
- #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도 많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외국에 가겠느냐? 그냥 여기서 기반 쌓아서 살아야지.

### 3. 교육

- # 화교 학교에 다니는 것이 반드시 한국사회 적응에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화교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고 그로 인해 한국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
- # 현재 큰아들(24세)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냥 놀고 있다. 대만에도 갔었는데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편한가 보다. 한국 대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없는가? 한의학과에 가면 좋겠다.
- # 화교들은 한의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의에서 중국어 단어가 대부분이니까.
- # 법과나 한의과를 나오는 게 한국에서 사는 데 좋다. 다른 전공은 똑같다.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아가 결정된다. 배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같은 사람은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으니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 <사례 3>

일시와 장소: 2003년 11월 8일, 충남 B 한의원

면접자: 장수현

대상: Y씨 (남, 48세, 한의사)

#### 1. 개인 인적 사항

-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48세, 한국출생, 대졸, 한의사, 화교와 결혼.

## # 가족사

-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2세. 군산 화교소학교, 인천화교초중, 한성화교고중을 거쳐 성균관대 영문학과 다니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편입 후 졸업.
  - 부인(화교. 대구에서 교사 경력)과 아이 둘(중3과 초6).
  - 현재 한의원은 IMF 때보다 6, 70% 수입 감소. 한의사가 많아져 경쟁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
  - 부모는 모두 육이오 때문에 중국으로 못돌아감. 고향은 산둥 牟平. 그곳에 이복형이 살고 있다. 부친은 원래 무역에 종사하다가 전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지자 중국음식점으로 전환.
- # 장항에는 화교가 두 집밖에 없음. 서천군에는 꽤 된다. 서천삼거리 서천중학교 근처에 홍성원이라는 중국집이 화교협회 회장 집이다.

## 2. 인권문제

- # 법무부가 외국인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그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 두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이트가 많아서 요즘처럼 인터넷 이용이 많은 때 큰 불편을 초래. 일부 사이트는 인식하지만 아직 큰 업체 중에도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세금 자료는 잘 쓰면서 왜 실명 확인 같은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실명 확인을 하려면 팩스로 자료를 보내야 한다. 옛날 번호는 인식하는데 새 번호는 인식 못한다. 실명 확인은 신용평가원(?)과 신용안전평가원(?) 같은 곳에서 한다.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못 갖추서 상품 구입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산업협회에는 내가 말해서 시정시켰다. 우리홈쇼핑, 인터파크는 외국인번호를 인식한다. 몇 개의 홈쇼핑 사이트에는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LG홈쇼핑 같은 곳도 아직 실명 확인이 안된다. 심지어 KBS와 MBC 같은 공적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실명 확인이 안된다. 보도기관조차 그런 게 안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아래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안된다. 우두머리에게 한 마디 하면 해결이 된다.
- # 지자체 선거권은 말만 꺼내놓고 실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그 자손들이 한국에 살 사람들이는데 왜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지 알 수가 없다.
- # 장애인 인정을 안해주는 것도 큰 문제다. 모친이 현재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데 투석비가 하루에 3만 5천원이다. 장애인 보조 대상자에게는 감액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모친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조차 할 수 없다. 화교도 주민세, 교육세, 재산세를 납부한다. 세

- 금 부담은 하면서 혜택은 못 받고 있는 것이다.
- # 한국 대학 한의학과들이 화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 한의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화교가 보기 싫어서 배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한의학과와 화교 특례입학 숫자가 줄거나 없어졌는데 그 이유로 성적이 모자란다는 것을 내세운다. 화교 한의원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못 봐서 배타하는 것이다. 쪼잔하게 화교 몇 사람 돈 버는 걸 못 보는 것이다. 화교 학생을 받아주고 기부금 1억, 2억 받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 # 중국과 관련성이 큰 학과들(사학과, 한문학과, 한의학과 등)일수록 화교에 대한 배타성이 크다. 분명히 그 밑에는 열등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그것이 반증감정으로 전환된다. 中醫, 漢醫, 韓醫라고 하는 표현에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다.
  - # 성균관대학 영문학과는 30명 정원이었는데 정원 외로 화교 6명을 더 뽑았다. 그래서 총 36명이 다녔다. 화교학생들에게 등록금 반액을 면제시켜 줬다.
  - # 대학들이 왜 화교 학생을 안 받아주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경산대 등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한의학과에서 화교 학생을 안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들의 그런 행태를 볼 때 외국인 특별전형 학칙은 학칙이 아니라 개인수칙에 불과할 뿐이다.
  - #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모두 적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처럼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만 걸려든다.
  - # 옛날같은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 토지소유 문제는 해결되었다. 은행 신용카드 문제도 해결되었다. 과거에는 통장 개설하는 것도 힘들었다.
  - # 아직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그밖에 일반 면허를 취득하는 직업은 화교가 할 수 없다.
  - # 업무 볼 때 화교들은 항상 서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신분증을 보여줘도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관원들이 많다.
  - # 이 지역에 화교기업은 거의 없다. 군산에 있던 고량주 공장도 사라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박탈시대라 부른다.
  - # 이제는 직업도 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음식점, 약사, 한의사가 많은 편이다.
  - # 과거 화교를 되놈이라 불렀고 장꼴라라 하기도 했다. 장꼴라는 중국인의 중국식 발음 “중귀런”을 일본인들이 “장귀라”로 들어서 나온 말이다. 빼같은 白干兒이라는 말이다.
  - # 중국이나 한국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점과 면의 관계를 생각한다. 점 한 개가 나쁘다고 면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 # 지자체 피선거권이 주어지면 나도 출마할 생각이다. 내가 무슨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그 과정을 즐기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화교도 지자체의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곳 장항이 왜 뉴욕의 맨하탄이 될 수 없느냐? 프론

티어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 내가 군산과 장항을 오가면서 생각한 것이다. 컴퓨터 게임 중에 SimCity라는 게 있다. 정말로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도자라면 도시 하나를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동력에서부터 주거지, 공장 등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도시가 세워지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자체가 될려면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

# 과거와 같은 차별이 많이 없어진 것, 옛날처럼 나쁜 표현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 3. 정체성

# 한국 만화를 보고 한국말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가 능숙하다. 화교가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람들과 많이 접촉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 중국을 잘 모르는 한국인이 많다. 중국으로 장사를 해 먹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 중국 비디오나 DVD에는 만다린과 광둥어 버전이 다른데, 그런 것도 모르는 판매자도 있다.

# 아이들은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모랑 얘기할 때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 성대 다닐 때 영어회화 서클(Humming Bird)에서 활동했다. 한국 친구는 특별히 없다.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기는 하지만,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모두 다 다른 나라로 떠났다.

# 한국과 대만의 야구시합 때 나는 한국을 응원했다.

#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한 뒤)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자녀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는 것이다.

# 공원에서 칠팔십살 먹은 노인이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는지를 물었다. 그 노인이 이걸 내 후손들이 쉬고 노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심은 것에서 손자녀가 혜택을 얻는 것. 아이가 놀면서 이 나무는 내 할아버지가 심어준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해야 한다.

### 4. 교육

#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나중에 인맥이 된다는 생각에서 아들을 한국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초4부터는 화교학교에 보냈다. 화교학교는 자모회도 없고 선생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 돈 낼 일도 없는데, 한국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현실상 너무 싫은 부분(화교학교와 반대되는 부분)이 많았다. 새싹이 싱싱해야 잘 자라는 데 한국 학교는 새

씩을 튼튼하지 않게 만드는 곳이다. 학교 반장은 한 명만 두면 되는 것인데 한국 학교에서는 반장을 돌려가면서 시킨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경우도 많은데, 돈 처리도 불명확하다. 학급비, 여행비 등을 거둔 다음 제대로 결산도 해주지 않는다. 화교학교는 결산을 확실하게 한다. 多退少補라는 말이 있다. 많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보탠다는 뜻이다. 그런 게 교육이다. 한국학교에서는 형평성도 없다. 내는 사람도 있고 안내는 사람도 있다.

- # 한성화교학교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는 한달 8만원(식사 포함).
- # 다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면 한국에서는 안 다닐 것이다. 성대 영문과 다닐 때 화교학생들 F 학점 많이 받았다. 원광대 한의학과는 정원이 120명이었다.
- # 화교학교의 교과서는 대만 교과서. 臺獨分子(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대만 역사에 치중하여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대만역사 공부에 바치게 함. 중국어, 영어, 수학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 화교 학생 가운데 혼혈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 名師出高徒(좋은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화교학교의 교사 수준이 낮아서 좋은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 한국어 교육을 한국인 선생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 한국어를 잘 하는 중국인 한글 선생이 필요하다. 회화 정도만 한국인 교사에게 맡기는 방식이라야 한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 중국/한국의 엄격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끊임없이 영역의 확장과 축소가 이뤄져온 것일 뿐이다. 중국의 힘이 강하면 중국의 영역이 넓혀지고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한국의 영역이 넓혀져온 것이 양국의 역사.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주장은 웃기는 소리다. 만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땅도 한국 땅도 아니다. 그건 여진이나 말갈의 땅이라고 부른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여러 집단이 섞인 것이다. 우리 조상의 일부일 수도 있다.
- # 국적은 대만이지만 마음은 중국에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모든 것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독분자는 싫다. 너희들이 본성인이라 부르면 산지인은 뭐냐?
-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다르다. 94년에 첫 방문을 했다. 중국에 대한 감정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신하고 싶다. 고향에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탔는데 배가 왜 이렇게 빨리 떠나지 않지 하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되어 있어서 휴머니즘이 사라졌더라. 정을 주는 게 안되더라. 96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그 뒤로는 안 갔다.

#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는 “韓國鬼”이다. 애들이 쓰는 말이다. 우리를 이방인으로 생각한다.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자라온 환경만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방향을 못잡겠다. 나는 나를 중국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대로 중국인으로 남아야 하나? 그렇다고 한국으로 귀화하는 것도 껴름칙하다. 한국인은 피만 보지 자라온 환경은 보지 않는다. 만약 한국인들이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지 않았다면 벌써 동화되었을 것이다. 배타적인 것을 없애야 된다. 연방제를 만들면 발전할까,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 <사례 4>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13일, 지방의 화교학교 교무실

면접자: 장수현

대상: Y씨(남, 56세, 화교학교 교원)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56세, 인천 출생, 전남대졸, 화교학교 교원.

# 대학졸업 후에 2년간 화교학교 교사를 했고 화교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 현재 煙台에 속해 있는 福山縣. 인천 출생. 4세 때인 1950년에 전쟁을 피해 광주로 감. 중학교는 부산에서 화교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화교학교를 다녔다. 대학은 전남대를 나왔다.

# 큰아들(29세)은 동아대 의대에서 5년간 공부를 했지만 결국 졸업을 하지 못했다. 화교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는 한국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동신대 한의대에 다시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다. 본과 2학년이다. 의대에서 배운 게 많고 한자가 많으니까 지금은 편하게 공부하고 있다. 딸은 방통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처(화교)는 직장은 없고 여기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과외를 하고 있다.

# 형제는 2녀 4남. 큰누나는 포항에서 중국식당 경영. 그 자녀들은 거의 모두 대만에 나가 있다. 거기서 교사, 의사 등을 하고 있다. 둘째 누나는 광주에서 포목점을 한다. 그 자녀 가운데 큰아들은 광주에서 포목점 일을 도우고 있고 둘째는 서울에 산다. 딸 셋은 미국에 건너가 살고 있다. 세 번째가 만형으로 군산에서 중국식당을 경영한다. 그 자녀들은 대만에서 산다. 둘째형은 부산에서 한의사를 한다. 그 큰딸은 미국에 산다. 그 다음이 나고, 내 밑 남

동생은 대만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대만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 2. 부산의 화교 현황

# 부산에는 약 2천명의 화교가 살고 있다. 단체는 아주 다양하다. 친목단체가 많다. 매화동자군회(스카우트 조직), 弄墨會를 비롯하여 많은 친목단체가 있다. 그밖에 동창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등.

## 3. 화교학교와 교육

#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PSB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는데 원래 보도 취지라고 밝힌 것과 실제 보도 내용이 달라서 곤욕을 치렀다. 2003년 11월 21일에 방영된 줌인 26회에서 극성 엄마들의 외국어 교육 열풍 때문에 화교학교가 중국어 학습을 위한 학원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 한국 어린이가 대만 국기와 장개석에게 인사하는 모습, 대만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한국 아이들이 불법적으로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프로그램이 나간 후에 교육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내국인 학생 유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법을 어기고 있는냐는 질책을 했다. 한국인 학생들을 이번 학기가 끝나는 대로 한국 학교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명단을 가져 오라고 해서 (실제보다 줄여서) 22명의 이름을 보여줬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 “약하면 외교도 없다”는 말처럼 대만의 국력이 약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 최근에 외국인학교 인가서를 받았는데 이 인가서에 내국인은 받지 않도록 못을 박아뒀다. 학력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과거 외국인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못한 결과가 생겼다. (벽에 부착된 인가서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1>중국어 사용 외국인, 외국시민, 영주권 소지자, 한국계 혼혈아, 5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인 학생만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인가서를 가져가 버려서 4년간 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한 적도 있다. 최형우씨 자녀의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외국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 광주와 전주 쪽은 인가 없이 계속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학생을 많이 받아 그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재정이 아주 좋아졌다. 시설과 설비도 많이 개선할 수 있었다. 그쪽 교장과 친구라서 지난 번에 만났을 때 너무 많이 뽑으면 문제가 될 테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최근

에 문제가 제기되어 학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경우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안되고 있다. 기부금 받는 것은, 화교학교 자체가 화교들의 기부금에 의해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라는 점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 # 화교학교 교장이 되려면 영등포소학교의 교장처럼 기부금을 받아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 화교학교에 내국인 입학은 불허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대만의 한국학교 역시 내국인을 못 받도록 되어 있다.
- # 현재 화교소학교의 학생 숫자는 182명이다. 5, 6학년은 각각 17명, 22명으로 숫자가 적지만 저학년 학생수는 그보다 많다. 한국인 학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1학년은 49명이나 된다.
- # 현재 교사수는 교장 1명, 교무주임 1명, 학년 담임 6명, 모두 8명이다. 대학 출신이 3명이고 나머지는 고졸자들이다. 대만에서 온 선생이 한 사람 있다. 한국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나온 대만여성인데 과외학생 숫자가 너무 많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사회에 그 선생의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화교학교가 화교들의 기부금에 의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이 세다. 그러나 지금은 이사들이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사 중에는 중국음식점을 하는 사람,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많다. 음식점 하는 사람과 전문직이 반반 정도 된다.
- # 학생수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몇 차례 어쩔 수 없어서 선생들을 해고했었다. 그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해고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장으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 # 교사의 월급은 120만원. 근무연수에 만원을 곱한 액수를 더 준다. 30년 근무한 사람은 30만원을 더 받는다.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들이 과외를 해서 수입을 보충한다.
- # 사실 우리는 한국과 대만/중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사회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어서 허무한 생각이 든다. 이것이 선생이 걸어갈 길인가, 그런 한탄을 한다.
- # 화교중고등학교는 대만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다. 소학교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이 없다.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이다.
- # 소학교는 숙제도 많이 주고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 중학교는 정말로 교육이 엉망이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학생들이 이곳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으려 한다.
- # 소학교 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한국인 아이들이건 화교 어린이들이건 중국어가 서툴러서 가르치기가 무척 힘들다. 어떤 때는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 우리가 학생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학생들을 두고 강압적으로 가

르치는 식이라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 # 화교중고등학교는 학생이 160여명이다. 기숙사에 20명 정도가 산다. 2년 전만 하더라도 50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만큼 지방에서 오는 학생이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부산 뿐 아니라 경남 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화교 학생들이 부산에 많이 진학했는데, 요즘은 서울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 # 학교 사정이 어려워므로 장차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 안 원한다. 중국대사관이 별로 간섭하지 않아서 불만이 없다. (민감한 내용, 삭제)
- # 대륙 쪽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차는 대륙계가 학교에 들어와야 한다. 나는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 <사례 5>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3일, 연희동 중국음식점 진북경

면접자: 장수현

대상: H씨(남, 46세, 대만계 TV사 직원)

#### 1. 개인 인적 사항

-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46세, 부산 출생, 대졸, 대만 通訊社 한국주재원, 기혼, 배우자 화교
- # 고향은 산둥성 牟平縣. 화교 2세. 1958년생.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졸업.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홍익대 미대에 편입하여 졸업.
- # 오스트리아의 형에게로 가서 거기서 2년 정도 불법적으로 체류했다. 귀국 후에 사진관을 하기도 했고, 대만 회사의 한국지사를 관리한 적도 있다.
- # 장인이 화교사회에서 알아주는 사진사였다. 화교들의 증명사진을 독점적으로 찍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최근에는 집안이 몰락했다. 부인은 8남매. 장모가 여자호걸같이 호탕한 사람이었는데 근래에 나쁜 일이 겹쳐서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
- # 화교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다가 최근에 화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화교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가 깊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함. [그런 이유로 인터뷰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았음.]

#### 2. 인권문제

# 화교들은 아직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의 카드를 신청하자 가족카드로 발급하라고 권유. 각자의 카드를 가지고 싶다고 별개의 카드 발급을 요청했는데, 카드 발급 받는 수속이 매우 까다롭다.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 하고 신분증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한다. 몇 년 전에 내 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쉽지 않았다. 계속 발급 받지 못하다가 핸드폰 사용료를 납부한 기록을 보고는 발급을 해줬다. 당시에 업무 관계로 국제전화를 많이 했고 국내 통화량도 많았다. 한달에 어떤 때는 수백만원의 통화료를 납부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제 때 통화료를 냈기 때문에 신용을 인정받았다.

#### 4. 교육

# 화교 교육의 문제점은?

- 내가 화교학교 다닐 때는 경요의 소설 같은 중국 책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화교 학생들은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TV의 영향이 크다. 한국 TV를 보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해진다. 현재의 화교 학생들은 중국어도 한국어도 모자란다. 말은 그런 대로 하지만 글쓰기를 보면 수준이 너무 낮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 지금 화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심각한 수준이다. 한 반에 겨우 몇 명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논다.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다.
- 화교학교의 교과서는 대만에서 온 것이다. 대만 민진당이 얼마 전에 교과서를 개편했다. 교과서 내용이 대만 중심이다. 대만의 고산족 8개에 대한 소개도 있다. 과거에는 중국 전체를 다뤘는데 지금은 대만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너무 편협되어 있다. 그런 내용은 한국 실정과도 아무 관련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화교가 한국사회 속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많이 바꿔야 한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
- 최근에는 한국 대학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만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 화교 남자들이 대만에 가서 장기 체류하게 되면 군대에 가도록 대만 정부가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대만에 가는 화교 남자가 많이 줄었다. 대만 가는 사람이 줄어 든 것은 대만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 화평통일을 추진하려는 사람은 중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화평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결성된 화평통일촉진위원회는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단체다.

## 6. 기타

### # 화교에 대한 이해

- 한국화교 중에도 입장이 다양하다. 그래서 화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 # 화교의 특성

- 화교는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일단 친해지고 나면 매우 좋은 친구가 된다. 쉽게 모르는 사람의 접근에 문을 열지 주지 않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 할 얘기와 해서는 안될 얘기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 # 한국화교의 경제 상황

- 화교 가운데 부자도 꽤 있다. IMF 시대 때 일어선 사람도 적지 않다. 당시 한국의 옷을 헐 값에 사서 중국 등에 수출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다.
- 돈을 번 사람들은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 부산에는 孫世遠이라고 하는 화교기업인이 있었는데 당면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 #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들

-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국 남자와 결혼한 친구가 네 명이다.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외국으로의 이주

- 많은 친구가 외국, 특히 미국으로 이주했다. 일본에 일하러 간 친구도 많다.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외국을 빠져 나갔다.

### # 한국 화교의 고향

- 壽光縣과 榮成縣 출신이 많다.

### # 華光報

- 洪寧涉이라는 한국인이 만든 신문이다. 그 부인은 중국인이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 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있다. 주요 구독자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최근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출국했고 그 때문에 구독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신문 발간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재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을 발간하겠다고 했다.

<사례 6>

일시와 장소: 2003년 10월 24일, 서울 이태원 중국음식점

면접자: 장수현, 박경태

대상: T씨(60대 후반, 한성화교협회 전임 임원)

- # 중국에서 새로운 비닐하우스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인 직원을 한국에 데려와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인 기술자들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함. 정확한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얻고 있음.
- # 중국 CCTV 기자 출신의 젊은 사업가가 한국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다가 한국 공항에서 관원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자 바로 중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벌어졌다. 아직도 한국사람들이 중국인을 깔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진다. 한국에 투자할 사람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 # 한국화교에 대해 이해하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 화교교회 목사, 장애인, 화교학교 교장, 화교협회 회장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락처를 받음]
- # 1983년 CBS에서 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한겨레의 고사장이 당시 프로그램 담당자였다.
- # 화교학교 교과서가 현실에 맞지 않다. 한국 실정에 맞도록 바뀌야 한다.
- # 현재 화교학생의 대학입학 자격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화교 고등학생에게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잠시 가짜로 이혼을 했다가 대학 입학 후에 재혼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다. 내가 학교 교무주임 할 때 어떤 해는 일년에 가이혼 도장을 80개 정도 찍었다. 그러나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성화교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60% 이상이 국제결혼이다.

<사례 7>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14일, 대구화교협회

면접자: 장수현

대상: W씨(남, 40대 중반, 음식점), L씨(남, 60대 후반, 화교신문지사장)

1. 개인 인적 사항

# W씨

- 40대 중반. 경주에서 출생한 화교 2세.
- 조부는 평양에 살던 부유한 농민. 육이오 때 지주에 대한 탄압이 있게 되자 조부가 부를 피난시킴. 모는 한국인으로서는 청송 심씨. 육이오 때 부산에 피난 가서 부를 만나 결혼.
- 화교고등학교 졸업한 뒤 집에서 아버지 식당 일을 돕다가 82년부터 84년까지 외삼촌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인천의 문화기업에서 근무했다. 토목공사 일을 했다. 85년에 부와 중국의 친척 방문하면서 회사를 잠시 쉬. 친척이 많아서 몇 개월 후에 귀국한 뒤 부가 직장보다는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더 나아보인다고 해서 부의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 1년 후에 부가 사망하여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음.
- 부인이 한국인이며 딸 하나가 있다. 딸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한국인 학교를 나왔다. 딸은 계명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놀고 있다.

# L씨

- 남. 60대 후반. 고향 산동 연태. 부친이 일제시대(1925,6년 부근)에 옥천-대전간 십리굴 공사의 쿠리로 한국에 옴.
- 옥천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까지 다님. 육이오 때 경북으로 이주해 옴.

2. 대구지역 화교 상황

# 화교 인구는 천 명 정도. 대구 관할 지역의 화교 인구는 1700명 정도. 과거에 많을 때는 4천명 정도.

# 과거에는 화교의 당면공장, 간장공장, 술 공장 등이 있었는데 토지소유 제한 등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망했다. 남은 사람은 주로 한국인 부인이나 인척 등이 있는 사람이다. 85% 정도가 식당을 하거나 한국인이 하는 식당에 취업해 있다. 화교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다(융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 소규모 중국집만 한

- 다. 수성표, 장생표 고량주 등이 화교 기업이었다.
- # 얼마 전에 대구시 국제협력계에서 전화가 왔다. 2005년 세계화상대회에 대구에서도 참석할 생각이므로 화교기업 상황을 알고 싶다는 내용.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하자 난감해 했다.
  - # 대구 약전거리에 차이나타운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고 관청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화교들은 차이나타운이 생긴다고 해도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자기 자본이 적어서 만약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 전부를 넣어야 할텐데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이다. 용자를 받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화교에게는 담보 없이는 용자도 안 된다.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단기 이익을 노리고 오지만 여기 화교들은 계속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 # 대구의 화교학교 상황은 매우 열악함. 중고등학교의 경우 총 6반의 학생수가 80명이 채 안 됨. 이번에 화교소학교 6학년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중1은 학생이 없다. 중고등학교의 교사는 15명 정도. 대만정부와 사회독지가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조차 어렵다. 재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힘들어서 학교 앞의 강당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다. 얼마 전에 아들 둘이 치과의사를 하는 화교가 죽은 뒤 중고등학교에 1억을 기부했다. 그 돈이 있어서 재정이 조금 안정되었다.
  - # 소학교 학생은 현재 47명밖에 없다. 소학교는 특수한 결손이 있는 경우(건물 보수 등)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유지가 힘들어서 몇 년 전에 교사 전체를 해임한 뒤 다시 신청을 받았다. 그때 교사 숫자를 줄였다.
  - # 유치부(5, 6세 아동)에 한국인 아동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편이다. 유치부는 입학준비반이라 부른다. 집에서 거의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 반이 있으며 23-4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인 학생은 그 중에 60% 정도이며 이곳을 마친 다음에 한국학교로 진학한다. 부모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다가 귀국한 아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중국에 가서 살 아이들이 많다.
  - # 여기 소학교에 몇 년 전에 SBS에서 화교학교의 한국인 학생 문제를 보도하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당시 2, 3명의 한국인 초등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한 학부모는 내 자식 교육 내가 알아서 시키는 데 왜 상관이나고 그쪽 학교에 항의해서 결국 화교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다.
  - # 원래 대구 화교협회의 관할하에 있던 영천, 안동, 김천의 경우 소학교가 모두 폐교 되었다. 과거 대구화교소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지방학생들이 많이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다. 학생수가 적어서 기숙사 운영하면 수지가 안 맞다. 기숙사가 없으니 부모가 여기 와서

살아야 이곳 소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 학생이 없다.

- # 교사 문제는 대만의 교무위원회와 협의도 했다. 대만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올리고 하는 사람이 없다. 중국영사관에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학교는 모두 대만정부의 관할이므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다.
- # 교과서는 모두 대만 것을 쓴다. 대륙에서도 교과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은 못 받는다. 대만 교과서는 보포모푸로 표기가 되어 있고 중국 교과서는 평음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배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치부 한 학생의 어머니는 대륙에서 온 조선족(한국인 남편)이어서 아이 공부를 도와주고 싶지만 보포모푸를 몰라서 못 가르쳐 준다. 그래서 보포모푸를 따로 배우고 있다. 한국 학교들은 지금 모두 평음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화교들끼리 논의가 있었다.
- # 현재 여기 소학교에서는 4학년 때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최근 대만대표부 이재방 대사가 회의에서 앞으로는 소학에서 1학년 때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키라고 권유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 # 화교소학교 졸업한 화교학생 가운데 35% 정도는 한국 중학교로 진학한다.
- # 화교협회는 호적등본 정리, 결혼과 이혼 신고, 대만정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정체성

- # [W씨] 한국인 친구가 더 많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거의 한국인이다. 한국친구들과 오래 같이 있다보니깐 그 친구들이 나를 화교로 생각하지 않는다.

### 4. 인권문제 [W씨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L씨가 답변한 내용]

- # [W씨] 화교는 경로우대증도 못 받고, 장애인/극빈자 혜택도 못 받는다. 무주택증명 하나도 댈 수 없다. 극빈자, 장애인, 대학진학 문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화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대만대표부에서 개최한 전국화교단체회의에서도 논의되었다. 화교도 교육세는 내는데 화교학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 화교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소학교 정문 앞에 보도블록을 깔아달라고 관청에 가서 요청했더니 외국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청을 들어주기 힘들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화교도 교육세를 내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를 했던 적이 있다.
- # 협회에서 사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녀 대학 진학 문제,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와서 호소할 때마다 가슴이 쓰리다.

- # 의무와 관련해서는 화교를 내국인과 같이 취급하고 권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으로 취급해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물 나쁜 데서는 고기도 못산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다. 학연, 지연, 혈연이 없으면 살기 힘든 게 한국인데 화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세금을 때리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다. 대만대표부도 국가의 힘이 약하니까 외교력이 거의 없다. 한국은 화교가 살 수 없는 나라이다.
- # 한국화교의 문제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약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등록증명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재산 취득번호 부여 업무만 하는데, 어떻게 그 세 가지만으로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화교는 내국인처럼 주민이니까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그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만 취급하고 나머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담당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지 민원기관이 아니다.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거기서 관리하는가?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인데 동사무소에 우리에게 대한 기록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동사무소에서 자기에 관한 사실증명을 아무 것도 땔 수 없다. 일본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일본은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한다. 외국인등록증을 거주지에서 관리해야 한다. 화교협회에서 극빈자증명을 떼 주지만 그건 해당 지역 구청장의 직인이 아니라 화교협회장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감증명은 현재 구청으로 넘어와 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땔 수 있다. 그러나 전산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걸린다.
- #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은 만 17세가 되면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한다. 범죄자처럼.
- # 한번은 화교에게서 전화가 왔다. 버스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있어서 버스 통제로 경찰서에 갔는데 한국인은 모두 풀어주고 자기만 남겨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조회를 해도 신원을 알 수가 없어서(당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안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신속하게 출입국관리국에 연락을 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경찰이 “당신은 뭐야” 라는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화교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외사과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알겠다고 하더라.
- # 외국인등록번호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됨. 번호 뒷부분이 C- 로 시작하는 번호(China), TC- 로 시작하는 번호(Taegu China), 1931801로 시작하는 번호(1은 남자, 93은 93년에 부여된 번호?, 1801은 지역번호)로 바뀌어옴. 2000년도부터는 남자 5, 여자 6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부여함.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재산 등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인정을 못 받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농촌지역 관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다. 아파트 등기 변경 같은 걸 할 때 소유주의 외국인번호가 옛날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등기부에는 옛날 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 현재의 번호와 동일한 인물의 번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 등기소 직원이 확인을 해줘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사법서사의 책임 하에 공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법서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해주지 않으려 한다.
- # F2는 5년마다 2만원 주고 연장 신청을 했었다. 지금은 대부분 F5로 바뀜.
- # 대구에서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65% 정도로 추정함.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신청해 봐야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음.
- # 1948년 8월 15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데 반해 한국정부 수립 이후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있다. 일정한 재산이 있고 신원과 재정 보증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6만원이다.
- # 출입국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취득을 3년간 제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취득할 수 없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5년으로 바뀌었다. 영주권을 줄려면 반란죄나 뭐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별 혜택도 없는 영주권을 주면서도 제제하게 한다.
- # 영주권 부여하면서 외국인등록번호의 뒷자리 숫자를 남자는 5번, 여자는 6번으로 시작하게 했다. 그건 너무했다. 어디 가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대면 그런 번호가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 어지간한 관청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민원서류 같은 것을 떼어달라고 가면 우리는 이런 것 모른다. 귀찮으니까 가라고 한다. 외국인이니깐 그럴 때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죽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 # 외국인이라고 채용을 하지 않는 곳도 많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다. 큰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화교가 발붙이기 힘들다. 중국과의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초기 진출 때 중국어를 하는 화교를 채용하는 회사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썩 임금의 현지 조선족을 쓰고 화교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화교의 대학입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원광대 한의학과는 화교를 안받아준다. 받아주는 대학도 과거보다 숫자를 많이 줄였다. 한국인 대입 지원자 가운데 재외국

민 지원자가 많아서 화교에게 불리해진 것도 있다. 경산대 한의학과와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례입학의 숫자를 많이 줄였다. 전에는 12명이었는데 3년 전부터 6명으로 줄었다. 화교는 작년에 한 명도 못 들어갔고 올해는 한 명 들어갔다. 경북대 의대와 치대는 옛날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받는다. W씨의 동생 부부는 두 사람 다 성대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를 하고 있다. 그때는 어려움 없이 들어갔는데 지금 동생 부부는 자식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크다. 화교학생을 쉽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 모가 한국인인 화교 학생의 경우 부모가 최근에 이혼했다면 편법으로 간주하여 특례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까지 있다. 최근 대만대표부가 이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교육부가 그에 관한 공문을 내려 보낸 탓인지 어떤 학교는 부모가 이혼한 지 1년 이상이 되었으면 그 자녀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기도 한다.

# 옛날에는 화교(외국인)의 재산소유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W씨는 한국인 부인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 친구, 부인 명의로 토지나 집을 구입했다가 나중 후대로 넘어가서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지금도 토지 같은 것 구입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옛날에는 집이 있어도 임대를 할 수 없었다. 집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는 그냥 비워둬야 함.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남을 때도 임대를 할 수 없어서 빈 채로 놓아둬야 했다. 임대를 하면 일년에 두 번씩 벌금이 나왔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적 변경을 한 사람도 있다. 옛날에 아파트 같은 것 구입하면 신고를 해야 했다. 부근 약도, 위치도, 해당 구의 구별 지도 등 지도만 세 개를 제출해야 했다. 전가족의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네 부씩 만들어서 제출. 안기부 외사과에서 나와서 자금 출처 조사를 했다. 군부대는 군필수요지점령여부에 대한 검사를 했다. 군사시설 부근에는 아파트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었다. 항공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 5년 전 쯤 화교 전임회장 취임시 대구시 문화갑 시장을 방문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문시장이 앞으로 영주권, 지방 투표권, 심지어 대선 투표권까지 나올 것이라 말함. 사실 투표권이 없으니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의원이나 단체장은 투표권 가진 주민의 요구를 우선 배려하는 것 아닌가.

## 5. 대륙/대만과의 관계 [L씨가 답변한 내용]

# [인천에는 대륙 자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의 사정은?] 대구에도 대륙자본이 소규모 들어와 있다. 대개는 한국자본이 중국과 합자를 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인을 한국 회사에 데려와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일종의 편법이다. 대구는 대륙과의 관계가 거의 없다. 극소수만 대륙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화교는 대부분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서 양쪽이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이 될 것이다.

# 10월에 2박 3일간 양평한화리조트에서 대만대표부가 제1차 僑務僑教 전국화교회의를 개최하여 화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건의를 받았다. 대만대표부 領務部長 복조기씨가 화교들의 당면 문제를 많이 파악하고 있다.

#### 6. 국적 취득 [W씨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L씨가 답변한 내용]

# [W씨] 앞으로 화교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옛날에는 국적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 한국에 영원히 살 생각이면 바꾸라고 말한다. 생각이 바뀌었다. 돈 있는 사람 중에는 외국인으로 있는 것이 모든 면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한 사람이 꽤 있다.

#### <사례 8>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12일, 서울 화교단체 사무실

면접자: 장수현, 윤지현(미국 Dartmouth 대학 학생)

대상: L씨 (단체 직원)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38세, 강원도 삼척 출생, 대졸, 화교단체 직원, 대만국적, 모가 한국인, 한국인 배우자

[이하는 녹취 내용을 푼 것]

장수현: 일단 전체적으로 화교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질문은 조금 있다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성함이랑 성별이랑 연령이 올해 어떻게 되시죠?

L: 서른 여덟입니다. 66년생입니다.

장수현: 출생지는 한국?

L: 네. 한국. 서울 아니고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수현: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셨습니까?

L: 아버님이 그곳에 계셨죠.

장수현: 가족이 중국에서 언제쯤 이주해 오셨습니까?

L: 정확하게 모르구요. 아버님이 12살 정도 때 아버님이랑 삼형제. 위로 형님 두분하고 같이  
요.

장수현: 그럼 12세 때면,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L: 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현: 그럼, 지금으로 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L: 아버님이 원숭이 떠시니까,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장수현: 대략 언제쯤 들어오셨는지 연도를 알 수 있을까요?

L: 제가 계산 좀 해보고요.

장수현: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머니는 언제쯤..

L: 어머니는 한국분이시고,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여덟 살 때 한국에 오셨어요.

장수현: 저희 어머니도 일본에서 어릴 때 생활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건 어디서 태어나셨는  
지 잘 모르겠는데요.

L: 할아버지가 일본에 계셔서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장수현: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삼척으로 거주지를 정하셨습니까?

L: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전부 다 경상도 쪽이었습니다.

장수현: 아버님이 삼척으로 가신 것은 아버님 대에 그쪽으로 옮겨 가신거군요.

L: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경상도 쪽에 살고 계셨는데, 어떻게 삼척으로 옮겨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현: 할아버지 대에 삼척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L: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대구에 사셨습니다.

장수현: 질문하는 중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L: 네, 괜찮습니다.

장수현: 어떤 업종에 종사하셨습니까?

L: 요식업이었습니다. 중국음식점입니다.

장수현: 선생님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서 자라신건가요?

L: 네, 삼척은 화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유치원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인  
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한창 바쁘시니깐 우리를 인천의 큰아버님  
이 계셨어요. 제 위로 누나가 2명 있고, 동생이 한 명 있고, 누나와 같이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딱 1학년까지 다녔어요. 강릉에도 화교학교가 있습니다. 강릉과 삼척이 한 시간 거리인데 그 때 강릉에 안 보내시고 인천에 보내고 나서 2학년쯤에 다시 강릉으로 왔습니다. 그 때 누나들도 같이 왔습니다.

장수현: 밑에 동생은?

L: 남동생입니다. 그곳에서 소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장수현: 강릉에는 소학교까지 밖에 없죠? 마친 다음에는 서울로?

L: 네, 연희동쪽으로 왔습니다. 화교 중학교, 중, 고등학교 합쳐진 곳인데 이곳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장수현: 유학을 시킨다고 부모님께서 고생을 하셨네요.

L: 강릉하고 삼척이 한 시간 거리지만 강릉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방학 때만 집으로 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장수현: 아버님 형제들은 대략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신지 아시죠?

L: 큰아버님은 강릉에서 잡화를 하셨어요. 그 때는 상해라고 있었는데, 잡화쯤 되죠. 둘째 큰 아버지는 인천에서 농사를 하셨어요. 송도 쪽에서요.

장수현: 세 번째가 아버님이신가요?

L: 네. 막내입니다.

장수현: 남자 형제만 세 사람입니까?

L: 네, 그렇습니다.

장수현: 큰댁 사촌들은 지금 한국에 다 계신가요?

L: 둘째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큰아버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사촌 형제들은 강릉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미국에 계십니다.

장수현: 미국에 몇 분이 나가계십니까? 큰 집과 둘째 큰 집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L: 아닙니다. 큰집은 4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강릉에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미국에 계십니다.

장수현: 이 분들이 다 남자 분들 아닙니까?

L: 여자 두 분, 남자 한 분입니다.

장수현: 이 분들이 가시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고,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셨습니까?

L: 큰 사촌 누나 쪽은 잘 모르고, 둘째 사촌누나는 여기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미국에 가셨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장수현: 결혼하시면서 가셨습니까?

L: 여기서 결혼은 했고요. 가족이 이민을 간 것입니다.

장수현: 둘째 큰아버님 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L: 아들이 둘 있어요.

장수현: 이 분들은 다 한국에 계십니까?

L: 아니요. 대만에 있습니다.

장수현: 우리 한국 화교사회가 얼마나 인터내셔널한지요! 이분들은 모두 대만에서 대학을 들어가셨습니까?

L: 그렇죠. 대만에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셨죠.

장수현: 제가 앞으로 이렇게 세계로 퍼져있는 가족을 가진 큰 가족을 정해서 장기적으로 그 때 어떤 사정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당시 한국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연구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의 화교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대부분 가정이 대만,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아주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있는데요?

L: 저뿐만 아니라 화교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가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기존에 나와있는 수치를 보면 제가 책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화교들」 책자가 있습니다.

장수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L: 지금 저희한테 있는데, 미국에서 구한 겁니다.

장수현: 복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함부로 안 주시는 거 아녓습니까?

L: 그렇죠.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애기로 들어보면 대략 5만 명 정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최소 제가 알기로는 3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화교출신들이요.

윤지현 : 어디로 가는데요? 미국 어디요?

L: 다 흩어져 있죠. 책자를 보니까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장수현: 책자에 나와 있는 수치가 3만 명 정도 되는 겁니까?

L: 아닙니다. 책자는 다 안 나와 있는데, 그곳의 2세들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수현: 2세들은 또 이름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L: 그렇죠.

장수현: 한국에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2만 2천, 3천 그 정도 되거든요.

L: 대만에는 공식적으로 한 5천 5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산을 할 적에 1만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것이 그 정도 수치라면. 제 추측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5천 1백 5십 명으로 나왔습니다. 5천 2백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을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이 대만, 일본, 홍콩 쪽.

장수현: 중국 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미국이 이민 문호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된 건가요?

L: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님도 가시려고 했어요. 그 때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인데, 그 때 그런 열풍이 많이 일어났어요.

장수현: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음식점을 해서 잘 살기도 힘들고 기회도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한테 여러 가지 토지소유도 제한이 되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의 나라 미국에...

L: 좀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갔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한 쪽이 어머니가 계신 분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수현: 돈 있고 가족이나 친척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연결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던데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도 다니셨습니까?

L: 네, 맞습니다.

장수현: 오래 되서 잊어버렸는데, 학교를 성대 나오셨습니까?

L: 아니요. 고대 나왔습니다.

장수현: 고대 다니실 때도 상당히 어려웠죠?

L: 어려웠지요. 저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다르고, 일단 중국어로 가르치다가 한국 선생님이 한국어로 수학이나 경영학을 가르치시는데 저희는 중국어로 부호가 머릿속에 있는데 한국어로 해버리니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지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화학원소 같은 것도 증문으로 외웠는데 한국어는 완전히 다르고, 한 2학년까지는 상당히 고생스럽다고 해요.

장수현: 못 견뎌서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L: 많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의 업그레이드 된 정도만 하면 거의 가능한데, 저희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니깐 더 힘이 들어요.

장수현: 대만 교과과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배우니깐 대만식으로 배우는데다가 수학 같은 과목도 한국에서 배우는 것과 내용도 다르고 한국은 또 빨리 당겨서 어렵게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의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수학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L: 대만 교과서를 보고 있지만 교육을 즉, 수준을 똑같이 보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 대만 고등학교 수준과 이곳의 고등학교 수준을 똑같이 보시면 안돼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일단은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고등학교와 미국에 있는 한국 고등학교의 예를 생

각해 보시면 수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여기 화교권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기를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장수현: 학생들 만나니깐 교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대만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만 쪽에서 파견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학교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깐 어렵죠.

윤지현 : 입학시험은요?

L: 대학교 말이죠?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현: 우리나라 한국학생들이 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와는 다르게 특별전형으로 뽑아요. 대학에서 뽑을 수 있는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뽑아 줄 수가 있어요.

L: 학교에 방침이 있죠. 시험도 보는데 그건 학교에 방침에 따라 보는 것이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장수현: 화교학교를 졸업한 화교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자체는 한국학생들보다는 훨씬 쉽죠. 몇 군데 지원도 가능하고 그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면 되니까. 대만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몇 군데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용이하다고 들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은데 나오는 게 힘들다죠.

L: 고등학교 성적과 면접,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시험이 있는데 어떤 학교의 시험은 너무 쉽고..

장수현: 주로 어떤 내용을 테스트합니까? 한국어 테스트 아니면 수학 같은 것을 테스트합니까?

L: 고대 입학할 때 한국어 시험공부를 했어요. 학교마다 다 다른데 성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더 쉽습니다. 한국에 사는 화교라면 아주 쉬운 시험이고 순수정원 외 학생입니다.

장수현: 성대가 예전부터 화교학생들은 많이 받는 걸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강의 들으면서 킨닝 열심히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연령 대에 속하는 분하고 말씀 나눌 때 친구들하고 같이 킨닝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시험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L: 한국 교육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화교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 언어 자체도 한국말 중국말 섞어서 하는 사람과 순수 한국말만 하는 사람과는 성대가 안 됩니다. 문장 실력을 못 따라잡니다. 말하는 것과 답안지 쓰는 것은 또 틀리고, 단어 구사 능력도 한국 학생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웠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장수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 국적은 대만으로 되어 있나요?

L: 네.

장수현: 결혼 하셨지요? 부인은?

L: 한국 여성입니다.

장수현: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화교랑 결혼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가능하면 화교랑 결혼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연애를 하다보니 좋아져서 결혼하신 겁니까?

L: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한국분이라 그런지 한국 여자가 더 좋았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한정된 상황에서 고르는 것 보다 많은 곳에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장수현: 맞습니다. 어머니가 한국분인 서강대 다니는 여학생과 애길 하다 보니깐 그래도 자기는 화교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 쪽을 따라 가니깐. 이젠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인데요.

L: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아버님 시대의 한국 사람의 성격을 싫어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무의식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도 화교지만,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현: 부인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L: 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현: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화교하고 결혼한 다음에 여자분들이 대만 국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L: 제 친구도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국적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하고 물어봤어요. 이젠 그 친구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2세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부인과 2세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장수현: 혹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를 대만 국적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네요.

L: 네네.

장수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아주 개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국적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도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부계혈통주의라서 아버지가 한국사람이라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윤지현 :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장수현: 199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L: 맞습니다. 제 딸이 이중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크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엄마 밑으로도

들어가 있고, 제 밑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현: 대략 개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했는데 (윤지현씨)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윤지현 : 고등학교 때까지 중국학생들과 교제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한국학생들과의 교제에 즉 한국 사람과의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L: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곳에서 태어났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과 친구보다는 법대 친구들을 많이 알았어요. 저희 학년대가 학생이 350명이었는데 친구 사귀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기껏 알아봤자 몇 명이고 나머지는 얼굴만 알고 친한 친구는 한정되어 있어요. 손가락 5개정도. 그 이상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법대 애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숙집이 있었는데 그 쪽에 다 법대 애들이 있어요. 그 중 법대의 한 명을 알게 됐는데 그 애랑 친하다 보니깐 그 쪽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장수현: 특히 한국에서는 생김새나 말도 비슷하니깐 자신이 굳이 내가 화교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만나게 되는 거지요?

L: 그럴 수도 있죠.

장수현: 만날 때 자신이 화교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자연스런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까?

L: 저는 좀 자연스러운 경우가 생기면 말합니다.

장수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중국인에게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화교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 때 친하게 지낸 사람들 가운데 중국과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하다 도중 중국 놈들은 그래하는 식의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습니까?

L: 있지요. 그런데 저희도 똑같이 “한국 놈들” 하고 얘기하니깐. 저는 그것에 대해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제 친구랑 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붙은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욕하는 건 누구나 다 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수현: 그렇게 받아들이 주시면 좋은데 또 그게 상처가 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가족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었구요.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그동안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장애인, 연금 등, 전체적인 것을...

L: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고, 일단 저희는 한국 관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살고 있

으면 한국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되서, 그것이 꼭 국적이 대만이라 해서 너네는 대만 대사관 가서 알아봐라, 아니면 중국 대사관 가서 알아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같이 살고 있으면 한국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신경 안 쓰고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소수지만.

장수현: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L: 그것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공문이 왔어요. 제가 연금을 안 냈어요.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연금을 계속 냈는데 내가 한국을 떠난다, 연금이 우리한테 오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낼 이유가 뭐가 있냐, 보장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살면 연금이 당연히 나오죠. 떠날 경우는 연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만하고 국가 대 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도 대만에 가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이다 이거죠.

장수현: 서로 상호주의라 그래서 평등하게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가서 살면서 연금을 불입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든지 그 나라를 떠날 때, 불입한 연금 돈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된다 이거죠. 대만 정부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똑같이 중간에 한국을 떠날 경우에는 돈 넣은 것을 안 돌려준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L: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미국은 방법이 좀 틀리게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참 대만 사람도 아닌데 국적은 대만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따라가느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대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이 돈은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 비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보장 안 되는 돈을 내겠습니까? 개인이 내가 살고 뭐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랑 똑같이 해 달라 그러면 내면 돌려주든가 만약 우리가 떠나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니예요! 대만이 지금 외교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어떻게 섣뚱 도움이 될 수 있겠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돈 안냈어요. 석달치를 안 냈는데 갑자기 공문이 와서 협회의 통장을 가입류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 받았어요. 뚜렷한 해석도 없이 단지 안 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이 온다는 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웃긴다고 봐요. 만약에 개인의 화교가 영업하는 데도 똑같이 통용한다는 건데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충분히 납득을 시키

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상황에서 단지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반발이 심할 수 있죠. 제가 볼 적에는 한국 분도 안 내는 사람은 꽤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똑바로 해결을 안 해놓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이해를 좀 못 하겠더라고요.

장수현: 그 공문이 있습니까?

L: 있을 겁니다.

장수현: 나중에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제가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쓸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식으로 강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내려주는 건지...

L: 연금을 솔직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수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대만 가면 못 받는 것이 우리가 내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냥 새로 들어온 외국인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화교들 경우엔 지금 장기적으로 한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래 동안 살고 있고 세금을 계속 같이 내 온 사람들인데.

L: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외국에서 금방 들어와서 한 5년 살다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도 연금을 내는 건지 그런 사람들도 안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 당사자끼리는 그것이 되 있어서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대만만 꼭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장수현: 저도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요구하는 건지...

L: 아마 단기는 아닐 겁니다. 단기면 별 이유가 없죠. 국민연금이라는 건 60세이고, 한국에 살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떠난 다음에 국민연금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볼 적엔 위배되는 것 같아요.

장수현: 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인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 밖에 연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같은 걸 내는 것은 요즘 어떻습니까?

L: 요즘은 아직까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문제 있어서 그림 말지 해서 부인 것을 쓰고 있어요. 부인은 여러 장 있으니까.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장수현: H씨라고 혹시 아세요? 위성TV, 타이완에서 하는 아리랑 TV 같은 데서 일하는 분인데... 여기 계시면서 보도하는 분이거든요. 그 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본인 카드는 있는데 부인 것을 신청하니까 삼성카드였는데 가족 카드로는 해주겠는데 개인으로는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수속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으로는 지금은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잖아요.

L: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수현: 화교경제인협회 게시판 같은 곳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메모들이 올라 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L: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장수현: 거주문제나 사업이나 직업 선택 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차별 당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L: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쪽 분야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듣기로는 음식점 하는 분께 물어보면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수현: 상당히 많은 분들은 세금 같은 게 외국인일 경우에 좀 ....

L: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게 있나.. 옛날에는 사실상 진짜 많았거든요. 아버지 시절 때부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제 친구도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그런 건 없네요.

장수현: 두드러진 문제는 아니니까..

L: 아직까지 그게 있으면 문제죠. 나라가 문제죠. 제가 볼 적에 그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수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사람을 뽑아서 조사 같은 걸 하는데 화교 분들 같은 경우에 연속으로 그 조사를 받았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무 조사 할 때 표적이 된다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라면 화교뿐만 아니라 한국사람 다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 못하죠. 그건 잘못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점도 규정대로 안 내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화교 음식점도 탈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교일 경우에 예를 들어 특히 한의사라든지 고소득 직종 같은 경우에...

L: 한의사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무작위로 자기 한 번 걸렸대요. 무작위로 뽑는 데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분은 몇 해 전만 해도 세무 좀 들어왔는데 이제는 없어졌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그것을 한 건 두 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얘기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두드러져야 하는데 어떤 분 있고 거의 없다면 그건 뭐... 한국 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장수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국적을 한의사나 이런 분들 수입이 좀 많으신 분들 중에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L: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제 선배도 있고

장수현: 그런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런 것에 유리하다고...

L: 화교들이 한국에 살면서 국적을 바꾸는 제일 큰 이유는 경제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바꾸는 것이 일순위일 것입니다.

장수현: 어떤 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L: 화교라는 이유로 대출이 잘 안 된다든가 큰 사업을 하려면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되는데 화교라 해서 대출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익히 다 국적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현: 신용대출은 아직도 어렵습니까?

L: 제 친구가 있는데 신용대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된다 사실 몇 년 동안 거래도 있었는데 처음엔 해 준다 했는데 화교라서 대출이 안 된다 어떤 은행이었는데... 제가 그 은행을 좀 압니다. 애기 좀 해 보니까 해줬어요.

장수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은행은 안 해주고 (그런 것이겠군요.)

L: 네. 근데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대출 케이스는 못 들어봤습니다.

장수현: 그건 아직도 어렵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용금고나 화교들 자체 신용 인천 같은 데도 부천 이런데 신용금고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화교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된 게 많죠.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L: 제가 은행을 좀 알면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명의를 어떻게 좀 부인 이름으로 돌려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어떤 은행들은 해줘요.

장수현: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사업 같은 거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L: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담보대출은 다 해줍니다.

장수현: 그거야 얼마든지... 직업선택 이게 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젊은 학생들 하고 얘기를 해봐도 중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돈 버는 것에 대한 화교학생들 중 특히 남학생들의 관심이 더 많다고 그러고 중간에 대학 다니다가도 대학 그만두고 투어 가이드 같은 걸 하고 통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다. 제 지금 생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빨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할 수 없죠. 의사도 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의대를 들어 갈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의사, 약사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다 라고 인정해 주는 직종을 일반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런 건 아닐까요?

L: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저희 선배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전부 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상당히 잘 했습니다. 제가 다닐 적에 또 한 분은 아마 우리 고대에서 이공계에 있었는데 이공계 쪽의 일호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화교였어요. 지금은 창원대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LG에 있다가 교수로 왔어요. 공부를 잘 하고 실력이 있으면 화교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화교가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한정이 되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 들어가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진급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이야 틀리죠. 지금은 중국과 이런 관계도 아니었고 이전에는 완전히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진급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후배한테 많이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대학을 나와도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겠죠. 제가 협회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게 화교 학생들이 다방면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한국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요. 중국말도 당연히 할 줄 좀 알고 IT쪽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기계 쪽에 그런데 화교들이 그쪽에 없어요. 아예 대학에 진학 못하면 그런 쪽에 안갑니다. 의사나 약사, 혼자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을 따진다면 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이런 인재들을 화교 쪽에서 좀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인재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막상 이런 사람이 필요할 적에는 못 구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모순적인 그런 병이 생기죠. 그래서 화교들이 직종이 이렇게 됩니다. 무역, 의사, 약사, 한의사, 음식점, 잡화 정도 밖에 안 되니 예를 들어 어떤 선배가 IT쪽에 잘했다 해서 사장이 되고 유망하다 이러면 애들도 이런 걸 보면서 학과 진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사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IT쪽에 직원을 구하고 싶는데 그 분야를 좀 알고 나면 없어요. 소개시켜 주고 싶어도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중국하고 교류할 때 사람 필요하면 그 분야를 좀 알아야지 말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말이야 한국 사람도 중국말 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화교를 찾느냐면 중국적 감각도 있고 한국적 감각도 있으면서 또 이 분야를 좀 아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장수현: 기업 같은데서 중국말을 잘 하는 특히 화교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 언제부터입니까? 중국하고 무슨 교역이 활발해진 이후입니까?

L: 네. 그 이후죠. 그 이전에는 화교가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단어 자체도 모르고 지금쯤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모를걸요. 젊은 애들이면 몰라요. 화교가 뭐지 뭐 이렇게...

장수현: 대략 1990년대부터?

L: 90년 이후죠. 수교 이후일 겁니다.

장수현: 92년에 수교를 했죠.

L: 지금은 또 중국이 이런 거래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빼고요. 대기업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면 되니까... 중소기업들, 소자본 어떻게 하면 중국에 가서 뭐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 줄 수 있는 게 만약 화교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 문화도 알고 중국 문화도 알면서 역할을 하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요새 조선족들 항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사람은 중국의 것만 한 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확률이 높죠. 화교들이 많이 뛰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장수현: 한국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의존하는 것이 조선족, 중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도 거의 중국식으로 오래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머릿 속에는 중국식 마인드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쪽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거의 못하다 보니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좀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연결이 잘 못 되가지고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해야 중간에 조정이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아요.

L: 이쪽에서 직원인데 월급도 받으면서 회사를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

장수현: 그쪽 사정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죠. 물론 한국 사람도 들어가서 그쪽 사람들 이용해서 사기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야 얼마든지 있는 일인데,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지가 꽤 오래 되요. 일을 시키지만 계속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요. 조선족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밖에 교육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제기 할 바는 없을까요?

L: 지금 자식들 가진 부모들, 저희 또래부터 시작해서 애기 많이 나오는 것이 학교 문제 일단 해결, 화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교 학교 문제가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저도 제일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사상이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아예 저희 2~3년 선행 같은 경우는 애들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에다 학교를 보냅니다. 대만 아니고 중국이 사실 교육률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학교를 보내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 친구도 보냈고, 첫째 학비도 싸고 그리고 귀족 학교 같은 경우도 상해 같은 경우는 약간 비싸지 나머지 귀족 학교들은 한국 돈으로 1년에 150~200만원밖에 안 하니까. 거기 나오면 영어, 중국어는 엄청 잘 할 거고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쪽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만 한국에 보내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중국으로 보내려고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어릴 적부터 중국에 들어가 버리면 한국도 모르고 이걸 좀 잘못 됐다고 봐요.

장수현: 한국에 돌아와서 살 것 같으면...

L: 그렇죠. 양쪽을 하려면 한국을 알아야 되요.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국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언어 배우는 것은 언제든지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가서 살면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장수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겠네요? 나중에 5시에 T 선생님 그 분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만나 뵙고 여쭙 보려고 그러는데....

L: 맞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윤지현 : 교육문제라고 할 때 수준이 낮다는 문제예요?

L: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분이시잖아요. 중국말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애를 한국학교 보내가지고... 그건 노인네들 생각이고 한국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부터 중국 보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언어 같은 것은 가면 배웁니다. 말 배운다고 화교 학교 보낸다면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 이예요. 사람 자체를 똑똑히 만들어야지 그게 중요하지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수현: 화교 학교가 교육시킬 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하계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L: 일단 교사의 질을 먼저 좀 고쳐야 되는데, 그 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아예 중국에서 다 데리고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과감히 학교에서 돈을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못 고칠 것 같아요.

윤지현 : 왜 한국학교로만 보내는데요?

L: 저는 한국학교로 보내려구요.

윤지현 :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L: 한국은 사교육비가 너무 세요. 학원 가고 비용이 세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월급을 타서 애들한테 다 쓰는데 이걸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아예 그럴 바에는 중국에다 보내면 확실히 편합니다. 중국하고 한국 1시간 거리인데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끝내 어떻게 되나 하면 화교 학교가 심하게 얘기하면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끝내 이렇게 가다가는.. 다들 저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중국에 보냅니다. 서서히. 이게 끝내는 한국 화교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갈수록. 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애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업차 옮겨 버렸어요. 한국에서 안 사는 거죠. 중국도 이제 개방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끝내는 떠납니다. 점점 없어지죠.

장수현: 지금도 벌써 학생 수가 적어서 고생을 하는데...

L: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장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선생님들을 쫓아 낼 수도 없는 거고...

L: 그럼요.

장수현: 중국으로 보내는 건 단순히 비용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중국인의 피를 타고 태어났고 중국인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는 이러니까 이왕이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자꾸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L: 그렇죠. 제가 상해 귀족학교를 한 번 방문해서 훑어 봤어요.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중국도 교육방침이 미국하고 비슷해요. 한국이 대만하고 좀 비슷한 편이고, 중국은 미국하고 좀 비슷한 편이라 이해에 가까운 쪽으로 시켜요. 그 학교를 갔는데 놀랐어요. 피아노 같은 게 있는데 한 대 있어서 여러 명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가 좋다보니까.

장수현: 학교 이름이 뭐였죠? 저도 예전에 누가 좀 조사해 달라 해서 조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L: 중국의 아버지가 하이 클래스인 애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끝내는 앞으로 다 중국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이예요. 아이의 발전에 있어서도 좋은 거죠.

장수현: 실제 한국사람 중에도 벌써 어릴 때 중국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다니는 애들도 꽤 많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거기서 하는 분들도 아닌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뭔가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 놓으려고...

L: 맞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한국 학생 5명을 봤습니다. 금방 들어가서 중국말 하나도 못해요.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7살, 8살밖에 안돼요.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는 분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나오지 나머지는 학교에 들어가 있어야 되요.

장수현: 한국에서 학교 보내면 과외 시켜야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외국에서 시키는 게 낫겠다, 어릴 때 미국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육 시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L: 옛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많았었는데 이제 좀 중국 쪽으로 빠지죠. 중국도 후진학교 보내면 안돼요. 보내려면 제대로 된 학교에 보내면 애도 괜찮아져요.

장수현: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화교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L: 글썽요. 그건 제가 학교에 종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아마 담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장수현: 또 하나 참정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지방정부에 주민이니까 지방정부의 선거권 같은 것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L: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장수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L: 그렇죠. 처음엔 지방이겠지만 끝내는 대통령 선거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이 다음의 얘기겠지만.. 첫 단추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더 확고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죠.

장수현: 어떤 분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2만 몇 천 명밖에 안 되는데 선거권 가진다고 해서 화교들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익단체가 되기도 힘들 거고...

L: 그건 아니고 지금이야 저희가 거류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F5로 되어 있지만 끝내는 순수한 영주권 도입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할 거예요. 동등하게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지 참정권이고, 그것만 된다면 나머지는 사실적으로 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과 동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 풀리죠. 지금 여기에 인권 문제랑 다 해결되는 건데...

윤지현 :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L: 그건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이 나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되어야지 미국에서 살기가 편해지잖아요. 미국 사람과 동등하게. 저희도 똑같이 여기서 그런 거죠.

윤지현 : 민족성을 보관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L: 해외에 화교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과는 좀 틀립니다. 싱가포르를 중국계니까 빼놓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곳은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렇다 해서 민족을 잊어버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좀 틀립니다. 한국 분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니면 중국이 해외에 그렇게 널리 퍼져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한국하고 틀립니다. 말레이시아는 화교가 500만 명이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화상대회를 참석했는데 참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영화배우부터 시작해서 사회자, 앵커 다 있어요. 그 나라에 500만 명이다 보니까 다 있어요.

장수현: 각 분야에 화교들이 다 있어요.

L: 저희도 2005년 화상대회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장수현: 내세울 것이 너무 없어서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관리들도 보면 욕할 것 밖에 없으니

까 화교들 모여들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L: 제 친구가 국적을 바꿀 쯤에도 좀 까다로웠어요. 몇 급 공무원 이상 사인도 필요하고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형식적인 것인데... 한국에 이미 오래 살고 한국에 거주권이 다 있는 사람은 사실 불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좀 가려야 되겠죠. 범법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한국에 리스트 다 있어요. 그 외에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을 국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한국 사람도 세계에 나가서 많이 흩어져 사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면 똑같은 입장이지요.

장수현: 저도 사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신청서류까지 냈다가 그 때 중국 조사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국적으로는 안 받아줘요. 그 때만해도 개방한지 얼마 안 되고 91년에 제가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장기는 안 되고 단기는 되는데 그 당시 국교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중국 조사를 위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영주권이 있으니깐 일단 자격은 되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서 그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서류 다 해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L: 그 때는 저희 화교들도 갈 적에 공안이 꼭 따라다녔어요. 제 친구가 80년대 중국에 들어갔어요. 무역하고 그랬는데 공안이 따라 다녔어요. 지금이야 그럴 필요도 없고...

장수현: 그 때 그런 선택을 할 때 워낙 다급하니까 저는 미국 시민이 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영주권 가지고 미국에서 사시기로 하셨던 분인데 저는 미국에 갈 때부터 영주권 안 한다고 처음엔 거부했다가 영주권 안 받으면 나중에 미국 들어갈 때 비자도 잘 안 나올 거라고 가족이 미국에 사는데 유학비자 받아내려면 불법체류하기 쉬우니까 안 줄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영주권도 받았는데 하마터면 미국 시민까지 될 뻔 했어요.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끔 하십니까?

L: 가끔은 아니고 요새 와서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을 좀... 앞으로 중국의 발전 상황이 밝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장수현: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혹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싫다 이런 건 아니지요? 어떤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그렇군요.

L: 그렇죠. 저의 개척을 위해서 중국을 가볼까 이런 것이지 한국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집안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을 위해서요.

장수현: 아직 중국 화교에서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L: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한국분이고 그래서... 제사는 그래도 중국식으로 불변하고 어릴 적에도 그 외적인 거는...

장수현: 의복이라든지...

L: 어릴 적에도 안 입었어요. 입은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싫었습니다. 그 옷을 안 입었어요.

장수현: 중국 화교 분들 결혼식 할 때는 전통적인 것이 없습니까?

L: 결혼식은 한국과 똑같고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할 때 여자들이 중국 예복을 입죠. 차이나 복. 치파오.

장수현: 남자들은 거의 또 안 하죠?

L: 남자들은 양복 입죠.

장수현: 세계적으로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는 여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윤지현 : 집안에서 쓰는 언어는요?

L: 저는 한국말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 아이도 한국말 해요. 엄마가 한국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수현: 그건 사정이 좀 다를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한국 분이 아닌 가정과는...

L: 그런 아이들은 중국말을 많이 합니다.

장수현: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절친한 친구...

L: 그래도 저는 친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친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만나고 있고 지금도 멤버도 있고 오래된 친구죠. 화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오래된 친구죠.

장수현: 화교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일하시기 전에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L: 음식점도 해보고 무역도 해 봤습니다.

장수현: 그럴 때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분들과 거래를 했습니까?

L: 그 때는 이제 한국 분도 만나서 술자리도 해야 되고 그때 가면 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와 많이 만나는데 그럴 경우는 줄어들죠.

장수현: 특별히 화교이기 때문에 만난다 이런 의식이 강한 건 아니죠?

L: 한국 분도 있는데 만납니다.

장수현: 연구하는 사람 입장은 혹시 화교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에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의외로 답변은 특별히 화교를 의식하기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다 오래 동안 같이 지내오던 관계 때문에...

L: 아마 제 친구들도 다른 분이면 저하고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한국 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창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만나면 그 쪽으로 친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나머지 한국 분은 생활에 있어서 아는 거고.

장수현: 정말로 마음 털어 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들은?

L: 역시 화교겠죠. 그건 한국 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장수현: 혹시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한중간의 무역 분쟁이나 대만하고 한국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어떤 생각이나 특별한 입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L: 저는 꽃게 납 문제 있잖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안에다 납을 넣을까 납 넣는 시간 있으면 다른 일을 할 텐데 상식으로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수입하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유는 항상 장난은 수입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파는 사람은 수입하는 사람의 입맛 다 맞춰줘요. 제가 중국에 가서 관리들을 만났는데 그 쪽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을 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꽃게를 수출 못 할 텐데 수출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나라 망신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이 뜻은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TV에서 보면 중국산은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는 사람이 다 믿어요. 장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중국 가도 고춧가루, 생선, 마늘 다 좋아요. 제가 다 먹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히 수입하는 사람이 거기에 돈을 맞춥니다. 아니면 타산이 안 맞죠. 질 나쁘면 질 나쁜 대로 가져옵니다. 또 그걸 가르쳐 줘요. 요새는 고춧가루 하도 심해서 가루로 안 들어오고 장으로 만들죠. 한국에 들여와서 말려요. 또 고춧가루 되죠. 그럼 완전히 썩은 제품이죠. 그걸 수입하는 사람이 가르쳐 줘요.

장수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한 번 더 걸러서 판단을 하시네요. 그게 단순히 화교라는 것 뿐 아니라 일단 관련해서 사업도 해 보신 적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보도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뉴스 들으면서 중국 놈들이 또 저렇게...

L: 그렇죠. 저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죠. 보도에 중국 사람은 다 저렇게 나쁘게 들어오는 구나 생각하지 수입업자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 안 하거든요. 액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수현: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죠.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농약이 엄청 많고...

L: 저희도 예를 들어 만두를 수입하면 재료를 저희가 다 제공해야 되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제시를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요. 단가가 안 맞으면 싸구려 써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국도 좋은 제품이 있어요. 좋은 제품 들여오려면 한국에서 타산이 안 맞아요.

장수현: 아이들 나중에 결혼 할 때 특별히 화교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 있습니까?

L: 그런 건 없습니다. 부모가 배우자까지 정해준다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장수현: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은 있습니까?

L: 저는 사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대만 국적을 갖고 있다 해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만약 제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죠. 외국기업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필요성을 특별히 못 느끼는데 앞으로 그럴 기회가 되면 바꾸고 싶죠.

장수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L: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커서 알아서 선택하게끔.

장수현: 아이는 대만 국적? 몇 살입니까?

L: 양 쪽 다 있습니다. 6살입니다.

장수현: 법이 바뀐 다음에 태어났습니까?

L: 그렇죠.

장수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문제는?

L: 학교문제는 아이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모가 판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커서는 자신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수현: 한국학교에 보내고 화교학교에 보내고 할 때 부모로서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L: 일단은 교육문제에서는 화교학교가 못 따라가죠.

장수현: 질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학교에 보내면 화교라고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L: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노파심을 갖는다면 그건 그 때 닥쳐서 생각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땐 저처럼 중국으로 보내든지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요. 초등학교만 다니면 애들은 모릅니다. 애들끼리는 몰라요. 만약 한국말 잘 못하고 이럴 경우는 모르지만, 안 그럴 경우는 이유가 없죠.

장수현: 화교학교의 교과과정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워낙 학교 교육 수준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밖의 문제는 오히려 관심 밖일 수도 있지만 교과과정 자체도 한국사회에 훨씬 더 적응하기 쉽게 대만식 교육체제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L: 지금 우리 애들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선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대만 교과서에 배타는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다면 그 언어 자체를 습득하기 힘들어요. 그림을 안 본 이상 그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교과서도 저쪽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쪽 나라로 온다 해도 여기에 맞게끔 수정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문화가 틀린데 그대로 전달한다면

애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장수현: 현지화를 시킨 내용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혹은 중국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대만식으로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 식 교과과정을 가져 와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L: 사실 저는 중국 교과서를 못 봤어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교육이 좋다면 당연히 중국 교과서를 가져 와서 해야 되죠. 사상 빼고, 중국 사회는 또 틀리니까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것 빼고 나머지 교육이 좋다면 들여와야 된다고 봅니다.

장수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교사회 내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L: 저희 동창들과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아예 중국에서 책하고 중국에서 책 수입할 필요도 없이 중국정부에서 아마 줄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있는 게 책인데... 선생님까지 수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장수현: 앞으로 화교사회 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대만 양쪽이 있으니까 출신은 우리 화교는 대부분 대륙 쪽 출신이고 또 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쪽은 대만하고 친척도 많이 살고 있고 현재 그 쪽으로 넘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지원도 주로 이쪽에서 받았고 국적도 이쪽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 사이에서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모순이나 갈등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지난번에 모여서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회의가 엉망이 됐다고. 대사관 측에서 앞으로 이런 곳에 다시는 부르지 마라는 식의 말씀도 하셨는데...

L: 일단은 대다수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정치 논리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화교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리 흔들면 이리 가고 저리 흔들면 저리 가는 식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참 안타깝죠. 화교는 화교 자체만 똘똘 뭉치면 되는데 하나의 정체가 들어오고 또 하나의 정체가 들어와서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려 가지고 원래는 같이 괜찮았는데 관계가 안 좋게 꼬이고 참 상당히 문제가 되죠. 다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생략)

장수현: 화교사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륙 쪽에 기울어진 사람 숫자가 꽤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까?

L: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장수현: 중국 쪽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L: 제가 봐도 100% 중국으로 가야죠. 대만하고 연고가 없어요. 국적만 대만이지 대만하고 사

실상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 고향도 중국이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좀 더하면 더했지 그런 것 없습니다.

윤지현 : 그렇다면 왜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셨어요?

L: 그 때는 한국과 중국이 교류가 없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국가의 국적은 가질 수가 없죠. 그럼 한국에서 살 수 없죠.

윤지현 : 92년도 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생겼어요?

L: 저는 아직까지 중국국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한 10년 이후라도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불안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1당 체제이고 공산주의라는 게 있지만, 경제면을 본다면 사실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중국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국적 바꾸는 문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중국 국적 가져서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장수현: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L: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제 생각은 불안해서 그럴 겁니다. 화교가 해외에서 살면서 항상 그런 쪽은 조심하죠.

장수현: 중국 대사관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국적 변경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L: 일부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적 바꾸려고 해 주십시오 하면 당장 해주죠.

장수현: 어떤 분은 또 오히려 대사관 쪽에서 괜히 바뀌 봐야 한국 들락날락 할 때 중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비자 받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고...

L: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후면 10년 좀 더 가야 되겠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NO비자 될 텐데... 그 때 가서의 문제죠.

윤지현 : 애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화교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식을 키워주고 있으세요?

L: 솔직히 말해서 제 아이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얘기 한 적도 없고 저도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일부러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건 있었어요. 집에서 중국말 해라. 그 외에는 교육을 바로 받기 때문에 심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굳이 가정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한국 학교를 계속 보내다가 대학교까지 보낸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죠. 너는 중국 사람이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주입을 시키겠죠. 그런데 우리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건 불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 다음에는 좀 틀릴 수가 있겠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게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뭉치는 것도 그렇고 해외 나가도 그렇고 이것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장수현: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필리핀 쪽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보다는 훨씬 더 토착화, 현지화가 더 잘 되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국인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난 타일랜드 타이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L: 제가 신흥여행을 태국으로 갔을 때 가이드가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저한테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다 어떻게 화교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쪽에서 자기네 아버지도 중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민족들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잊어버립니다.

장수현: 워낙 오래 동안 세계의 중심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왔으니까 그런 자부심도 안 있겠습니까?

L: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캐나다 학교를 다니지만 꼭 2, 3시간은 중국교육을 부모가 별도로 시킵니다. 미국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수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5시에 또 T 선생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 <사례 9>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12일, 연희동 중국음식점 眞北京

면접자: 장수현

대상: T씨 (남, 40대 후반, 화교중고 교사)

#### [녹취 내용을 푼 것]

장수현: 요즘 (이곳 연희동 중국음식점) 경기는 꽤 좋은 편인가요?

T: 연희동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돈 있는 사람은 연희동에서 활동 안하고 외부로 나가고, 돈 없는 사람들이 남는데 사람은 없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장수현: 제가 한동안 인천 자유지역에 대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꽤 어울려 가는 분위기예요.

T: 어울려지려고 하는 이유가 인천시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산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화교에 대해 억압하지 말라고 압력이 들어와요. 인천 시

청 자체도 그것에 필요성을 느끼죠.

장수현: 차이나타운을 개발 할 계획도 있고.

T: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어요. 원래 차이나타운이 3군데 있는데, 소공동, 북창동, 남창동. 이쪽에서 주로 화교들이 많이 살고, 서소문 법원 있는 쪽, 관철동 등. 전체가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박대통령 계셨을 때 정책에 의해 철거가 됐어요. 그것에서 배타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대외 이미지가 있어요.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위시해서 한국에 있는 대외무역 중에서 80% 이상이 화교 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2의 동남아가 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서 그 뒤로부터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는 장개석 총통이 반공 대륙을 위해서 작전을 짰는데, 남쪽은 해남도하고 대만이 들어가고, 중국은 양자강 저장성 입구 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한국인데, 한국 해군을 통해서 수송을 해야 하니까 진해항만을 빌려 달라고, 장개석 정권이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작전 계획이 다 무산이 됐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을 생각한다는 취지 하에 가장 한국에서 세력이 강한 화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는 전쟁이 시작되어서 모든 화교 세력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하고의 무역 라인이 다 없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화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모든 법률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온 광복이라) 일제 시대 모든 세력들이 선점을 하고 있었고, 재교육만 받고 재임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이 일본 법률을 연용화 시켰어요. 한국화를 시키기 이전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인들도 점차 어려워졌고 외국인에게 잘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안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외국인이 무엇을 잘못하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외국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재를 가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개혁이에요. 2번이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1인당 얼마 이상 화폐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 사람은 그 당시 돈을 정리하고 일부분은 밀지고라도 바꿨어요. 그 당시 하루아침에 돈이 없으니까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사용했어요. 동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도 화교들이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당시 한국인보다 화교들이 상술에 뛰어나고 일찍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한을 하게 한 것은 외국인으로서 편리할 때는 국내거주자로서 간주를 하고 국내거주자로서 편할 때는 외국인으로서 간주를 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어 화교가 무역회사를 차린다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 온 증명이 있어야 되요. 화교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돈 벌었는데 그걸 외국에서 송금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

제는 한국 법에 폐쇄성이 있어요. 모법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시행세칙 밑에 지침으로 내려가면, 지침은 자기 안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겐 편리한대로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인은 그것이 없잖아요. (직업에 많은 제약을 받음.) 그래서 화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일반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대리까지는 쉽게 올라가도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T: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완비되지 않아서 나가기 시작해요. 1차적으로 제일 많이 나갈 때가 73,4년도에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2차 석유파동 때도 많이 나갔고, 80년대, 그 때 전두환 대통령이기 전에, 첫번째 IMF 왔을 때 전후로 많이 나가게 됐어요. 화교 전체가 23,0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정도도 안돼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도 나갔지, 때로는 일찍 깬 사람도 많이 나갔지, 미국으로 많이 나갔지,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연줄이 없는 사람만 남게 됐고, 혹은 나 처럼 “너희들이 다 가면, 난 한국에서 더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다 나가게 되니까 화교가 위축되고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 그래도 화교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직종하기는 어렵고, 유독 옛날부터 개발된 것이 의학, 한의학이 개방되고 그 이외에 다른 직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네 가지 칼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3가지 칼(이발하는 剪刀, 요리를 하는 菜刀, 천을 자르는 服刀)만 가져오면 괜찮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포목점, 잡화점, 음식점. 이것들은 우리 화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업종이에요). (네 가지 칼 중)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

장수현: 제가 듣기로는 3가지라고 들었어요.

T: 나머지 한 가지는 목욕탕. 이것이 화교들의 일이었어요. 옛날 한국 목욕탕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 하는 목욕탕이었고, 이발소도 거의 중국 사람이 했었고, 포목점도 거의 다 그랬었고, 그러다 점차 한국 사람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음식점까지 한국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 그래서 화교들이 의학계통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무역하긴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사 같은 거 하려 하면 거의 다 한국사람 명의를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쟁, 재산분쟁이 일어나 한국 사람에게 다 뺏기게 되고, 법률적으로도 소용이 없고, 화교가 한국에서 상술이니 뭐니 다 뚜렷해도, 화교들은 원래 법을 잘 몰라요. 법을 모르는 이유가 신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했으면 그 한마디가 곧 법이에요.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도 그건 다 해주는 거지만 소위 말해서 화교들 사회는 법률이 필요 없어요. 별도로 문서화된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 화교가 위축기가 오게 되는데 그 위축기에 뭐가 나타나나 하면 보따리 장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화교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가 힘들니까 화교들이 한국에 있는 사과, 배, 오징어 이런 것들을 잔뜩 중국(대만)에 가져가고, 중국(대만)이 그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발전했으니깐. 한동안 보따리 장사가 상당히 많았었고, 나도 대만에 방문하러 갔을 때 돈을 200불밖에 못 갖고 나가니까, 가서는 일주일 혹은 한달이나 있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오징어, 배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보따리 장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불밖에 못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다녀야 할 텐데, 학비니, 체재비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발전된 거야. 그래서 화교 애들이 보따리 장사가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덩달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화교들은 보따리 장사하면서 한국 것을 많이 사고, 그래서 사과, 배, 오징어 등을 들여가고, 이러한 무역이 이루어졌어. 소규모이지만 1년에 화교들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야. 나도 나갈 때,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면서 대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 계기에 대만과의 항공편이 줄어들게 되요.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가 힘들게 되요. 화교들은 제2의 보따리 장사의 대안을 중국 산동으로 하게 되요. 중국에서 필요한 옷가지, 혹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배가 통항되니까, 그 분들은 거의 배에서 생활해요. 일주일에 단 한번 정도는 10시간 정도 육지에 있고, 거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물건 정리하고, 새 물건 해야 하고,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생활이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화교들의 가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교들 이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절차는 화교협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통계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자가 실권도 가지고 있고, 경제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해오다가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신문 지상에서는 공식적인 보따리 팀을 만들어서 1차, 2차로 신문에 났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화교들이 머리를 써서 포장업을 많이 하게 됐죠.

장수현: 포장업요?

T: 물품 포장. 중국에서 대만에서 손님이 와요. 손님이 “나 이런 옷 필요하다” 라고 해요, 동대문 남대문 옷시장이 화교들 손에 있으니까. 물건을 화교한테 사요. 어디 고쳐 달라고 해서요. 그 곳은 물건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금방 고쳐요. 화교들이 중간에서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니까, 그것으로 돈을 번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쪽은 영세하지만 대규모

외상들이 와서 하니까 돈 엄청 번 사람이 많아요.

장수현: 중간 처리만 해주는 것이군요.

T: 중간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업이 대외무역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쇄퇴기에 접어들게 되요. 쇄퇴기에 접어드는 이유가 한국이 비싸니까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화교들이 중국으로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운데서 손님을 뺏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안 오고 중국으로 가게 되요. 그래서 일부 화교들은 아예 거점을 중국으로 옮겼어요.

장수현: 위해 가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번 분을 만나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T: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때돈을 벌 때는 한국에서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간 것이나, 한국에서 대만으로 가져갔던 것이, 중국으로 옮겨 간 거예요. 중국옷이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샘플만 가져다가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루트가 되는데, 포장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점차 하나씩 쇄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체적인 과정인데, 지금 화교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비록 지금 많이 개방이 됐고, 제일 먼저 개선이 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세금 문제. 화교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국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세법에 있어 외국사람이라 세금이 높아요. 그래서 화교들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처리 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어요.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을 제한을 하려다가 화교가 규정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국적법이에요. 국적법이 나오게 된 동기는 . . . 참 재미있는 것이 . . . 국적법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법이 통과가 됩니다.

장수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T: 1990년도에 수정한 한국 교육법에 대학교를 들어 갈 수 있는 요건, 외국인에게 정원 외 입학 허락하는 요건 하나가 순수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국인 학교에서 12년간 재학자. 순수 외국인이라는 것은 부모가 다 외국인이여야 한다는 것에서 나왔고, 화교는 순수 외국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순수 외국인으로 되었고, 엄마가 한국 사람일지라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대학교를 들어갈 때 대사관에서 국적 증명서 떼어 달라고 하는데, 1992년도 김영삼 대통령일 때, 그 당시에는 화교들에게 문제가 안 생겼는데, 최형우씨 자제분이 이화여대 들어가는데 부정입학으로 한동안 신문에 떠들썩했어요. 그 당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게 됐어요. 그 때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들어갔어요. 여기 문

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 사람을 제한하려고 해서 했던 법률인데,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 화교들이 한국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장수현: 그게 몇 년에 시작되었습니까?

T: 그게 법은 9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것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인 92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강화가 되기 시작하니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 교육부에 얘기하니깐 그건 “순수 외국인이 아니다” 하고 “이것은 편법을 하려는 사람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 원래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당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복지부동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려고 해요. 거꾸로 나한테 받아줄 수 있는 조항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한참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 당시 어떤 학생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 . . 아니 그 전에 어떤 학생이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사람은 엄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이 다시 순수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혼해도 이제 순수 외국인이야. 그래서 화교 사회에서 그 당시 중국 국적으로 엄마가 입적해도 되는데 입적하지 않는 이유가 화교로서 한국사회에서 살려면 너무 벅차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국적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사실 이혼 도장 찍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혼 도장을 찍었다 하면 이미 이혼된 상태에서 “어짜피 우리 이혼했잖아” 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수현: 자녀를 위해 이혼한 것인데, 그게 실제 이혼으로 이어져서 . . .

T: 그 다음에 내가 전 세계적으로 비인륜적 법률이라고 떠들고 다녔잖아. 제가 교육부에 얘기했어요. 중등 이런데 가면 안 받아줘요. 외국인은 지자체 지방 무슨 과에서 관리해서 거기서 안 해주고, 실제적으로 법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렇게 편법으로 이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대만) 국적으로 입적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입적한 날이 너무 짧다, 일이 년도 안된다” 해요. 사실 입적됐다고 하면, 그는 이미 외국인으로 순수외국인으로 봐야 하거든요. 교육부 자체에서는 서류만 봐서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혹시 내가 문교부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해서예요. 걸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르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 거짓 이혼을 했다 해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어서, 서류심사가 일주일이면 끝났는데 이제 서류심사만 한달 정도 걸려요. 거기서 전화로 확인해. 실제 이혼인지 아닌지. 거기서 탈락된 사람도 나와요. 한국조선족 신문에

투고를 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자는 죄인인가?’란 내용을 투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지 엄마가 한국인이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한국대학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 . .

장수현: 화교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T: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장수현: 한국대학에는 거의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한국 일반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거의 힘든 상황이거든요.

T: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고, 받아주질 않으니까 . . . 그 당시 학력고사 시절에는 외국인을 못 보게 했어요.

장수현: 외국인은 안 보니까 . . .

T: 외국인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 . . 못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학교 학생 하나가 서울대 가겠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럼 나는 검정고시를 봐서 한국이 인정하는 학력을 갖겠다” (라고 했지요.) 내가 보고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다 패스하고 학력고사 보려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안 된다. 교육부에서 (유권해석)해서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해도 시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학생들은 한국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어요. 대학교 못 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이상 이걸 해야 할 텐데(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속인주의 국가에서 속지주의 국가법을 가지고 오면서 법률적으로 충돌이 나는데, 그 충돌을 이 법률을 제정할 때는 그 해당된 이익단체 혹은 제한되는 단체의 실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묻고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법이 제일 선진 법이기 때문에 미국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모든 외국인 법률이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걸 알고 고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요. 교육에 대한 가장 큰 반대단체가 누구냐 하면 전교조죠. 전교조, 참부모연대 등, 사실 그 팀들이 한 팀이에요. 서로 서로 소속되어 있어서.

장수현: 그 쪽은 어떤 논리입니까? 반대하는 것이?

T: 그 쪽에서는 “교육개방은 안 된다. 외국인 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 학교를 들어오게 해서 그 외국인 학교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한국인은 외국인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었는데, 그것을 갖다 못 하게 하고 . . . 나는 방청객으로 몇 번 나갔어요. 전교조 팀들과, 여러 가지 개방 반대 팀들, NGO들, 내가 가니까 플랭카드 걸치고,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당신들 너무한다. 당신들은 나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인 거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다. 내가 하는데, 당신이

반대할 권리는 담장 밖에 있다. 내부에는 어떤 문구도 안 된다. 단위로 발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내 발표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 당시 거기 인터뷰 쉬는 시간에 얘기했어. 그래서 NGO들이 다 철수하기 시작했어. 그날 토론 공청은 계속 진행됐는데, 그 중간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재야세력들이 등 뒤에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장수현: 지금 통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외국인 학교 설립과 관련된, 화교학교를 외국인 학교로 인정해 주는 문제지요?

T: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1980년도에 그 당시 서울 교육청에서 외국인학교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교학교를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학교 허가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중화민국 정부에서 받아요. 중화민국 정부에서 허가한 허가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학교를 설립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런 법률이 없으니까, 학교를 설립하려면 뭔가 근거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나라다” 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때 뭐 생각한 것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 어디 있었냐 하면 외국인단체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외국인 단체는 이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학교도 교육단체니까 교육단체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완전히 미국법을 가지고 그대로, 미국법이 아니라 미국 상황을 그대로 한국에서 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 가입 저지를 했어요. “이 법을 취소를 해라. 이 법이 실시된다면 한국 모든 화교 학교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다 해산해야 하지 않느냐?” 해산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 상황은. 그래서 난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고, 화교학교 전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 학교는 등록이 됐는데 . . .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화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어차피 학교 전체가 화교 비용으로 돈을 내서 투자해서 하고, 운영도 안 되니까, 화교들이 자기 스스로 교육세도 내고 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왜 미국식으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고 선생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속으로 나뉘야 되고, 재단도 둘로 세워야 되고, 교장도 둘로 세우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다” 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중에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며 등록하라” (는 것이었어요.) 등록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는 교육구청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해요. 갈라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학교는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자료를 두 군데로 보내야 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런 상황인니까, 우리 모든 것을 교육청에다 보고할 테니 2부를 달라하면 내가 3부 줄 테니 그것을 교

육청 밑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통계자료상에 중복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난 고등학교 선생인데 중학교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학교를 못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럼 그것이 중학교 선생이요, 고등학교 선생이요?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해결을 봤는데, 외국인 단체를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 대학교 총장이 문교부 장관이 되어서,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내렸냐 하면, 공립학교의 전기요금에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교육기관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말라 해서, 각 교육기관은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하니깐 “당신네는 학교가 아니다.” “왜 학교가 아니냐?” 나중에는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에요. 학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 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그 때 학력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 때 2차 IMF가 터져서 . . . 그럴 때면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학교단체를 외국인단체법으로 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모순 된 것이다.” 공동경쟁 하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IMF 그 당시에 철폐를 시켰어요. 철폐를 시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교 관계자를 불러서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그 일 때문에 교육부 들락날락 열 몇 번을 했는데, 결국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T: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보건 위생법이 걸리게 되요, 외국인 학교는. 보건위생법에 걸리게 되는데, 환경위생법이라는 것은 보건환경, 학교 주변에 반경 50m 안에는 절대 정화구역, 반경 200m는 상대 정화구역, 이 안에는 술집이며 당구장 같은 가게들이 있을 수 없게 했어요.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좋은 의미지만, 처음 설립할 때 그런 것을 제재하지 않다가 외국인단체법이 생기고도 제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육법상에 학교라고 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우리학교는 처음 왔을 때 허허벌판이었다. 근데 한번은 우리가 외국인단체법에 등록을 했을 때 교육구청에서 왔어요, 환경조사한다고. 학교 주변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해서 “어떤 것이 저촉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판단하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계속 술집들이 생기더라구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당신들 왜 하나?” 그런 얘기도 못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또 그런 얘기 꺼내기도 힘든 입장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술집은 없고, 그렇지만 (뒤에 와서는) 그런 곳이 걸려서 우리 학교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직경 50m 절대 정화구역 안에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허가가 나왔는데, 다른 학교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학교는 도심에 있잖아요. 도심에 술집들이 많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걸 설립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교육부 측에서는

“외국인을 위해서 내국인의 재산을 침식시킬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원래 이 학교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외국인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는 “기득권을 인정을 해야 하고, 새로 설립되는 학교는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로 몇 년 걸렸어요. 끝내는 내 의견을 들어주게 되었고, 인정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학력 문제예요. 교육법상에 외국인학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타학교로 넣어 버렸어요.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외국인단체법을 했을 때, 이 외국인학교를 기타학교로 한다 하면서 인증을 해준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있었던 공문을 완전 무시하고,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외국인 학교니까 내국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외국인 학교가 하루아침에 허가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새 허가를 주고 옛 허가를 쥐야 할 텐데, “무조건 옛 허가를 가져오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복사 몇 장 해두고 써라.” 그 다음에 새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사하지 않았다면 큰 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교육법상 기타학교로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학력 인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법상 학력 인정은 한국 정부에서 검정 받은 교과서를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에서 한국 교재를 써서 한국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외국인 학교가 아니죠. “외국인 학교 특성상 외국어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옛날에 외국인 단체가 있을 때 그 당시 지적 사항이 되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한국어 혹은 한국 역사, 지리, 문화를 가르치면 인정하는 것으로 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하자” 해서 (했더니) “한국의 역사, 지리 등을 3시간 이상씩 가르쳐야 한다” (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여서 교과목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언어, 문화, 지리를 하면 교과목이 가중되어서 안 된다. 통합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 주당 2시간 이상씩 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이 2001년도부터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그 당시에 경과 조치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외국인학교를 졸업해서 한국대학 간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을 갔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학교 다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전체 학력 취소 조치가 전부가 내려져야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려 하느냐? 거민중 한 날로부터 재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거민증을 해준다고, 그 전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가 학력 인정이 안 되네? 그렇게 되요. 그래서 우리학교 출신은 전학을 못 가요. 그 다음에 우리학교 중학교 졸업해서 한국 고등학교를 못 가요.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장수현: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거죠.

T: 그래서 빨리 인정이 되서 해야 될 텐데. 여기에 관한 사항을 대학교 학력 문제를 국회의원  
과 여러 교수에게 이런 문제를 보내주고,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나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소  
용이 없어요. 정부가 의지력이 없는 한 그것이 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외국인에 관한 법  
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학력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  
부에서 안 움직여요. 재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학교에서 하니까, 교육부에서 하면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재정부에서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초에 EBS 교육 “WTO 체제 하에서 교육개방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저보고 패널로 참석하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WTO 체제에서 교육은 상품이거든요. 정부  
에서는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공방이 됐어요. 그 때 패널 이외에 일반 패널 중 대학  
생이 말하길 “교육은 상품이다. 상품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어찌 노조가 생기느냐? 그럼  
전교조 존립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게 전교조의 가장 큰 약점이지요.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자체가 상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날) 토론 석상이 난장판이 됐어요. 학  
부모 한명이 참석했는데 그 사람도 전교조 교사예요. 다 한 팀이죠. 재정부 사람이 이야기  
하니 매국노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한국 교포를 가르치는 무수히 많은 외국인  
학교한테 한국이 허가했는데, 외국도 똑같이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때 내가 생각한 것이 “한국이 민주화 되  
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왜냐하면 민주화란 자체가 국가 민주가 아니라 생각이 민주화 되  
는 것이죠. 공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법률이 아직도 그 자리  
에서 맴돌고 있어요. 학력 문제가 빨리 통과되어야만이 화교들이 다른 걸 배우고, 그리고  
입학 자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수현: 학교로 인가를 받는데 몇 개?

T: 16개 정도 받았습시다. 자세한 것은 교육부 자료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전에는 공포가  
됐는데, 요새 사이트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들이 없어졌어요. 요번에 외국에  
게 영주권을 주어야겠다고 해서 내가 그 뒤로 자료도 주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F5 공청  
회 때 내가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해서 의견을 달라고 . . .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은 미국  
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화  
교지만 외국에 유학 가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데, 그걸 제한 한다면 외국 나가서 공부  
못하죠. 나중에는 이부영, 정대철 이라든지 하는 사람에게 다 보냈어요. 이렇게 놓아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조목조목 경과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을 냈  
는데, 그래서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재산 30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정  
당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끝내는 충족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

우 우리 아들이 아직도 F5를 가질 수 없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해외 생활 근거지 없고 사는데 무조건 다 귀화되어야 하고, 옛날에 F4 가진 사람은 무조건 다 F4를 가져야 되고, 새로 신청한 사람은 제한이 있어야죠. 그런데 무조건 다른 외국 사람을 생각해서 화교까지 제한하는 것은 화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그 당시 모법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세척에서도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침이 재미난 것이, 그 지침을 공개를 해야 되요. 근데 외국인 그 외국인을 관리하는 그 지침을 외국인들은 모르는 거야.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밝혀줘야지. 그 지침은 발표가 안 됩니다. 참 웃기는 거죠.

장수현: 저도 F5 관련 법규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봐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T: 어렵죠?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법률의 지침은 공개가 안돼요. 세척은 규칙 세척 다 나오지만 지침은 절대 안 나옵니다. 지침이라든지 업무 방침은 다 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건데, 지침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법규상에 없는 그 자체가 많은데, 그건 내규가 되는데, 내규는 공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내규에는 세척 같은 규정되지 않은 것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법적으로 얘기하면 만 20세 이상의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 따라서 F5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대만에 공부하러 갔어요. 갔다 와서 신청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유학생이기 때문에.

장수현: 근거가 댄 데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T: 옛날에는 관리들이 너무 고자세였어요.

장수현: 저도 압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역시 관리들 앞에서는 꼼작을 못했는데, (화교야 오죽했겠습니까.)

T: 만약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프린트로 해서 준비해가지고 오라면 될 것을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하며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직접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달라고 한다. 서류를 알아서 처리해야 해요. 북한이 화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과 한국과 똑같이 ‘화교들이 돈이 얼마큼 있는가?’ 그것을 빼내기 위한 것이예요.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도 화교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싶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 . .

장수현: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T: 혼탁한 정치를 했지만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되죠. 공로는 올리고 나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해요. 무조건 한국에서는 몇 가지 일 중에 맨 마지막을 잘못

하면 다 잘못된거야. 그것이 참 무서운 거야. 전반적인 한국사회에 단점이 다 그래요.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부 대선 자금 문제 비판 내용, 한국정치 비판, 방탄국회 등, 한국정치 비판내용 부분은 생략) 한국 사람의 단점은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며 아픔을 빨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빨리 빨리 잊으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못 배웠어요. 다 배고픈 시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한국 민족을 살려낸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야. 단 네 글자로 살려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말 자체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시작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료를 줄 테니 (국민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라는 식이었어요. 만약 길을 낸다하면 “마을에서 상의해서 토지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줄 테니 너희가 일하라” 해서 주택개량, 도로개량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 아르헨티나보다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기틀로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심지어는 그 정도 고속도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모자랐어요. 우선 개통해 놓고 매일 수리를 해요. 수리하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리하면서 기술이 축적이 되요. 그러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면서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틀이 되어 한국 국민소득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끝에 삼선개헌을 할 때 반대했어요. 청와대에서 이 문제로 난리가 나고 끝내 박정희 대통령도 밑에 사람처럼 끌려갔어요. 근데 역사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박정희 나쁜 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의 나쁜 점을 얘기해야만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목에 있는 때는 생각 안하는 것이죠.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사회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없고, 외국인은 소수로 몇 명 안 되니 왜 그런 것을 상의하느냐 하게 되었지요 그 중 하나가 외국인 주민등록 번호이다. 법무부 사람들이 참 더러운 놈이야.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은 인터넷을 이용 못해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검증번호가 있는데 운이 좋게 하는 사람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인터넷 검증번호가 우연히 맞아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번호 끝에 숫자를 조작해서, 맞으면 그걸로 계속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도 떠들어대니, 그것조차도 (법무부에서) 알아서 막아버렸어. 실명 확인이 안 된다고. 모든 한국 정부의 실명확인도 한국 신용평가원에서 평가해. (신용 평가원 두 군데 사이트에서) 모든 사이트를 거래해. 거기다 걸어서 실명확인을 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 치면 주민등록번호 오류라고 떠. 아무리 해도 안돼.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항의하니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외국인은 웹마스터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인증해줬어. 정부에서 외국인 직접 검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신용평가원에서 안 해주는 거야. 다운 받아서 하면 되. 근데 다운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 인터넷으로 다 한단 말이야. 한국만 외국인이 못써. 인터넷 경매도 안 되고, 후불제도 외국인은 안 돼요. 한국교포가 했는데 ‘외국인은 안 됩니다’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항의해도 정부는 가만있어요. 정부는 민간단체가 (외국인 실명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터넷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정부는 우리한테 거짓말 한거죠. 이 문제를 조선일보 기자가 물고 늘어졌어요. 물고 늘어지니까 그 기사를 본부로 불러서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신문사 사이트에 안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는군요.

장수현: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인터넷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것이, 외국인 등록 번호를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T: 아니에요.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그 두 회사에서 해요(신용평가원이 이용하는 두 사이트). 그것들이 받은 공사 형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던데 거기서 안 써요. 안 쓰면 “왜 안 쓰느냐?” 강하게 나가서 “외국인은 외국인 따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개선 안됐어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장수현: 이번에 제일 불만이 많은 부분이어서 보고서 쓸 때 다루려고 합니다.

T: 제가 무수히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의 특징은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걸 국회에 얘기해야 합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만약에 내가 관리하는 업무가 발생하면 그 말은 부서가 책임지고 위에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미루니깐 안 되는 거지.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한국법상 외국인학교 출신들은 한국에서 전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대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 대학교가 전부 위법을 한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묵인하는 교육부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나중에는 대학교 선발 자주권을 대학에 줬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법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입학거부란이 없어졌어요. 대학교에서 맘대로 할 수 있게. 대교협에서 없어진 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 없는 것을 그것을 이용한 시용규칙들이 지금도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 교육법이 지금 없어졌어요. 대교협과 정부 부서 서로 미루고 있으며 법률상 그런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요. 화교에 관해 외국인들이 오면 논문화를 시키고 공론화를 시켜야 해요.

장수현: 일본 쪽에서 발표한 논문도 있구요.. 일본에 건너가 연구도 하고.

T: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국이 재일교포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작 해야 할 사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 일본정부가 교포들에게 해선 안 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 일본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안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느껴요. 일본에 있는 많은 교포들도 일본 대학교 다 들어가지. 국적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없고.

여학생 : 들어가기 힘들어요.

T: 힘들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걸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기 힘들면 아이들은 빨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아이들과 고등학교 나와 사회에 나갈 아이가 빨리 나누어 질 수 있어요. 지금 한국 많은 대학교에는 외국인 정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다 받아요. 어떤 학교는 재정문제 때문에 다 받아줘요. 그래서 정작 그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요. 또 외국인 정원에 대한 정원이 없어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입학이 결정돼요. 한국 학생들은 행복해요, 한국학생들은 범위가 있잖아요. 화교들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일선교사들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진학지도를 못해요. 진학지도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해마다 유형에 맞춰 공부를 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해요.

장수현: 외국인 특별전형을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 갈 수 있는 형편인가요?

T: 없어요. 우리 애들은 보통 원서를 5-6 군데 넣어요. 올해는 충남대학이 한 20여명 받았어요. 연대는 작년에는 받더니 올해는 안 받았어요. 하지만 학교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재정이 필요할 때는 막 받아요.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외국인을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항의하자 외국인들인들 안 받았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공로를 인정을 안 해줘요. 어떤 때는 막 많이 받았다가 어떤 때는 아예 안 받겠다고 해요. 그럼 정원 외 (외국인 특별전형) 사람들은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한국)학생들이 졸업해서 학교에 항의하는 것이, 생존권이 화교 때문에 방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현: 예를 들어, 한의과 대학 같은 경우죠.

T: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선호해요. 그래서 같은 한의과 학생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장수현: 그래서 원광대 같은 경우,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T: 거의 안 받아요. 대전대, 동국대, 상지대, 경상대, 몇 군데 있는데 거의 다 안 받아요. 경희대는 아예 안 받고. 일설에 의하면 경희대가 화교를 안 받는 이유 중 하나가, 화교들이 시험을 잘 봐요. 시험을 치게 되면 한자들이 있고 해서 화교들이 더 유리해요. 화교들이 시험을 잘 봐요. 시험지만 보면 화교인지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화교들에게 일부러 한, 두개씩 틀리라고 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동의하지 않아서 (화교 학생이 수석이 됨.) 그 후로

교수 회의를 통해 화교를 아예 받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는 부정해요. 원서는 받지만 학생을 안 받아요.

장수현: 국립대는 들어 갈 수 있는데 서울대학은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T: 일설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외교관 자녀 같은 학생은 받는다고 하고, 올해 부산에서 한 학생이 들어갔는데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화교학생들이 실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안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T: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항의할 수 없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학력위조를 했다면 공문서 위조 등으로 잡혀 들어가요. 합격도 취소되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학력이 없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바쁘니까 대충 하는 거야. (동일한 문제를 같은 부서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미는 한국정부를 비판, 사랑니에 비유)

장수현: 한국 화교가 처해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한국 화교 학교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T: 화교 학교들이 내부적으로 처한 문제가 첫째로 학교간 통합입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의 지역간 통합이 필요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 각 지역에 있는 학교가 화교 사유재산이에요. 화교들이 화교들 돈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렇다면 재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학교를 통합 할 경우, 그 지역 학생들이 다 와야 하는데 과연 (예를 들어) 인천 지역 화교들이 허락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초등학교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는 도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기숙사 생활을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장수현: 많은 학교가 학생이 너무 적어서 그 학생 자체로 운영을 못할 위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폐교된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생 수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합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 중학교,고등학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1,2 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기숙사 생활을 시켜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 맡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학교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학교 통합을 못하니까 경비가 모자라고, 경비가 모자라니까 선생님들 대우가 적어지고, 선생님들 대우가 적어지니깐, 선생이 학교에 있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 유능한 인재가 학교에 없어요. 적어지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수준 있는 교육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고등학교 오게 되고,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력 저하된 학생을 위해 별도로 가르치고 방과 후까지 지도를 해도 효과가 안나요. 효과가 안나는 이유가 기초 실력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학생이 많을수록 반 전체 실력이 떨어지고, 학년 전체 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이 우열반을 나누었어요. 반이 나뉘어도 아예 열반 학생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다 받아주니까, 공부 안 해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성적표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 대학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한 쪽이 한국 사람인 학생과 부모가 다 외국인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를 못 느껴요. 지금 우리 애들은 다 의학 계통만 하려고 해요. 눈치 볼 필요 없이 살아 갈 수 있어서. 옛날에는 순수 이공계열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계통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 순수 이공계열이 부족해” 라고 해도 싫다고 해요. 연구소 같은데 들어가도 특별한 재주가 없으면 승진을 못해요. 그렇다고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하려는...

장수현: 진학관련 수치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T: 화교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해도 피상적인 숫자만 공개하는 이유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아이들이 한국처럼 재학시절에 대학을 합격하고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6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9월 학기부터 시작)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한 후에 대학을 지원하게 되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청서를 받고 전화로 얘기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설문지 형태로 자료를 구해요. 설문지를 통해 대략적인 방향이 나와요. 설문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설문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장수현: 학생들 대상으로 ...

T: 제가 조사한 자료 그 자체가 논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될 수는 없고. 논문화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어 학보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학회가 있어요.

장수현: 하나학회는 어떤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T: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화교선생님이요, 화교인데 한국 국적으로 입적한 사람들도 ...

장수현: 논문집 같은 것은?

T: 논문집 두 번 나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장수현: 자료 복사와 논문집 부탁드립니다.

장수현: 학과 내에서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개편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까?

T: 대만에서 실시하는 대학교 연합고사를 봐야하기 때문에 대만 교과서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쓰게 되면 그 시험을 붙을 수가 없어요. 요새 좀 다행스럽게도 한국 (화교)학교가 사용하는 교재를 얘기하면 그 내용을 출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대만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만에서 나오는 교과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조기 적응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국어로 강의할 필요 없는 과목을 한국어로 강의하고, 고3 학생들에게는 중국어 문학 이외의 것은 무조건 한국어로 수업해서 미리 적응하도록 해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만 한국식으로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 방식에 차이가 나잖아요. 수업 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기를 못해요. 그래서 미리 한국 선생님들에게 미리 수업을 받게 해서 한국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대만 교재 중에 일부분이 완전히 대만에 너무 가중치를 두어서, 은연중에 독립관계 나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과서는 대만 것을 쓰지 않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것을 써보자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쪽 것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점은 국내 교과서는 대만에서 무료로 지원 받고 있는데, 그 쪽 교과서는 우리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부담 한다는 자체가 학생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과서 비용을 한 학기에 5000원씩, 일년에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교재 값 금액이 상당한 거라고 . . . 책 한 권당 만원도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책 한권 값을 관리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지방에서 사게 된다면 학생 부담이 가중이 되잖아요.

장수현: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 <사례 10>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6일, 서강대 부근 레스토랑

면접자: 장수현

대상: M(여, 24세, 대학생), G(남, 24세, 여행사 근무)

#### 1. M의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교, 직업, 국적, 혼인

- 여, 24세. 서울 태생, 화교유치원부터 화교학교를 계속 다님. 현재 서강대 영문과 재학중. 대만 국적. 미혼

## # 가족사

- 아버지는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어머니는 한국인. 어머니는 국적을 대만으로 바꿈.
- 아버지는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에 종사.
- 가족 모두 대만 국적.
- 아버지 형제자매는 4남 1녀. 큰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 둘째가 아버지. 셋째는 고모로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 대만사람과 결혼해서 대만에 거주. 작은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 2. 인권문제

### #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인터넷 가입을 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해서 불편을 느낀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5년마다 체류기간을 갱신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겨서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여기서 태어났고 똑같이 살아왔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
- 취업문제로 회사에 전화를 할 때 화교(외국인)도 받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양식 같은 것을 다운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으로는 안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 이름으로 들어가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 화교(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

### [이하는 녹취 내용을 푼 것]

장수현: 학교 들어가는 문제는 어떠한가?

M: 학교 들어가는 문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것 같다.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깐 아무래도 진짜 외국에서 살다온 사람들 보다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한국 사람도 어려운 말을 배울 때도 있는데 그와 비교하면 나 같은 경우는 더 힘들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리포트도 어떻게 써야하는지 훈련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어 많이 힘들다.

장수현: 같이 대학에 들어간 이는 화교 친구들 중에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M: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는 드물고 휴학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나도 처음 휴학한 이유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수업을 들어가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려운 말이 있으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단체생활을 하면서도 화교친구들과 다른 한국 친구를 만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서 힘들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쳐서 한 학기 휴학한 것이다. 수업 조별 모임 때에도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이 부족하니깐 수업받기가 두렵기도 했다. 화교학교를 다닐 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꿈이 있어서 대학까지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깐 너무 뛰어난 애들도 많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항상 고민해야하고 늘 긴장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휴학기간동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휴식하면서 터득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보다 적응도 많이 했고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후로는 조금 괜찮아졌다.

장수현: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주로 만나게 된 친구들은?

M: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나는 서강대를 들어갔는데 학교에는 화교인들이 거의 없다. 학교 들어오기 전 원서 쓸 때 서강대, 연대, 외대를 썼는데 서강대랑 외대에 합격했다. 영문과는 외대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화교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나는 대학에 오면 다른 한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고 예전까지 계속 화교친구들을 만났는데 또다시 화교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이 학교 생활하는데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대를 가지 않고 서강대에 오게 되었고 한국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는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외롭다든지 조금 힘든 문제가 있다. 내 친구는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적응하는데 힘들어해서 아직까지 전화로 고민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위로한다.

장수현: 남학생들은 어떤가?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화교학생과 어울리는 게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강하지 않은가?

M: 나 역시 학교 들어갔을 때 많이 난감했다. 배우는 것도 어려웠다. 일단 1학년 때는 모르니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학기 말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선배들에게 의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물다. 고등학교 때부터 놀 때는 같이 하지만 공부할 때는 전혀 의견을 나누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업적으로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과 선택도 특기나 개성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어서 적응하기 힘들다. 화교라는 울타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관계에서 신뢰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손을 먼저 내밀면 과연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자격지심 같은 것도 가지게 된다.

장수현: 대학 졸업 이후에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데 한국학생들에 비해 훨씬 어려워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한다.

G: 삼성에 화덕주(?)하면 화교들은 모두 안다. 화교인들 중에 이 같은 지위에 오르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

M: 화교들도 대학에 진학 할 때 거의 과 선택을 한의학과나 의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G: 한국이라는 사회가 대기업 중심이기도 해서 그곳에 취직해서 성공한 것은 대단하다고 본다.

장수현: 예외적이긴 하지만 화교사람들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깐.

M: 그곳에서 또 살아남기도 힘든데...

장수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대학 진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진학하나?

G: 진학은 거의 다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우선 외국인이라 시험을 볼 때도 외국인에 맞추어서 시험을 치르니깐 쉬운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학생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배우고 다른 외국인처럼 외국인이 다 라는 점을 감안해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중국어 수업을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는다. 문법이나 회화 자체가 다른 것이 많기 때문이다.

M: 대학교 1학년 때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교수님께 찾아가서 나는 화교이고 이러한 훈련이 없어서 어떻게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도 한국말을 잘하니깐 화교학생임을 알지 못했다. 한국말을 잘하니깐 한국말로 쓰라고 하고 아니면 영어로 쓰라고 하신다. 그래서 너무 막막했다. 교수님들이 화교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고 단지 한국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장수현: 그럼 혹시 고등학교친구들 중에 어느 정도가 중국(대만) 대학에 진학했는지 알고 있나?

G: 200명 중에 50명 정도가 대만으로 간다.

M: 진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장수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M: 공부에 대한 취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정형편상 못하는 경우도 있다.

G: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적으로 받는 지원도 없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한국사람들 경우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화교들은 직접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돈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다.

M: 가정환경도 무척 중요한 것 같다. 화교 대부분들은 부모님이 교사 같은 분보다 장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고자란 자식들도 돈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교 사람들 간에 경쟁도 심하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 같다.

장수현: 의대나 한의대를 간 친구들이 있는가?

M: 많다. 여학생은 약대를 많이 가고 남학생들은 한의대를 많이 간다. 6~7명은 약대를 갔다. 약대도 대학이 정해져 있다. 성대 아니면 이대이다.

장수현: 화교 학생을 따로 잘 받아 주는 학교가 있는 건가?

M: 그런 것은 아니고 약대는 거의 다 받아주는데 한의대는 돈을 쥐도 안받아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G: 경희대는 잘 안받아 준다고 들었다. 대전 쪽으로도 많이 간다.

M: 한의대를 들어가기 위해 예전에는 기부금 입학한 적도 있었다.

G: 기부금 입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선택할 길이 없으니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시작부터 그런 의지가 꺾이는 것 보다 기부금 입학을 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M: 한국대학 가는 반은 무조건 한국식 수업을 하는 방식이 나 때부터 생겨났다.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수업을 받았다. 고3때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식이 진행 중이다. 대학 박람회 같은 것도 찾아가보고 입시요강 정보도 알아봤다.

장수현: 국립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가?

G: 서울대 같은 경우 있긴 있는데 위낙 그 횟수가 드물고 학생수도 적다. 그래서 입시 준비할 때도 어렵다고 서울대를 제외시키곤 한다.

M: 그리고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 같다. 하지만 서울대가서 얼마나 공부하고 적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G: 부모님 중에 한분이라도 한국 분이면 혜택이 없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사람이 많았다. 아는 사람 중에 대학을 가기위해 편법을 사용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을 돌아가신 걸로 해놓았는데 학교 측에서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분이 국적을 바꾸고 돌아가셨나 아님 한국국적으로 돌아가셨나를 묻고 만약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셨으면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망신고서를 가져오고 국적을 바꿨는지 여부를 알아오라고 하였다. 죽은 사람 가지고 공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한의대 같은 곳을 가려면 통장에 만불 이상 있는지 확인서를 가져와야지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M: 교수님들과 인터뷰 할 때도 경제적인 상황을 꼭 물어보고 부모님 직업을 묻는다.

장수현: 화교들을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G, M: 맞다. 막상 수업할 때는 내국인으로 대우해준다.

M: 화교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름대로 과외도 해보고 입시학원도 다녀 봤는데 시기적으로 늦어 한국학생과 차이가 너무 많다.

G: 그리고 한울타리에 있다보니깐 사교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15년 이상이다.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는 친구라는 의미보다 아는 사람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장수현: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받아서 달라진 점을 느끼는가?

G, M: 아직은 없는 것 같다.

G: 우선 화교는 여권을 대만에서 받는 등 아직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 여기서 대만 갈 때 비자는 안받아도 되는데 대신 다시 한국을 돌아올 때 언제 다시 입국할지를 신고하고 가야한다. 결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G: 영주권이 정확한 화교의 숫자와 불법 체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 같다.

장수현: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다. 양필승 교수와 정대철 의원 이런 분들이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화교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통해 만든 것이다.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G: 그런 점이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하다.

장수현: 국적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G: 원하진 않는다.

M: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바뀌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던 것 같다.

G: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주위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한국에서 사는 화교가 제일 못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솔직히 그렇게 나쁜 점만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같다.

장수현: 또 하나의 문제가 참정권 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M: 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없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다. 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장수현: 여러 수준에서의 참정권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아직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그 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M: 나는 중국인이고 대만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한국 사람의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한국이란 나라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도 있어서 참정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수현: 외국에서 살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G: 긴 기간은 아니었고 중국에서 살았는데 비교적 좋았다.

장수현: 고향이 어딘가?

M: 산둥 무핑이다.

G: 좀 드문데 산둥 주청이다.

장수현: 무핑하고 룡청이 많다고 하는데...

M: 복산도 많다.

장수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 보다는 외국에 보내서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G, M: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G: 나는 만약 아이를 낳으면 어렸을 때 언어를 확실하게 가르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국학교로 보내고 싶다. 대신 중국어는 완벽해야 한다.

M: 나는 한국학교나 화교학교보다는 외국인 학교를 보내고 싶다. 사춘이 초등학교 때나 화교 학교를 나오고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도 잘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교육적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다.

장수현: 자신들이 중국인이라고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

M: 중국에 좋은 일 있을 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좋아질 때....

G: 특별히 어느 시기에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항상 머릿속에 인식 되어있는 것 같다. 예전에 화교동아리에서 엠티를 다녀왔었는데 낱말 연상 퀴즈를 했었다. 질문이 당신은 무엇인가? 를 묻는 것이었는데 답이 청소년이었다. 그런데 모두가 중국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럴 때 느끼는 것 같다.

장수현: 어릴 때부터 교육을 계속 받은 것은 아니고?

G: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들은 것 같다.

장수현: 특히, 한국 사회에의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라는 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M: 맞다. 우리가 못 느끼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장수현: 응원은 또 한국팀을 응원하지 않나?

M: 잘하는 팀을 응원한다.

G: 중국팀이 누군지 알아야 응원을 할텐데...

장수현: 아, 잘 아니깐 한국팀을 응원할 수도 있겠구나.

G: 왜냐하면 우린 중국인이긴 한데 케이스가 특별하니깐 ... 여기서도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중국이 좋다 그런 것은 아니다.

M: 그냥 중국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것이다.

장수현: 그러면 내가 듣기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88올림픽 할 때, 그들 역시 자기 나라의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다 하면서....

M: 맞다, 나도 그런 것 같다.

G: 거기에 있는 조선족사람들이 화교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하고 물으면 거의 다 중국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조선족이랑 화교랑 생각하는 게 좀 틀린 게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장수현: 문화적으로 중국적인 전통 같은 게 남아있는 것이 집안에서나 주위에 있나?

M: 제사나 명절 때에 먹는 음식부터....

장수현: 주로 어떻게 지내나?

G: 명절 때 중추제 같은 경우에는 원소절이나 월병.....다 알거다. 그게 예전 명나라 때부터 생겨 내려오는 풍습이다.

G, M: 맞다, 위엔샤오 많이 먹었다. 다오즈... 단오절 때 먹는 것... 요즘은 유행처럼 기술이 좋아 애들이 잘 만들어 먹는다.

G: 그리고 장례 지낼 때 (전통 의례가 남아있다.)

장수현: 요즘은 병원에서 안하나?

M, G: 병원에서 한다.

G: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다 어떤 걸 뿌리기도 한다.

M: 그런 거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G: 왜냐하면 한국도 풍습 같은 것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예부터 내려오는 것이 많다.

M: 할아버지 시대부터 쭉 내려져 오는 풍습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다.

G: 구정 때, 홍빠오. 그날에는 큰소리를 내면 안 되고 실수로 확인되면 아프기도 한다. 실제로 아픈 사람도 있다.

M: 나도 들은 적이 있다.

장수현: 옷 같은 것은 어떠한가? 치바오 같은 건 입나?

M: 치바오는 있는데 입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장수현: 혼례식 같은 건 어떠한가?

G: 외부혼례식은 좀 드물다.

장수현: 식당에서 밥 먹는 걸로 끝나는가?

M: 만약 화교랑 결혼을 하게 되면 화교 식당 같은 데에서 하기도 하는데 조금씩 틀리기도 하

다. 어릴 때에는 치바오를 많이 입었다. 항상 고모가 대만에서 사다주셨다.

장수현: 집에서 어떤 말을 자주 쓰는가?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떨 때 중국어를 쓰고 어떨 때 한국어를 사용하나? 어른들은 주로 중국어를 쓸 텐데...

G: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나마 어머니랑 자주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한국말, 중국말을 섞어서 쓰는데 아버지와 대화 할 때는 중국어를 사용한다.

M: 나는 거의 한국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쩔 때는 섞어서 사용한다. 부모님과도 그렇고 친구와 대화할 때도 반반씩 섞어서 말한다.

장수현: 그럼 주로 중요한 단어는 중국어를 사용하는가?

M: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장수현: 친구관계는 어떤가?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서 화교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는가?

G: 나는 워낙 여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냥 친구는 한국친구, 중국친구 구별 없이 어울린다.

장수현: 한국 친구들이 있는가?

G: 있다. 후배들이 있다.

장수현: 어디서 만난 친구들인가?

G: 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도 있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다.

M: 나는 반대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 역시 한국친구, 화교친구 가리지는 않는데 그나마 학교도 여기 있으니깐 한국 친구들이 많다.

장수현: 그래도 정말 힘들 때 어떤 친구를 찾나?

M: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다.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런 친구를 찾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고민일 경우는 다른 친구를 찾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우울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교친구를 찾게 되는데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장수현: 운동경기를 응원할 때에도 한국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인데.....

M: 나는 태어나서 한번도 한국 사람이 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월드컵 때는 나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장수현: 무역이나 외교 분쟁 같은 경우 대만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문제도 있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면 마늘분쟁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G: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대만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잘 따져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쪽 잘못이다 라고 여론이 생기면 나도 그쪽을 따를 것 같다. 굳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수현: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구나.

M: 만약에 중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중국이 잘못해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수현: 결혼상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민족, 국적을 다 포함해서 말한다면...

G: 난 화교와 결혼하겠다. 생활습관과 사고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 또래 같은 경우는 잘 따지지 않지만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요소를 보시는 것 같다.

M: 난 여자니깐 어렸을 때는 화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한국친구를 만나면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낀다. 사고방식도 틀리고 민족 차이도 있고 한국사람 중에 보수적인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차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을 진정한 한국인으로 봐주지 않는 점도 있어서 기분이 상할 때도 있다.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화교, 한국인을 구별해서 꼭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럴 때면 난 항상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의 경우 중국인을 선호하시는 편이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좀더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 역시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근데 진짜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다.

장수현: 사고방식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른 그 미묘한 차이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가?

M: 나는 이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 사람을 사업을 하다가 접했는데 어떤 점이 나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중국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나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분이 나빴다.

G: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중국인 친구들과 많이 같이 있으니깐 가끔 싫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화교들은 화교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M: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도로 대만을 흡수해야 국적을 빨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도 홍콩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만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서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다. 뉴질랜드 갈 때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 가는데 비해 나는 화교라 그냥 여행사에게 맡겨놓았다. 그런데 그쪽에서 모르고 비자를 안 받았다. 내 비행기 표는 패키지라서 호주를 들렀다가 뉴질랜드로 갔는데 호주는 다 비자가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뉴질랜드로는 비자를 받아놓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뉴질랜드로 넘어갔는데 나만 다시 돌아왔다. 그런 비자문제가 너무 불편하다. 중국 갈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2년 비자가 나온다.

장수현: 만약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국적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G: 나는 화교로 할 것이다.

장수현: 신부가 한국 사람일 경우는? 혹은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M: 나는 국적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장수현: 아이들은?

M: 만약 한국 사람과 결혼 한다면 남편 따라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된다.

장수현: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사상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화교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자는 당연히 남자를 따라야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만약 화교라면 이런 문제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G: 그런데 그 문제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장수현: 아이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M: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 같다. 나는 국적은 바꾸고 싶지 않는데 자식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

장수현: 내가 아는 화교 분은 부인이 한국 분이었는데 국적문제로 많이 고민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때 국적법이 바뀌어서 아이들의 국적을 화교, 한국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만약 한국으로 해놓고 나중에 한국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시키면 아무래도 화교라는 인식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대만 국적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럼 군대 문제는 없나?

G: 내가 알기로 화교가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어도 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에서 국가기밀 등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제이다.

장수현: 내가 알기로 세금문제로 수입이 좀 많은 사람들은 화교로 있을 때 세무조사 같은 것도 심하게 받는다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G, M: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로 국적을 바꿀 것이다.

장수현: 한국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G, M: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

M: 대학 가면 그런 점을 많이 느낀다. 나는 영문과를 다니는데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면 편하겠다고 생각해보았다.

장수현: 확실하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화교 학교를 선택하겠는가?

G, M: 다시 들어갈 것이다.

G: 고등학교까지는 화교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인은 중국어를 해야 하니깐.

M: 내가 아는 친구는 중학교까지 화교학교를 다니고 한국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은 외국인 전형으로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G: 중국어를 웬만큼 하면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

장수현: 초등학교 정도는 화교학교를 보내더라도 중고등학교는 한국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은 외국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장수현: 화교학교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M: 교육문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수현: 예를 들면 교과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G: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M: 선생님들의 교체도 필요하다.

G: 시설문제도 너무 낙후되어있다.

장수현: 화교학교라는 것이 사실 민족 교육을 하는 곳인데 교과 과정을 한국학교처럼 똑같이 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M: 학생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G: 사실 민족의식을 배우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들다. 삶이 낙후되고 비참해지면 민족의식 같은 것은 사실 필요 없다.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있을 때 민족의식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 교과를 하면서도 현지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한국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도 대학처럼 참여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줘야 한다. 직업선택이라든지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막연히 대학입학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학원이 좋으니 그곳을 가보라고 권유하는 정도이다.

장수현: 한국교육에 적응해야 하니깐 한국 교육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시간을 늘린다든지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운다든지 한국의 인문지리를 배운다 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G: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보강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수현: 중국식 교육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G: 아무래도 중국은 공산국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닌데 중국의 이념이나 사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것이다.

장수현: 지금 교육받을 때 얘기 들어보니깐 중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대만에 대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G: 근대사는 거의 다 대만에 대해 배운다.

M: 대만에서 배우는 책을 똑같이 배운다.

G: 국공내전에 대해 배울 때 왜곡된 것이 많다. 알아봤자 모택동 정도만 알고 있다. 교과서에 는 국공내전의 자세한 사실이 나와 있지 않다.

M: 대학 와서 중국에 대해 배웠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아 너무 뜻밖이었다.

G: 장제스의 행적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수현: 중국의 옛날 역사는 배우지 않나?

M: 배우긴 하는데 근대사를 배울 때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장수현: 교과과정 자체가 중국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란 말이 구나. 한국 진학반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교육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G: 우리 때는 미흡했다가 지금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장수현: 몇 년도에 시작한 것인가?

G, M: 98년도에 시작했다.

장수현: 아까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대만을 흡수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어른 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다. 어떠한가?

G: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와 생각이 비슷하시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것 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주위에서는 대만독립 지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장수현: 얼마 전에 화평촉진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중국 대사관 쪽에서 화교 사회에서 대만 독립 반대하는 쪽의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인천은 올해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서 서로 문제가 있을 것 같 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논쟁을 불러 올 수 있을 것 같다.

#### <사례 11>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면접대상자 집

면접자: 국양위

대상: 남 24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24세, 서울 출생, 대학생, 대만국적, 미혼

# 가족사

- 어머니가 한국인. 3녀1남중 막내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특별히 느끼는 것은 없지만 다만 인터넷 상거래를 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를 들어 세금 방면 등에서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한 필요성은 못 느낀다. 여기는 우리 고국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서 해가 될 것은 없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 3. 정체성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화교 어린이들을 볼 때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한국말이 아닌 중국어였을 때 많이 느낀다.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많이 있다. 명절 때 혹은 장례의식이나 음식 등 아주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한국어를 주로 한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중국어는 특별한 때 혹은 화교 어른들을 뵈을 때 한다.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특별히 구분한 적은 없다. 다들 빠른 사회 속에서 시간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
-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한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선호하는 배우자 국적은 없다.
-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국적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생각해볼겠다.
  - 화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나쁘게 보진 않는다. 생활의 필요 때문인 것 같다. 저의 누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많지만 재산과 세금이라는 이유가 크다.
-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것은 못 느낀다. 어머님이 한국분이어서 그런지 아버지나 가족 중에 딱히 한국인은 어떻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 4. 교육

-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가 태어난다면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나 역시 화교학교를 나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한국학교에 보내는 게 사회적응에는 이득이 있겠지만 웬지 화교학교에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 보강 차원에서 한국 교육현황에 맞춰야 하지만 기본들은 역시 우리 것을 배워야 한다. 중국 대륙 교과과정은 반대 하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 좋게 보진 않는다. 말했듯이 사상적 차이를 많이 느낄 것 같다.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 <사례 12>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면접대상자 집

면접자: 국양위

대상: 남 26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26세, 서울 출생, 대졸, 서비스업 종사, 대만 국적, 미혼

- 3남 중 막내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구청이나 시청에서 느낀다. 보험이나 대출 신용과 관련이 있는 일들은 서류 준비도 많이 해야 되서 불편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더 많은 신원보증과 담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적도 있다.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냥 한국에 눌러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왔고 거주하고 영주권 역시 가지고 있는 화교들 입장에서 외국인이라고 모두 똑같이 여겨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에게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자연히 우리에게 대한 인식과 대우도 달라질 것이다.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고 본다. 화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선 동질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이 살고 있는 나라 도시 동네를 관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다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나를 떠나서 필요하다.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 3. 정체성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어렸을 때 동창들과 만날 때마다 느낀다.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느끼지만 한국 역시 전통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풍습이 같다. 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주로 한국어를 쓴다. 다만 집안 어른들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중국어를 쓴다.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교우에 있어선 다 똑같다고 본다. 둘다 많다.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한국쪽에 서겠다. 우리가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제2의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다.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화교면 좋을 것 같다. 우리와 같은 화교기 때문에 살면서 문제가 더욱 없을 것 같아서.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국적을 취득할 생각은 없다.

- 하지만 자녀들의 경우 고민은 된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이라면 한국사회에 더욱 친숙하고 익숙해질수록 좋은 것이기에. 아이들에게겐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각해 보겠다.

-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믿는다.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개 어른들을 보면 무작정 한국과 한국인에게 비판적인 인식이 강한 듯하다. 나 역시 어렸을 때 한국인과 놀지 말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다. 화교들이라고 무작정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4. 교육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찬성이다. 화교학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여건이 안된다. 한국학교에서 자기 개성에 맞게 참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화교 학교에는 꼭 보낼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문화를 모르는 화교 자녀는 원하지 않는다.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한국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면 화교학교라는 특색과 기반이 흔들릴 것 같다. 보강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각한 적 없다. 원하지도 않는다.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록 우리 화교는 조국을 떠나 한국에 있지만 양국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은 우리들에게 숙제가 될 것 같다.

#### <사례 13>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면접대상자 집

면접자: 국양위

대상: 남 37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남. 37세. 서울 출생. 대졸. 여행사 대표. 대만 국적, 기혼, 한국인 배우자

# 가족사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외아들을 두고 있다.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상의 재제가 많다. 또한 일반적인 선입견이나 배타적인 느낌을 자주 받는다. 주로 허가나 문서 같은 것을 요구 받거나 구하러 갈 때 특히 그렇다.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화교들도 영주권을 가질 수는 있게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느낀다. 완전한 영주권, 동등한 내국인이라는 입장이 필요하다.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누가 관리할지 알아야 한다. 또한 참여를 해서 더욱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필요하다.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 생각한 적 있다. 물론 자녀 교육 때문이다. 외국어의 필요성이 크다.

## 3. 정체성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딱히 느낀 점은 없으나 한번도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없다.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명절, 제사, 의복 등 많다.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어렸을 때는 주로 중국어를 사용했지만 살아오면서 점차 필요에 의해 바뀌어 왔다.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반반 정도 된다.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한국편에 서겠다. 국적을 떠나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없다.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럴 생각이 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있다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다.

- 자녀는 아니다. 화교를 고집하겠다. 이유는 없지만 역시 화교라는 사명 때문인 것 같다.

- 한국 국적 취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또 자격이 된다면.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날이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줄어드는 것 같다.

#### 4. 교육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사회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 물론 걱정도 된다.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이나 견해가 잘못될까봐.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려면 우선 한국의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지금 수준에 있다면 많이 걱정이 된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들 역시 중국에 대해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그리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다. 남북한처럼 사상의 차이가 걱정된다.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까?

- 없을 것 같다. 화교라는 특별한 독립된 단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사례 14>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면접대상자 집

면접자: 국양위

대상: 여 22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여, 22세, 서울 출생, 대학재학중, 대만 국적, 미혼, 가족 전부 대만 국적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인터넷이나 신용거래 그리고 한국에서는 화교라는 이유로 외국 나갈 때 비자가 매우 복잡하다.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별적인 통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틀리게 때문에 전산 업무에서 오류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화교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충분할 걸로 아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있는지 변화가 시급하다.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교를 위해서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보는 시선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과 바램이 다를 것이다. 이를 수렴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아직 한국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교라는 명예를 주고 싶지 않다.

#### 3. 정체성

-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는 관광객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또 다른 화교나 중국인들이 추태를 부릴 때 느낀다.
-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의식주 모든 면에서 다소나마 남아 있다.
-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중국어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역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말을 자주 쓴다.
-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반반이다.
-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중국 편에 서겠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멀리 본다면 그렇게 하겠다.
-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중국인 혹은 다른 나라 화교.
  - 동지애 때문이다.
-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반대한다.
  -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적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게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족환경이 매우 중요하니깐.
  - 한국국적 취득은 긍정적으로 본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날이 인식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전에는 대만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다. 그만큼 한국과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다.

#### 4. 교육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 화교학교에 보내게 된다면 대학에 가서 적응이 어렵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나 특성이 개발 되지 않아 앞으로 진로의 문이 매우 좁다. 한국학교에 보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수능 위주 수업이 걱정이 된다.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 세계화에 발맞춰 중국이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 교육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화교 교육은 너무 어중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이다. 자격이 주어진다면 중국국적을 취득하겠다. 조국이 원한다면.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을 것 같다. 대세는 이미 중국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대만은 경쟁력이 없다.

### <사례 15>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면접대상자 집

면접자: 국양위

대상: 여 29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한국 출생, 고졸, 사무직, 대만 국적, 기혼, 한국인 배우자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차별을 느낀 적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기억이 나는 건 은행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는데, 주민번호 오류로 인해 여권을 요구했고 여권이 만기가 되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시중의 다른 은행에 다시 갔다. 그곳에서는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되어 화가 나서 다시 처음에 갔던 은행에 화풀이를 하러 가서 다른 은행 통장을 보여주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다. 한국인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화교의 대한 인식과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하진 않는다. 대중매체를 통해 보아온 정치라는 것에 마음이 없다. 흑막정치, 비리의혹 이런 것에 신경 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 아직 없다.

### 3. 정체성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외국어를 해서 주위의 이목을 받을 때 내가 화교란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의식주에서 많이 전해오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한국어를 쓴다. 업무상 필요한 때는 중국어를 쓴다.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50대 50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한국 입장에 서겠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서 살아온 만큼 한국에 대한 한국의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 무역이나 외교상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한국인을 원한다.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는 판국에 좀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길 원해서.
- 자녀 역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
- 긍정적이다.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것 느낀 적 없다.

#### 4. 교육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학교에 보내겠다. 물론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화교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빨리 인식하겠지만 사회적응을 위해서 한국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교육정책의 따르는 방식으로
- 너무 낡은 것을 버리고 사회와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정적이다. 공산국가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을 것이다. 또한 있다 해도 우리들에겐 힘이 없어 제풀에 꺾일 것이다.

<사례 16>

일시와 장소: 2003년 12월, 면접대상자 집

면접자: 국양위

대상: 여 32세

### 1. 개인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출생지, 학력, 직업, 국적, 혼인 여부, 배우자/부모 국적/민족

- 여, 32세. 대구 출생, 고졸, 주부, 대만 국적, 화교 배우자

### 2. 인권문제

# 한국에서 본인이 소수자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 우리나라가 아니기에 조그만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본다.

# 화교의 법적 지위와 일반적인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화교들이 더 분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오랜 시간 후에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길 기원한다.

#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자체 참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정권에는 그리 관심이 없지만 만약 일률적으로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화교들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제3국의 더욱 나은 환경을 원하고 있다.

### 3. 정체성

#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 가족들과 있을 때

# 중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생활영역은 무엇입니까?

- 젊었을 땐 잘 몰랐으니 결혼을 하고 나니 참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명절 음식 의복 등.

#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 주로 중국어를 쓴다. 주위에 화교들이 많다 보니. 시장이나 한국 친구들과 있을 때 한국어를 쓴다.

# 자주 만나는 친구는 주로 화교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 주로 화교들과 만난다.

# 한국/대만, 한국/중국간의 스포츠 경기, 무역이나 외교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쪽 입장에 동조하는 편입니까?

- 한국편에 서겠다. 아무리 고국이라고 해도 멀리 있는 나라보단 피부로 느껴지는 한국이 우선이다.

# 본인 혹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배우자의 민족/국적이 있습니까?

- 화교를 원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태어날 자녀가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국적 취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취득을 원한다. 자녀들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길 원한다.

- 난 한국이 좋다. 한국에서 살아가길 원하면 모든 면에서 동등했으면 해서 한국 국적을 원한다.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람은 사람일 뿐 색안경만 안 쓴다면 굳이 이런 질문도 필요없다.

#### 4. 교육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교 학교와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 학교에 보내겠다. 불확실한 화교정책보다는 아이를 위해 한국 학교에 보내고 있다. 화교학교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 현재의 화교학교 교과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대륙의 사상적 차이가 크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보이기에 대륙의 교과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대학에서도 화교들이 쓰는 번체가 아닌 간체로 배우고 있지 않는가?

#### 5.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한다. 지금 화교들의 신분보다는 좋을 것이다. 마음만으로도 한국인도 중국인도 대만인도 아닌 화교들에게는.

#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때문에 화교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지만 별 무리 없을 것 같다.

#### <사례 17>

일시와 장소: 2003년 11월 8일, 장항의 연쇄점

면접자: 손애경

대상: 화교 3세 남자 대학생

#### 1. 개인 인적 상황

# 2남 1녀 중 막내. 형은 현재 치과대학 재학, 누나는 대만에서 약대 재학

# 초등학교는 군산에 있는 화교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화교학교를 다녔다. 서울에서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 전남대학교 약학과 재학 중이다. 화교 선후배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명은 여학생이다. 아버지가 약국을 하셔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약대에 진학했다.

# (특히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어떠한가?) 과 선배들이 처음에 여기저기 참여를 권유했지만, 화교가 한국에서 데모하면 추방당한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내 자신이 데모에 관심도 없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는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워졌다.

# 국적은 대만이지만, 본적은 산둥이다. 대부분의 화교가 대만국적자일지라도 산둥이 본적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화교는 지역마다 협회가 있어서, 나도 서천협회에 가입을 했다. 서천에 화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 2. 인권문제

#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 아직 내가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 사용할 때 사이트에서 로그인 자격이 안 되어서 이용하기 힘들다. 주민등록번호가 5로 시작하기 때문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비한 것 같다.
- 들은 바에 의하면 화교가 한국에서 식당을 하거나, 땅을 살 때 국가적 규제가 과거에 너무 많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학생이기 때문에 직접 겪은 적은 없다.

# 한국인의 화교에 대한 차별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몇몇 한국인은 아직까지도 화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같다.(짱꼴라나 짱깨 같은 표현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짱깨 시켜먹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 나에게서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 장래 직업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직의 경우 회사와 달라서 상관없지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승진도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자신을 비롯해 주변의 화교 친구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 직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전문직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약사, 한의사, 관광가이드, 호텔경영 등 자신이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직업들을 말한다.

#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정부의 화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나요?

-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의료보험은 화교에게 적용이 되고 과거보다 여러 규제가 많이 풀린 것 같다. 지방 선거권도 갖게 되고, 물론, 한국사람들과 세금도 똑같이 납부하고 있다. 규제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 3. 정체성

# 한국말과 중국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사용하기에 편리한가요?

- 한국말과 글이 쓰고 말하기에는 더 편하지만, 듣기는 중국어가 더 편하다.

# 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내가 봤을 때 한국어 억양이 좀 다르다고 느껴진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듯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불편을 느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 자신에게 있어서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차이를 말한다면?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두 문화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추석이 꽤 큰 명절인 것 같다.

# 결혼식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 서양식으로 하거나, 가끔 중국식으로 하기도 한다.

# 장래에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신부로 화교가 좋은지, 한국여자가 좋은지?

- 결혼은 화교와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명절이 되면 집에서 해먹는 요리나 집안에 장식하는 것 등이 특징이 있는데, 한국여자와 결혼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녀에게 생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익숙한 화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주위를 보면 화교끼리 선뵈서 결혼하기도 한다.

# 본인에게 한국 여자에 대한 이미지와 중국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나요?

- 그런 건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정서적 측면에서는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나요?

- 옛날에는 내 자신이 이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에 많이 괴로웠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중국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

# 대학 생활 중에 한국친구들과 지내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 대학생활 하면서 한국 친구들과 지내는 것에 별로 어려움은 없다. 왜냐하면 대학 내에 화교가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과 같이 다닌다. 하지만 만약 화교 친구가 곁에 있었다면 서로 대화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같이 다녔을 것 같다.

# 한국 친구들에게 자신이 화교라는 것을 밝히나요?

- 먼저 나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화교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지는 않는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화교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니?” 라고 물으면, 화교학교 나왔다고 대답하거나 또는 그냥 피하기도 한다.

# 설문지에 보면, 현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중에 한국친구가 더 많다고 답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대학에 입학 한 이후로 한국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많이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가 더 편한 것 같다.

# 조선족을 볼 때 본인의 느낌은?

- 사실 조선족을 볼 때 별 생각은 없지만, 중국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한국으로의 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귀화를 하게 되면 살기에 편리한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별로 공무원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반드시 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4. 교육

# 화교학교의 교과과정은 한국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교과목은 한국 학교와 비슷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학교의 교과목+대만 역사 지리 +중국역사' 라고 할 수 있다. 화교 고등학교에서 2학년이 되면 '한국대학 진학반'과 '외국 대학 진학반(대만)'으로 나누는데, 과거에는 대만으로 가는 쪽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5. 중국/대만에 대한 입장

#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살 생각은?

- 중국이나 대만에 가더라도 신분이 제대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중국에는 자주 가는 편인가요? 특별히 가는 때가 정해져 있나요?

- 고등학교 때 중국에 갔었다. 3 번 정도 갔었는데 목적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으며, 특별히 가는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 90년대 초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대만과의 수교가 단절되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그 당시 나는 어렸었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몰랐었다. 비록 대만과 수교 단절되었어도, 현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없고, 그 당시로서는 두 나라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중국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현재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끔 갈 때마다 그곳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본인의 생각에 한국 화교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과거에 힘들게 했던 규제가 점차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교사회가 더 나아질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적인 가족 서류 등은 협회에 가면 받을 수 있어서 아직 큰 불편은 없다.

#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화교 문제에 대해?

- 내가 현재 너무 정서적 측면에서 한국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식이 생기면 내가 윗분들로부터 받은 만큼 전해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중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 <부록 5>

# 화교사회지도자 집담회

일시와 장소: 2003년 7월 22일, 연희동 중국음식점 진북경

면접자: 박경태, 장수현, 연구보조원

대상: 화교단체장 등 9명

1. 연구 목적 및 내용 소개와 조사 협조 요청

2. 논의 내용

### (1)차별

# 신분증 및 서류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다.

# 외국인 등록증이 새로 갱신되면서 그 등록번호만으로 외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남.

# 한국 사회는 소수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한국인/ 비한국인이라는 구분 때문에 귀화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국적을 취득하고서도 화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한국의 화교는 아직 한국의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다. 문화, 풍습, 교육, 가치관 등 모든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결심하기가 힘들다.

# 신분상의 불안함이 크다. 때문에 스스로 보호해야 하고, 각자 개인적인 보호막을 구축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 제도적인 대응을 화교들이 할 필요가 있다.

### (2)귀화

# 경제인 연합회에서 특별귀화법을 추진 중에 있다. 서류심사만으로 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귀화에 있어서 조건들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 귀화한 멤버들. 귀화를 해서 성을 새로 만듦(인천 X씨, 인천 나씨 등등)

# 개인적 귀화는 화교사회를 와해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귀화한 사람은 은근히 화교사회에서 배제를 당하기 때문이다.

### (3)교육과 귀화

- # 한국대학에 외국인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려면 한국인 엄마는 걸림돌이 된다. 부모 둘 다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류상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그러나 대학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므로 엄격한 대학이 있고 엄격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
- #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바람이 있다.
- # 화교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한 방편은 교육이다. 따라서 대학문이 개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은 중하위권 대학들은 기준이 느슨하지만 이제는 상위권 대학들도 자격 기준을 낮추어 주었으면 한다. 화교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수능시험을 보기가 힘들고 검정고시를 봐야 수능자격이 주어지므로 한국 대학에 진학 할 때 특례입학을 주로 생각하는데, 귀화를 하고 싶어도 자녀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귀화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 # 그러므로 귀화를 해도 귀화1세대는 특례입학 등 대학 진학 문턱을 낮추어 줘야 귀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 (4)귀화와 영주권

- # 영주권은 지금으로서는 기간연장을 안 하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 # 지역적인 수준에서라도 참정권이 있어야 한다. 참정권이 없으니 화교들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
- # 지방세, 교육세,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내고 있으나 교육/창업 지원 등의 권리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 즉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는 지원금을 1000억 받았으나 화교경제인연합회는 한푼도 못 받았다.
- # 화교장애인, 화교노인 등도 혜택 없다.
- #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만도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끝이다.
- # 한국인/비한국인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이 필요하다.

### (5)국적

- # 대만의 한국화교에 대한 정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대만국적 화교의 현 위치 : 대만은 이제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화교들은 지위상의 불안함이 있다. 그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제안이 있으면 한다.
- # 대만 단교시 특별귀화법 같은 것이 필요했다.

# 대만 국적 화교: 여권을 보면 일종의 난민의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6)기타

# 문화를 지키면서 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재산 몰수에 대한 성토.

# 화교집단이 나서서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 일면 재외동포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의해 화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도 덕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 IMF 직후 1998년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화교경제 규제들이 일부 풀렸다.

# 화교경제인연합회등의 협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경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인데,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사는 주민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 주택 구입 대출이 가능해져야 한다.

#### (7)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화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서운함을 느낀다. 또 화교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똑 같이 취급하는 것에서 일정 정도 억울함을 느낀다.

#### (8)교육과 대학진학

# 화교 교육비는 한국 교육비 보다 23배는 더 많이 든다(정부의 지원이 없으므로)

# 수능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검정고시를 봐야한다.

# 대학에서 최근 화교자녀들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배척하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공고/실업고도 필요하다.

#### (9)귀화와 정체성

# 귀화법이 간소해져야 한다.

# 현실적인 고민은 2005년 화상대회 때에 대만국기를 들 것인지 태극기를 들 것인지가 고민이다. 우리가 한번도 못 가본 대만인이냐, 아니면 국적도 없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냐.

# 화교 기업인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묻는다. “너희가 한국회사냐, 대만회사냐”

# 한 친구의 가족은 각각 체류신분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는 F-5비자, 아들은 F-2, 며느리는 한국사람, 손자1은 F-2, 손자2는 F-1.

(10)경제

- # 신용카드, 대출 등이 일관성 있어야 하고 조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 신용카드나 대출 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11)자녀 교육과 귀화문제

- # 주로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귀화가 늦어진다.
- # 따라서 귀화가 문제라면 자녀교육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귀화는 늘어날 것이다. 화교학교에서 학생 600명중 7명이 귀화했다.
- # 귀화수속이 약 1년 걸림.

(12)경제

- # ‘옥탑방 고양이’ 대만에 판권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화교들이 디딤돌이 되었다.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한류열풍 선도에 한화가 있다.
- # 한국화교에 대한 지위가 상승되어야 중국과의 관계/투자 등도 더 나아질 것.
- # 한 한국화교 친구가 동아제약에 근무하는데 박카스 상해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처음에는 지점장으로 발령나기로 했는데 결국 중국 현지 업무는 이 친구가 다하고 지점장은 한국인이 하게되었다.
- # 화교자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직도 한국이 화교 자본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서 그런 제재가 풀렸음을 시사하고 싶어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 # 귀화를 해서 잘 살게되는 것이 아니라 귀화를 할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13)미국의 한국화교

- # 미국에 이민간 한국화교들은 소공동 일대의 화교들로서 부유한 화교들이다. 즉 부유한 화교들은 이미 미국으로 거의 갔다.
- # 캘리포니아의 한국 화교 중 그 지역 10대 재벌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투자를 하기 보다 오히려 부지를 사들인다.

#### (14)인구

# 한국화교는 인구가 너무 적다.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 (15)계속되는 난점들

# 사스로 인해 화교여행사들이 타격을 받았다.

# 한의업도 한국 한의사들이 증가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 음식점은 아직 괜찮은 상태이다.

# 제조업쪽은 쉽게 화교가 진출하기 힘든 부분이다.

#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다.

# 미국의 한국화교와 한국의 화교들이 계속 갈라지고 있다.

#### (16)한국과의 관계

# 1998년부터 김대중 정권이 규제를 풀면서 친한국 성향을 보이는 화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드컵때는 99%가 한국을 응원했다. 98년 이전에는 한국을 응원하지 않았었다.

#### (17)정체성과 문화

# 중요한 것은 인종적인 구분이 아니라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화교동창생 중 한국 학생이 20-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한국학생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는 화교식이다. 화교가 한국에 살면 그는 또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사람이 화교속에서만 살면 그 사람은 화교가 된다.

#### (18)출신지역과 인구

# 모두 다 산둥 출신

# 70%는 한국인과의 혼혈

# 화교들은 거의 같은 학교 출신이므로 친척, 인척, 동창관계가 끈끈하다. 내부에서 결혼이 많으므로 거의 다 친인척관계가 되어 버린다.

# 한국에서 화교동창은 끼리끼리 뭉쳐 다니므로 다른 기수와외의 단합이 잘 안 된다. 일종의 마피아적인 형태. 12년 동안 계속 같이 한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이것은 화교동창사회의 폐쇄성이라 할 수 있다.

# 화교는 단합이 잘 안 된다. 화교임을 창피하게 느끼게 하는 정책과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

#### (19)정체성

- # 출신은 중국, 국적은 대만, 인종적으로는 혼혈이 우세, 출생지는 한국이라는 매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 한국화교의 언어는 매우 특이한데 중국의 한 지역인 복산, 목평 쪽 언어가 한국화교의 표준어이다. 한국화교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 (20)제도적 차별

- # 얼굴이 비슷하고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없으나 제도적 차별을 일상적으로 만나게 된다. 은행, 전기, 수도, 인터넷 등등 외국인이어서 안되는 것이 너무 많다. 늘상 겪는 일이지만 겪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 # 통장 개설을 하러 갈 때마다 “또 싸우러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 # 한국 사회는 인터넷 사회인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बैं킹, 물품구입 등 전부 다.
- # ‘화교 돈을 먹으면 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인처럼 인맥과 뺨이 없기 때문이다. 화교들은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자주 받는다. 연속 4년, 7년 동안 7회 받은 적도 있다. 귀화하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

#### (21)화교경제인 협회

- # 정말 돈 많은 사람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알려지면 언젠가는 찍혀서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 (22)기타

- # 은연 중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내면의 방어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 # 2-3세대는 한국인과 정신세계가 비슷함으로 인해 1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한국인과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 한국인들의 인식도 화교에 대한 인식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외부인에 대한 마인드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 (23)연구에 대한 조언

- # 인권실태는 이미 30년 전에 했었어야 했다. 대만수교 때 이미 영주권이 주어졌어야 했고, 지금은 인권실태가 아니라 한국인과의 권리부분에서의 평등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
- #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 [과연 진짜 중국사람인가], 유승달 -> 연락주시면 무료로 책을 드리겠음.
- # 각 지역마다 협회가 있고, 거기 회원명부(등본)가 있다. 협회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24)그 외

- # 대만화교와 중국화교와의 갈등이 존재하므로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 # 요즘에는 사업에 유리한 것으로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다국적 시대이다)
- # 앞으로의 교육은 향후 10년 정도는 대만지향일 것이지만, 점점 한국 또는 중국지향으로 바뀌고 있다.
- # 화교의 중국어 학원, 중국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약자, 간체 등을 배울 필요가 있고, 한국역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안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 # 요즘에는 화교학교에서도 약자, 간체 등을 가르치고 있다.